

제6편 민속과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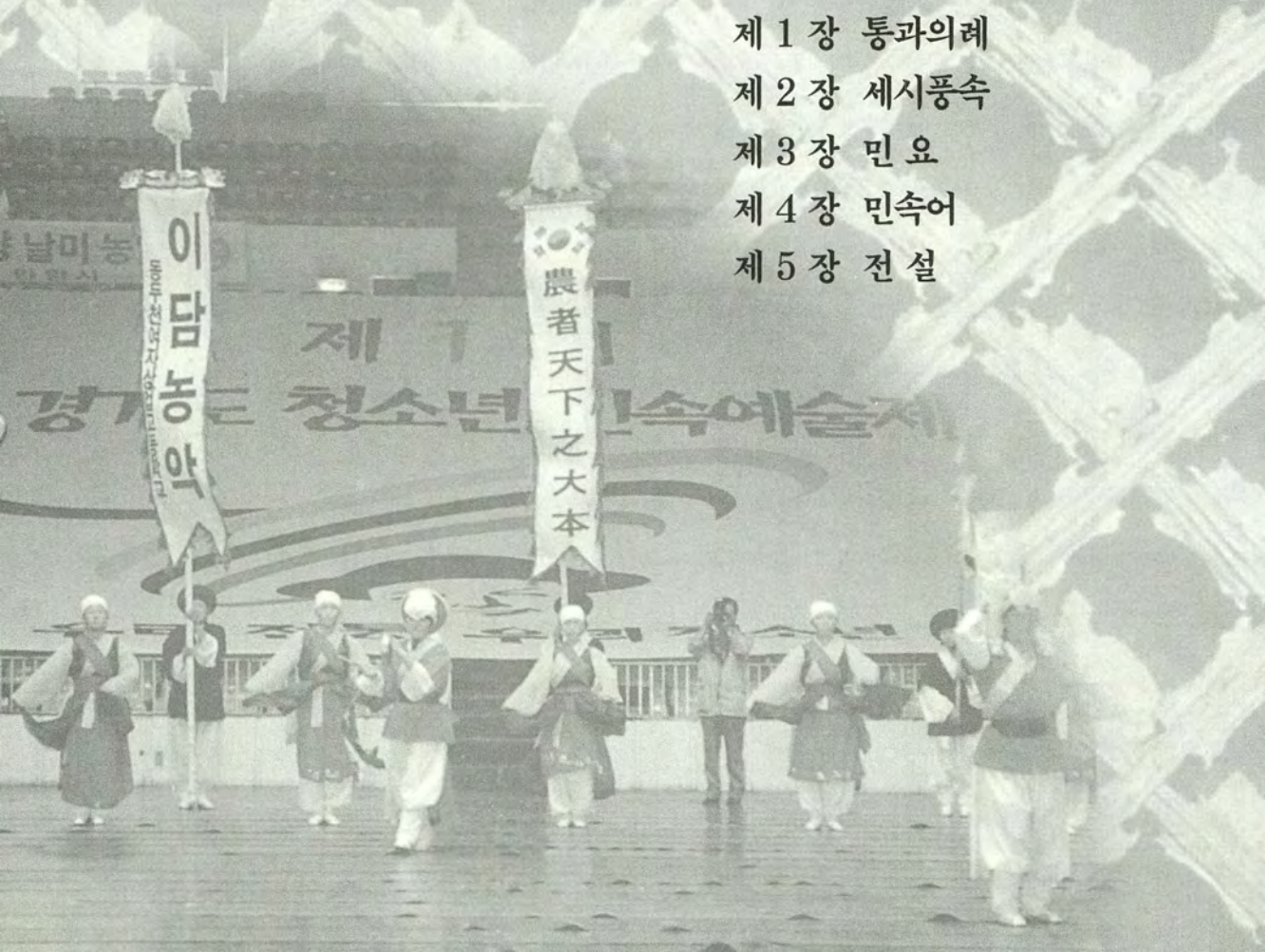
제 1 장 통과 의례

제 2 장 세시 풍속

제 3 장 민요

제 4 장 민속어

제 5 장 전설



여 백

제 1 장 통과 의례

통과의례(通過儀禮)는 개인이 일생 동안 치르게 되는 중요한 사건 중 가족을 중심으로 행하는 일련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흔히 가정의례라고도 하는데, 사례(四禮)인 출산과 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 등이 해당된다. 통과 의례는 모든 사회에 존재하지만, 사회구조나 문화의 차이에 따라 강조되는 의례의 종류가 다를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절차도 다양하다.

통과의례는 개인의 삶이 진전됨에 따라 이전과 다른 지위로 옮겨갈 때, 새로운 지위에 개인을 통합하여 정상적인 생활레도에 올려놓기 위해 발전된다. 즉 새로운 집단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이 곧 통과 의례이다. 그런 만큼 절차는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이전의 집단으로부터 분리를 위한 절차, 둘째로 이전의 집단으로부터 새로운 집단으로 이행을 위한 절차, 셋째로 새로운 집단으로 통합을 위한 절차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모든 사회나 절차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리를 위한 의식절차는 상례에서, 통합을 위한 의식절차는 혼례에서 가장 잘 발전된다. 과도적인 의식절차는 성인의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오늘날 세태 변화는 내행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과 의례의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었다. 혼례는 서양 혼례문화의 유입·정착으로 예식장에서 간소화되었고, 관례는 거의 흔적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례나 제례도 많이 변질되었으나, 다른 의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 이는 제례를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전통이 기성세대에 의해 어느 정도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행동 통과 의례의 구체적인 예는 과거에 실행되었거나 현재에 행해진 모두를 조사·수록하였다. 또한 우리 민족의 장수에 대한 염원과 경로효친사상을 반영하는 회갑(回甲)·칠순(七旬)·회혼례(回婚禮)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문헌자료는 매우 영성(零星)한 형편이며, 체계적인 자료 정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은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생존자의 증언을 보충하는 수준에서 정리하였다.

증언이나 자료 제보에 협조해 주신 분은 다음과 같다.

목유상 (축산업, 6대조부터 거주, 66세, 송내동 323번지)

안병철 (농 업, 6대조부터 거주, 69세, 지행동 241번지)

이강진 (농 업, 6대조부터 거주, 69세, 지행동 214번지)

최옥중 (농 업, 6대조부터 거주, 62세, 송내동 138번지)

제 1 절 관례

1. 개념

관례란 전통 사회에서 남자 아이들이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용모와 태도를 바로하며, 언어를 공손히 하는 등 예도(禮道)를 아는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의례이다. 이때 청소년의 머리를 씻우는 의식 등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절차를 의미한다.

당시는 15세 이상이 되어야 예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5~20세에 일반적으로 행하였다. 이때 부모가 기년(耒年) 이상의 복상(服喪)이 없고, 대공복일지라도 장례 전에는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혼의 풍습이 성행함에 따라 10세 전후에 치르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일단 관례를 치른 후에는 미혼일지라도 성인으로 대우하였다. 반면 여자는 15세를 전후하여 계례(笄禮)를 행하였다. 계례 역시 조혼의 풍습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고, 대신 가정교육으로 대신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단발령(斷髮令)」과 더불어 전통적인 관례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근대사회의 도래에 따른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리하여 관례는 혼례 속에 흡수되어 일부가 잔존하는 형편이다. 지금은 정부에서 5월 20일을 '성년(인)의 날'로 지정하여, 20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성년식을 갖게 할 뿐이다.

내행동의 관례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널리 성행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의례적인 절차보다는 나이에 의해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위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나이가 교육이나 직장 관계 등으로 생활 거주지가 부모님 곁을 떠나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2. 절 차

관례는 관자(冠者: 관례 당사자)의 부나 조부의 친구 중에서 예법에 밝고 어진 사람에게 주례를 의뢰한다. 주례를 담당할 사람을 흔히 계빈(戒賓) 또는 빈(賓)이라 부른다. 당일날 대청 동북쪽에 포장을 쳐서 별석(別席)을 만들고 진복(陳服)을 하는데, 진복은 관복을 의미한다. 진복을 마치고, 빈이 도착하여 관례를 주관하게 된다.

절차는 삼가관례(三加冠禮)로 초가례(初加禮)·재가례(再加禮)·삼가례(三加禮)로써 초관건(初冠巾)·재가모건(再加帽巾)·삼가복두(三加幘頭) 등이다.

초가례는 빈이 관자에게 읊을 하면서 시작된다. 관자가 예복(深衣)을 하고 꿇어 앉으면, 찬자(贊者: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가 관자의 상투를 틀고 망건을 씌운다. 빈은 관자 앞에 서서 “어린 뜻을 버리고 덕을 이루어 오래 살고 큰 복을 받으라”는 내용의 축사를 읽는다. 이어 치관(緇冠: 두꺼운 종이로 만든 검은 관)과 계(笄)를 꽂고 건을 씌우며, 찬자가 관자에게 띠를 둘러주면 방으로 들어가 심의를 입은 다음 큰 띠를 두른다. 다음 관자는 검은 신을 신고 나와 남쪽을 향하여 앉는 절차이다.

재가례는 빈이 “삼가 위엄을 갖추고 덕으로 행동하여 오래 살도록 큰 복을 받으라”라는 내용의 축사를 다시 한다. 관자가 건을 벗으면 빈은 초립(草笠)을 씌워준다. 관자는 방에 들어가 심의를 벗고 조삼을 입고, 그 위에 혁대를 두르고 가죽신을 신고 방에서 나오는 과정이다.

삼가례는 빈이 축사를 한 후 관자에게 초립 대신에 복두를 씌워주면, 방으로 들어간 관자는 조삼을 벗고 난삼을 입는다. 대를 두르고 관자가 밖으로 나와 정좌하면, 빈은 “맑은 술을 권하니 이를 상서롭게 하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이어 오래 잊지말라”는 축사를 하면서 관자에게 술잔을 권한다. 관자는 재배를 하고 술잔을 받아 상 위에 일단 놓았다가 물러나 술맛을 본 후 찬자에게 넘긴다. 이어 빈에게 재배하는데, 이를 초례(醺禮)라 한다. 이어 관자에게 자(字: 별명)를 지어주는 자관자례(字冠者禮)로 이어진다.

관례가 끝나면 주인은 관자를 사당으로 데려가 조상에게 고하면, 고사가 끝나면 관자는 재배를 한다. 이리하여 관자는 완전한 사회의 성인으로서 지위를 얻게 된다. 그런 만큼 남존여비의 관념이 강한 조선시대에는 가문을 계승할 후계자의 ‘사회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등 매우 중시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관례를 통해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동시에 자신의 행동거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제 2 절 혼례

혼례는 남녀 두 사람의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적 및 경제적인 결합을 뜻하는 혼인을 행할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예서(禮書)』에서 규정한 부분과 실제로 행한 관행은 많은 차이점을 드러낸다. 이를 통하여 법과 관행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상이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가가례(家禮)라는 용어가 널리 풍미한 사실은 관혼상제는 모두 집집마다 예가 다르다는 실상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관행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 없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실생활로 정착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된다.

이미 고려 중엽 이후 수용되어 조선시대 지배층의 예로 규정하여 시행한 『문공가례(文公家禮)』는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폐(納幣)·청기(請期)·친영(親迎) 등의 순서였고, 영조대 편찬된 『사례편람(四禮便覽)』은 의혼(議婚)·납채·납폐·친영 순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관행은 의혼·대례(大禮)·후례(後禮) 등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1890년대에 이미 등장한 예배당에서 실시한 신식 결혼식과 1930년대에 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를 중심으로 오늘날 예식장에서 행하는 결혼식의 일반화로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다. 오늘날에는 모두 「가정의례준칙」에 의하여 현대사회 실정에 맞는 혼례식이 거행되고 있다.

내행동에서 시행되었던 전통혼례의 순서는 의혼시에는 납채·연길·납폐 등만이 행해지고, 대례시에는 초행·전안지례·교배지례·합근지례·신방 등이, 후례시에는 신행·현구고례·근친 등이 각각 시행되었다.

1. 의 혼

1) 납 채

납채는 양가에서 중매인을 통하여 의사를 교환한 뒤 혼인하기로 결정되면, 일가친척에 알리는 한편 사당에 간단히 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남자 집에서 여자 집으로 처음 보내는 서신인 사주(四柱)를 보내는 절차이다.

사당에는 사주를 보내기 전에 고하는데, 아침 일찍 사당에 가서 과일과 술을 올리고 나서

“○○의 아들 ○○이 나이가 장성하였으나 짝이 없더니 어느 동 ○○의 딸에게 오늘 납채를 하게 되어 삼가 고하나이다.”라고 사당에 알린다.

사주는 흔히 사성(四星)·주단(柱單)·사주단자(四柱單子)·강서(剛書) 등 명칭도 다양하다. 여기에는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육십갑자(六十甲子)에 따른 간지를 써서 신부집으로 보낸다. 사주는 흰 한지를 다섯 번 접어 가운데에 쓰며, 집안의 어른이 쓰거나 본인이 직접 쓰기도 한다. 다 쓴 사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어 봉투에 넣는데, 예로부터 왼쪽은 길(吉)하고 양(陽)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사주봉투 역시 흰 한지로 만드는데, 사주를 넣은 후 봉투를 봉하지 않으며 근봉(謹封)이라 쓴 띠를 봉투에 씌운다. 그것을 싸릿대를 쪼개어 끼우고 양끝을 청·홍실로 묶은 다음 청홍(靑紅)색 겹으로 된 보자기에 청색이 위에 오도록 싸서 신부집에 보낸다. 사주가 신부집에 도착하면 마루에 상을 펴 놓은 후 신부 아버지가 사주를 받아서 상위에 놓으면, 신부 어머니가 사주를 치마폭에 싸서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가 간직한다. 이후 신부가 아들을 낳은 뒤 친정집에 오면 건네 준다. 신부는 사주를 평생 간직한다.

사주를 보내고 받는 것은 궁합이나 택일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혼사를 결정하는데 이미 서로 사주를 비교한 후에 허혼하는 절차이다. 이는 오늘날의 약혼식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혼인을 거절하려면 사주를 받지 않아야 하며, 사주를 받은 뒤에 혼인을 거절하면 이혼이 된다. 사주를 받는 날 신부집에서는 사주를 가져간 사람을 후하게 대접을 하며, 여유가 있는 집은 떡과 술을 장만하는 등 잔치를 한다.

2) 연 길

연길은 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 신랑집에 택일단자(擇日單子)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혼인일자를 정해 통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택일(날받이)이라고도 한다. 연길은 흔히 납길(納吉)이라 부른다.

택일단자는 전안(奠雁)할 일자와 납폐할 일자를 기입한 단자로써 따로따로 기입하기도 하지만, 전안일시만 쓰고 납폐일시는 동일선행(同日先行)이라고만 쓰는 경우도 있다. 격식을 따지는 집에서는 전안·납폐일시 외에 신랑·신부가 보아서는 안될 사람의 간지, 앉아서서는 안될 방위 등을 기입하기도 한다.

택일단자는 봉투에 넣고 봉투 앞면에는 연길, 뒷면에는 근봉이라 써서 중매인 또는 복 많은 사람 편으로 신랑집에 보낸다. 한편 신부측에서 정해 보낸 택일이 신랑집의 사정과 맞지 않으면, 양가가 협의하여 다시 정하는 예도 있다. 현재는 사전에 양가가 상의하여 택일하는 것이 상례이다.

3) 납 폐

납폐는 대례일 몇일 전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예장(禮狀: 婚書紙와 納幣文)과 채단(綵緞)을 넣은 함을 보내는 의식을 말한다. 흔히 납징(納徵)이라고도 한다.

채단은 청단과 홍단의 치마감을 각각 색지로 싸서 보낸다. 함은 보통 붉은 보자기로 싸서 혼수아비 또는 함진아비가 지고간다. 함진아비가 신부집 문전에 당도하여 수고의 대가를 요구한다. 이때 함값을 흥정하면서 밀고 당기는 승강이를 벌인다. 함진아비는 앞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뒤로 물러서서는 안된다.

함을 상위에 내려 놓으면 혼주는 재배를 하고, 이어 신부측에서 함을 안방으로 옮겨 이것을 깔고 앉아 “복 많이 왔네”하고 외친다. 신부 어머니는 함 속에 손을 넣어 처음 손에 잡힌 채단을 꺼내보는데, 색깔로서 장차 태어날 아이를 예측하기도 한다.

2. 대례

1) 초행

신랑과 일행이 신부 집에 혼례를 올리러 가는 의식을 말한다. 신랑 일행에는 상객(上客: 신랑측의 대표자)·후행(後行)이 포함되며, 때로는 소동(小童) 2명이 동반하기도 한다.

신랑 일행이 신부집 마을에 도착하면 신부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즉 인접(人接) 또는 대반(對盤)인 신부집에서 보낸 안내인이 정해 준 정방에서 잠깐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하는 동시에 혼례식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점검한다. 신부집에서 세 번 청좌(請座)하면 신랑은 사모·관대·관복·혁화(紗帽·冠帶·官服·墨靴) 등을 착용한 다음 예식을 거행할 신부집으로 간다. 이때 안부(雁夫)는 붉은 보자기에 기리기를 싸서 안고 신랑을 인도한다. 신부집에 들어설 때는 부정을 퇴치하는 뜻에서 쏘불을 놓아 반드시 신랑이 그것을 넘어가도록 한다.

한편 신부는 머리에 화관(花冠)인 족두리를 쓰고, 연지를 찍고 사포(紗布)로 앞을 가린다. 이어 황색비단 저고리와 홍색비단 치마를 입고, 그 위에 활옷으로 치장한 다음 신랑이 오기를 기다린다.

2) 전안지례

신랑이 신부의 혼주에게 나무로 깎은 기러기를 전하는 의례를 말하며, 기러기와 같이 의리를 지키겠다는 서약의 뜻을 지닌다. 기러기를 전안상에 놓고 신랑이 재배하면, 신부의 어머니나 시녀가 이를 치마로 싸서 신부가 있는 내실로 들어간다. 혹은 밖에서 내실로 기러기를 던져 태어날 아기를 미리 예측하기도 하였다.

전안지례시 홀기(笏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신랑하마공립(新郎下馬拱立) : 신랑이 말에서 내려서는 것. 신랑은 초례청 밖에 선다.

찬인읍(贊引揖) : 대반(인접)이 초례청으로 신랑을 인도.

신랑답읍(新郎答揖) : 신랑이 읍하고 안으로 들어온다.

신랑취안도소(新郎就雁觀所) : 전안상 앞으로 가라는 것.

신랑궐(新郎跪) : 배석 위에 꿇어 앉는다.

포안(抱雁) : 신랑이 기러기를 받아 안는다.

안치어지(雁置於地) : 기러기를 전안상에 놓는다.

신랑흥(新郎興) : 신랑이 일어난다.

신랑재배(新郎再拜) : 신랑이 두 번 절한다(천지신명에게 서약하는 의미).

신랑흥(新郎興) : 신랑이 일어난다.

신랑소퇴(新郎小退) : 신랑이 조금 물러난다.

3) 교배지례

교배지례란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인사를 나누는 의례이다.

4) 합근지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나누는 의식을 합근지례라 한다. 교배지례와 합근지례의 의식을 대례라고 하는데, 이때 홀기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신랑취초례청(新郎就醺禮廳) : 신랑이 초례청 배석 위로 올라간다.

신랑동향립(新郎東向位) : 신부가 나올 때 뒤돌아 서는 것.
 신부출(新婦出) : 신부가 나온다.
 신랑정면(新郎正面) : 신랑이 정면인 서향으로 돌아 선다.
 관세집건(盥洗執巾) :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신랑신부흥(新郎新婦興) : 신랑 신부가 일어선다.
 읍부취석(揖婦就席) : 신랑이 신부에게 예하고 배석 위에 올라간다.
 신부재배(新婦再拜) : 신부가 재배한다.
 신부궤(新婦跪) : 신부가 배석 위에 꿇어 앉는다.
 신랑답일배(新郎答一拜) : 신랑이 답으로 한 번 절한다.
 신부흥(新婦興) : 신부가 일어선다.
 신부재배(新婦再拜) : 신부가 두 번 절한다.
 신부궤(新婦跪) : 신부가 꿇어 앉는다.
 신랑답일배(新郎答一拜) : 신랑이 답으로 한 번 절한다.
 신랑신부궤(新郎新婦跪) : 꿇어 앉는다.
 행묘배례(行砂杯禮) : 신랑 신부가 술잔을 바꾸어 마시는 예
 행표배례(行瓢杯禮) : 신랑 신부가 술잔의 순번을 바꾸어 마시는 예
 (이때는 술잔 대신 표주박을 사용)
 예필(禮畢) : 혼례식이 끝난다.
 신랑신부귀처소(新郎新婦歸處所) : 신랑 신부가 각각 처소로 돌아간다.

5) 동상례

대례가 끝난 날 저녁때가 되면 신부의 동네 젊은이들이 사랑방에 모여 '신랑다루기'를 하는데 이를 동상례(東床禮)라고 한다. 일명 '신랑달아먹기'라고도 부른다.

신랑에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서, 대답이 신통치 않으면 '새신랑 달아 먹는다' 하여 신랑 발목을 무명끈으로 매어 사랑방 대들보에 거꾸로 매달고 발바닥을 방망이나 북어로 친다. 신랑이 소리를 지르면 장모가 나와 말리고 음식대접을 한다. 이를 통해 마을 청년들과 안면을 익힘으로써 이후 친숙한 처가나들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유품은 공동체 구성원이 혼인을 함께 축하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6) 신 방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낼 신방을 꾸며 주는 것을 말한다. 신랑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혼례복을 입은 신부가 들어온다. 이어 간단한 술과 안주의 주안상이 들어 오는데 술을 나눈 다음, 신랑은 신부의 족두리와 예복을 벗긴다. 족두리는 반드시 신랑이 풀어주어야 한다. 이때 '신방지킨다', '신방벗보기' 라하여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들이 신방의 창호지 문을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뚫고 엿본다. 그러다가 옷벗기는 것을 본 다음 신랑이 불을 끄면 구경꾼들은 모두 물러난다.

3. 후례

1) 신행

신부가 시집으로 오는 것을 신행(新行) 또는 우귀(于歸)라고 한다. 당일에 우귀하는 당일 신행, 3일 후 시집에 사는 3일 신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며칠 또는 몇 달만이나 경우에 따라 해를 넘겨서 신행하는 경우도 있다.

신부가 도착하면 신랑집 대문밖에 짚불을 피워 가마가 그 위를 넘도록하거나 양쪽 사이를 지나게 한다. 가마가 마루에 당도하면 신랑이 문을 열어 주면, 신부는 안방으로 들어간다.

신행 당일 또는 이튿날 시부모와 시댁 친척들에게 예를 올리는 현구고례(見舅姑禮)를 거친다. 이를 폐백(幣帛)이라 흔히 부른다. 촌수와 향렬에 따라 실시되는데, 이는 신부가 시댁의 친척들과 공식적으로 첫 대면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신부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풍성하게 차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근친

신부가 시집에 와서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친정에 가는 것을 말하는데, 신랑의 경우는 혼례식 때 간 것이 초행(初行)이니까 이때는 재행(再行)이 된다. 이는 신부에 대한 일종의 위로휴가라고 볼 수 있으며, 모든 혼례 절차가 종식됨을 의미한다.

보통 신행한 지 1주일 만에 근친(覲親)을 가지만, 신부가 시가에서 첫 농사를 짓고 직접 수

확한 것으로 떡과 술을 만들어 가지고 가기도 했다. 이때 장모는 사위를 데리고 친척집을 다니며 인사를 시키고, 친척들은 식사대접을 한다.

제 3 절 상례

상례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예로써 보내고 장사(葬事)를 지내는 의식 절차를 말한다. 이는 인생의 마지막 통과의례이다. 그런데 본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존자들에 의해 진행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자를 정중하게 모심으로써 생존자의 정신적인 위안을 얻고자하는 소망의 표현이 바로 상례이다. 따라서 상례는 다른 예에 비해 비교적 변화가 크지 않았다.

특히 효를 최고의 가치덕목으로 인식한 성리학적인 가치관은 이를 유지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하지만 상례도 최근에는 급속한 가치관의 혼란과 산업사회로 인하여 이전과는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내행동의 실제 관행을 중심으로 상례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종

1) 임종

임종(臨終)이란 자손들이 숨을 거두게 하는 일을 말한다. 사람이 임종할 상태에 직면하여 회춘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정침(正寢)에 모신다. 정침은 일반적으로 남자는 사랑방이고, 여자는 안방이다. 이때 유언을 기록하는 동시에 방을 비우지 않는다.

이어 가까운 친족에게 알리는 동시에 조용히 하는 등 근신한다. 운명할 사람의 의복을 평상복 중에서 깨끗한 것으로 갈아 입힌다. 죽음이 확인되면, 가족은 모두 옷을 갈아 입는 한편 비녀·반지 등은 절대로 착용하지 않는다.

외지에서 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객사한 경우에는 시신을 집안으로 모시지 않고 바깥 마당에 모신다. 요즈음은 병원의 장례식장에 시신을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수 시

수시(收屍)는 천시(遷尸)라고도 하는데, 운명이 확인되면 눈을 감게 하고 시신의 머리를 서쪽으로 향하여 바르게 눕힌다. 그리고 두 손을 배위에 모아 부드러운 천으로 묶고, 머리가 비틀어지지 않도록 목을 꺾이는 동시에 바로 서게 묶고, 귀와 코를 솜이나 탈지면으로 막는다. 이렇게 한 다음 홀이불로 시신을 머리까지 덮고, 병풍으로 가린다. 향을 쐬 후에 호곡(號哭)을 한다.

3) 복

복(復)은 고인의 흩어진 혼을 다시 부르기 위한 의식을 말하며, 부복(阜復) 또는 초혼(招魂)이라고도 한다.

고인이 생시에 입던 홀두루마기나 속적삼을 왼손에 잡고 휘두르며 허리에 오른손을 얹고 마당에 나가 북향하여 생시의 칭호를 세 번 부르고 “속적삼 받아가시오”라고 한다. 또는 “복, 복, 복, 무슨생 아무개 속적삼 받아가시오”라고도 한다.

복이 끝나면 머리를 풀고 호곡을 한다. 수시와 복은 거의 동시에 한다.

4) 부 고

상을 당한 사실을 호상(護喪)의 이름으로 일가친척과 친지 등에게 알리는 일을 부고(訃告)라고 한다. 부고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현재는 신문에 알리는 것이 가장 보편화되었다.

이때 친척이나 일가 중에 상례에 밝은 사람을 호상으로 선정하여 장례의 절차를 주관하게 된다. 호상의 주요 임무는 부고의 발송, 조문객의 안내, 부의록의 작성, 금품의 출납 등이다.

2. 염 습

시신을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 입혀 관에 넣기까지 절차로서 습(襲)·소렴(小殮)·대렴(大殮)·입관(入棺)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습과 염은 따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습을 한 다음 바로 실행한다.

1) 습

습을 할 때에는 향탕수(香湯水)라하여 향나무 삶은 물로 얼굴을 비롯하여 전신을 닦고, 염의(殮衣)로 갈아 입힌다. 염의는 수의(壽衣)라고도 하며 망인이 입는 옷을 말하는데, 남자는 적삼·고의·저고리·중치막·행전·버선·허리띠·대님·망건(건은 비단으로)·떡목·악수·신·심의·큰띠·귀막이 등이고, 여자는 적삼·속곳·저고리·결마기·허리띠·바지·치마·버선·모자·떡목·악수·신·원삼·큰띠·귀막이 등이다. 염의로 갈아 입히고 나면, 조발낭이라고 하는 다섯 개의 작은 주머니에 손톱·발톱·머리카락을 잘라 각각 따로 넣어 두었다가 대렴 때처럼 넣는다.

2) 반 함

습이 끝나면 반함(飯含)이라 하여 귀와 코를 다시 막고 물에 불린 참쌀을 버드나무 수저로 세 번 입에 떠넣고, 이어 동전 또는 엽전 세 닢을 넣고 '만석이요'라고 외치며, 동전은 한 번 넣고 '백냥이요', 두 번 넣고 '천냥이요', 세 번 넣고 '만석이요'라고 외친다. 이는 망인의 저승 길에 식량과 노자를 드리는 의식이다.

3) 소 령

복과 반함을 한 이튿날에 거행하는데, 교포(絞布 : 염하는 베)로 시신을 묶는 의식을 말한다. 교포는 세로를 묶은 뒤에 가로로 묶으면서 가로의 매수는 시신의 크기에 따라 5매듭 또는 7매듭으로 묶고 순서는 발끝에서 위로 3매듭, 다음에 머리쪽부터 아래를 묶어 내려가 가운데 부분을 제일 나중에 묶는다. 묶는 방법은 교포 한 자락을 두 가닥으로 찢개어 시신이 고루 싸이게 하고 오른쪽 교포가 밑으로, 왼쪽 교포가 아래로 가게 하고 매듭을 짓지 않고 틀어서 끼운 후 남은 가닥은 다음 가닥 밑으로 끼운다. 교포를 다 매면 고깔이라하여 창호지를 접은 것을 묶은 사이 사이에 끼워 밑으로 향하도록 한다. 이것은 망인이 저승의 열두 대문을 지날 때 문지기에게 썩워 주는 것이라 한다.

남자 상제들은 삼끈으로 머리를 묶고 옷옷의 어깨를 드러내며, 여자 상제들은 북머리쪽을 향하여 나무 비너를 꽃고는 곡을 한다. 또한 이때 시신을 가린 병풍 앞에 자리를 깔고 교기(交椅)를 놓고 복의(復衣)를 백지로 싸서 교의 위에 놓고 그 위에 혼백상자를 봉안하고 수건(작은 포장)을 드리운다.

4) 대 령

소령 다음날 입관과 같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염포·상의·도의(倒衣 : 창의를 혹은 중치막)·산의(散衣 : 평상시 입던 옷으로 보공으로 쓴다)·천의(天衾 : 이불)·지복(地褥 : 요) 등을 준비하고 소령 때처럼 시신을 묶는다.

관은 시신이 있는 방안에 마련한 괴임목에 올려 놓는다. 관 안에 재를 뿌리고 칠성판을 깔고 그위에 다시 요를 깔다. 그 다음에는 시신을 안치시키고 어깨·허리·다리 등의 빈곳은 짚이나 종이 또는 헌옷 등의 보공을 채워 시신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때 머리카락을 담은 주머니는 머리쪽에 넣고, 좌우 손톱을 담은 주머니는 좌우 띠에, 발톱을 담은 주머니는 발치에 넣는다. 그리고 나서 관뚜껑을 덮고 나무못으로 박아서, 구의(柩衣 : 널을 덮는 보자기)를 덮은 다음 병풍으로 가린다.

관위의 명정은 천판(天板; 관뚜껑)의 한가운데 오도록 하고 붉은 칠 아교를 사용하여 해서(楷書)로 쓴다. 실내 사면에 포장을 드리우고 천정에 양장(仰帳)을 친 뒤 영좌를 만들어 혼백을 안치하고 영영(靈影)을 놓고 명정을 오른쪽에 걸쳐 놓는다.

대령 후부터 조·석곡을 하는데, 해뜰 무렵의 조곡과 황혼 때의 석곡으로 구분된다. 다만 조·석곡에는 절을 하지 않는다.

5) 성 복

입관이 끝나면 상제들을 지금까지 입었던 통건과 소복(素服)을 벗고,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을 입는 절차인 성복(成服)을 행한다. 현재는 염을 한 후 곧바로 성복을 하고 성복제를 올린다. 각자의 정식 상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남자상복

관(冠) : 굴건(屈巾)으로 3년상은 생포(生布), 이하는 숙포(熟布)이다. 모양은 대공(大功) 구월 이상은 향우(向右)하고 이하는 좌향한다. 끈은 참취(斬衰)는 삼끈으로 하는 반면 제취(齊衰)는 베끈으로 한다.

효건(孝巾) : 굴건을 받쳐쓰는 포건으로 두건을 의미한다.

의(衣) : 참취복과 제복(祭服)이다.

상(裳) : 앞 3폭, 뒤 3폭으로 모두 주름을 잡는다.

중의(中衣) : 중단 최복을 받쳐 입는 중단의(中簾衣). 참최는 의상의 가장자리를 꿰매지 않고 재최는 꿰맨다.

행전(行纏) : 행전.

수질(首絰) : 굴건에 더함. 짚을 틀어서 만들고 곁에 삼을 입힘. 참최의 이은 끝은 왼쪽 귀 위이고 재최 이하는 반대쪽, 끈은 굴건과 같으며, 소공 이하는 없다.

요질(腰絰) : 허리에 두름.

교대(紋帶) : 요질 밑에 띠. 삼으로 꼬아 만든다.

상장(喪杖) : 부상에는 대나무, 모상에는 오동나무와 버드나무로 한다.

신 : 짚신으로 하고 백지를 감는다.

(2) 여자상복

관 : 족두리 흰광목으로 쓴다. 비녀는 외상에는 대나무, 내상에는 버드나무로 한다.

의 : 큰 소매[大袖]와 긴섬[長裾].

상치마 : 앞 3폭, 뒤 6폭.

수질·요질·교질 : 남자와 같다.

신 : 짚신.

(3) 아동상복

아동상복(兒童喪服)은 남자상복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관·건·수질 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위계서열을 중시한 유교문화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복제는 이처럼 망자와 혈연관계 친소에 따라 참최·재최·대공·소공·시마로 구분되는 오복제이다. 이는 다시 정복(正服)·가복(加服)·의복(義服)·강복(降服)의 4종류로 구분된다. 가장 중요한 성복은 참최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이 입는 3년복이다.

성복 후에는 정식으로 조객을 맞이한다. 조문하는 방법은 상제가 곡을 하면 조객은 영좌 앞에 나가서 곡을 하고 재배한다. 이어 상제 앞으로 와 상제와 맞절을 하면서 조의를 표하고,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맞절을 한다.

3. 치 장

치장(治葬)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매장하는 절차를 말한다. 장지는 일반적으로 선영(先塋)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공동묘지를 많이 이용한다.

1) 득지택일

장지와 장일 택하는 것을 득지택일(得地擇日)한다고 하는데, 장지는 지관의 말을 믿고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따른다. 지관이 적지를 선정하는 것이니 이른바 자손들의 빈부(貧富)·귀천(貴賤)·현우(賢愚)·수요(壽夭)가 모두 여기에 달려 있다하여 명당지지(明堂之地)에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보다는 장지는 돌아가신 분을 안장(安葬)하겠다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음덕은 정성에 감복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2) 천 구

발인 하루 전에 조전(朝奠 : 아침제사)에서 주상과 유가족들이 사자(死者)가 가묘(家廟)에 하직케하는 절차를 말한다.

3) 발 인

호상의 경우에는 발인하기 전날 밤 빈 상여로 상여놀이를 하는 등 망자의 혼백을 달래기도 하였다. 이때 복인이나 연장자를 태우고 마을을 돌면서 망자의 친인척으로부터 헌금을 받았다. 또 상가집에서는 상여꾼들에게 푸짐한 음식으로 대접하는 등 내일 일을 부탁하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상여가 장지로 떠나는 발인(發靦)이 시행된다. 이때는 방에서 관을 마당으로 옮겨 놓고 발인제를 올린다. 이를 견전(遣奠)이라 불렀다. 이때 관은 상여에 안치하는데, 상여는 주요한 마을 공동물의 하나였다.

4) 반 곡

봉분역사(封墳役事)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라도 평사제를 마치면, 백관에게 뒷일을 맡기고

신주와 혼백을 영여에 모시고 축관이 분향한 다음에 상주는 혼백을 모시고 귀가하기도 하는데, 이를 반곡 또는 반이라고 한다.

4. 흉 제

치장이 끝난 후 길제(吉祭)까지 제사를 흉제(凶祭)라 하는데, 이는 영좌가 산에서 반혼하여 반혼제를 지내면서부터 길제까지 제사를 의미한다. 우제(虞祭)·졸곡제(卒哭祭)·삭망(朔望) 및 소상(小祥)은 이른 아침에, 대상(大祥)은 첫새벽에 지낸다.

1) 우 제

사자의 시신을 매장하였으므로, 그의 혼이 방황할 것을 우려하여 위안하는 의식으로 노제를 지낸다. 장일에 지내는 제사를 초우제(初虞祭), 그 다음날을 재우제(再虞祭), 삼일째 지내는 제사를 삼우제(三虞祭)라 한다. 순서는 진설·강신·진찬·초헌·아헌·종헌·유식·함문·계문·사신 등으로 진행된다.

(1) 초우제

초우제는 장일 당일에 반혼하여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데, 반혼제와 겸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장지가 멀어 당일 귀가하지 못할 때는 중도의 숙소에서 지낸다.

(2) 삼우제

삼우제는 강일(剛日) 즉, 일진이 갑·병·무·경·임일(甲·丙·戊·庚·壬日)에 지내는데, 대개 장례 후 삼일 내지 사일만이 된다. 우제는 부모가 살아 있을 때처럼 상식(上食)을 한다.

2) 졸곡제

삼우제 이틀 후 무시곡(無時哭)을 마친다는 의미의 졸곡제(卒哭祭)를 올린다. 관행에서는 삼우제 이튿날이나 백일쯤 되는 날에 올린다. 이는 축문만 다를 뿐이지 절차는 우제와 같다. 이때부터 조석으로만 곡을 한다.

3) 대·소상

(1) 소 상

초상 후 1주기에 소상(小祥)을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하루 전에 상주 이하의 목욕재계하고 제수를 준비하며 상복도 깨끗하게 준비한다. 소상을 지내는 날, 날이 밝으면 일어나서 제상을 진설하고 상주 이하의 곡을 시작한다. 순서는 졸곡제와 같이 진행한다.

(2) 대 상

대상은 소상을 지낸 지 1년만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소상과 같이 하루 전에 목욕재계하고 제물을 준비한다. 날이 밝으면 소상 때와 마찬가지로 제를 올린다.

소상 때 탈상을 하지 않았으면 대상 후에 하는데, 탈상 때에는 측관이 신주를 사당에 모시며 영좌를 철폐하고 지팡이는 깨끗한 곳에 버린다.

제 4 절 제 레

제례는 조상숭배의 일종으로 거의 모든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다. 내행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례는 정초차례·추석차례·시제·기제·묘제 등으로 조사되었다.

1. 차 례

차례는 예서에 규정하지 않는 제례의 하나이지만, 사당제의 내용과 습합된 흔적이 많다. 차례는 대체로 매월 1일과 15일에 지내는 삭망차례, 설날·한식·단오·추석에 지내는 사절차례, 대보름날·삼짇날·유두·칠석·중양·동지·납일에 지내는 천신차례 등이 있다. 오늘날 일반화된 정초차례와 추석차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초차례는 매년 음력 1월 1일에 세배로 드리는 차례이며, 추석차례는 새로 지은 곡식으로 음식을 장만해서 조상에게 추수를 감사하는 뜻으로 올리는 제사이다. 차례 방식은 모두 같으나, 정초차례 때는 떡국을 준비하고, 추석차례 때는 송편을 준비하는 것이 다르다.

차례의 장소는 사당을 원칙으로 하나 사당이 없는 집에서는 마루나 방 한칸에 신주를 모신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임시로 지방을 모시고 지낸다.

지방을 모시는 경우 가장 윗대 즉, 고조부모의 지방을 붙이고 제물을 진설한다. 종손이 분향·강신하고, 일동은 참신(參神)한다. 이어 헌작한 다음 정저(正著)·유식(脩食)·낙저(落著)하고 일동이 사신(辭神)한 후 지방을 소각하고 음복하는 순으로 마친다. 이와 같은 순으로 부모 대까지 지낸다.

신주를 모시고 있는 경우 먼저 제물을 진설한 다음에 신주를 모신 곳 앞에 후손들이 양쪽으로 서서 읊하고 있으면 종손이 재배를 한 다음에 가장 윗대의 주독을 꺼내서 교교(交橋)에 모시고 주독을 열고 재배하여 참신한다. 이후 지방을 모시는 경우와 같은 순서로 제를 지내고 지방을 소각하는 대신 신주를 제자리에 모시고 음복하는 순으로 마친다.

2. 기 제

기제는 돌아가신 조상의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기일이란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고조까지 조상을 포함하는 친속(親屬)이 사망한 날을 뜻한다. 이 날에는 다른 일 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기일이라고 하며, 휘일(諱日)이라고도 부른다. 기(忌)자는 본래 금한다는 뜻으로 근심에 싸여 마음이 다른 일에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사용하였으며, 휘(諱)자는 본래 피한다는 뜻으로써 기자와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제의 의미는 고인이 별세한 날을 잊지 못하여 추모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제주(祭主)는 고인의 장자 또는 장손이 되며, 장자와 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차자나 차손이 제주가 되어 제사를 주관한다. 자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주관하기도 한다. 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나 그의 자손이 제주가 되고, 자손없이 상부한 경우에는 아내가 제주가 된다. 참제범위는 고인의 직계자손으로 하고 가까운 친척도 참여할 수 있다.

기제를 지내는 시간을 고인이 별세한 날의 첫 새벽(子時)에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별세한 날이 되면 우선 고인의 제사부터 올리는 정성을 강조하는데 있었다.

차례와 기제를 지내는 대상은 4대 봉사가 원칙이다. 종손의 봉사 대상에서 넘어가면 4대손 내의 방계 후손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가장 윗 항렬의 후손에게 체천(滯遷)되어 기제의 대상이 되었다가 시제로 넘어간다.

제수는 가정 형편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다. 제수를 만들 때는 몸을 청결히 하고 정성껏 만

든다. 그밖에 제사에 쓸 제기를 꺼내 닦아 놓는다. 제수 종류는 메·탕·숙채(熟菜: 무우나물, 도라지나물, 숙주나물 등의 삶은 나물)·생채·포·식혜·적·과일 등을 준비한다. 술과 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제수 진설은 홍동백서(紅東白西), 좌포우혜(左脯右醢), 어동육서(魚東肉西), 두동미서(頭東尾西), 조율이시(棗栗梨柿) 등의 원칙에 따라 진설한다. 제상을 마주보고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된다.

절차는 분향강신·참신·초헌·아헌·중헌·참작·계반·삼시·합문·계문·헌다·철시·복반·사신·철상·음복 등의 순서이다.

3. 묘 제

묘제는 종손을 기준으로 하여 기제 봉사의 대상에서 넘어간 5대조 이상의 조상묘에서 올리는 제사를 말하며, 시제(時祭)·시향(時享)이라고도 한다. 묘제는 청명·한식·중오(음력 5월 5일)·중양(음력 9월 9일) 등에 거행되었다. 요즈음은 일반적으로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 시제를 지낸다.

묘제는 주·과·포 등 간단한 음식으로 산신제를 지낸 후 거행한다. 이는 묘소의 허물어진 곳을 손질하고 주위를 정리하는 성묘와는 다르다.

제 5 절 기타의례

1. 출산의례

출산의례는 잉태에서 출산하여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치성·건강 확인과 이에 대한 축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산전의례·해산의례·산후의례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 자

기자(祈子)행위는 자식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를 의미한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하였던 우리 나라는 자식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를 가장 큰 죄로 인식하였다. 그런 만큼 기자행위는 상당히 성행하였고, 그 방법과 내용도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내행동에서 이루어진 기자행위는 치성(致誠)·음식·주술(呪術)·공덕행위 등이 널리 성행하였다.

(1) 치 성

치성행위는 장소에 따라 산치성·절치성·집치성 등으로 나누며, 비는 날수에 따라 삼일기도·칠일기도·백일기도 등으로 부른다. 또 당사자가 혼자 드리는 외에 남편이나 친정 및 시어머니 등 여럿이 함께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산에 가서 기도를 드린다.
- ② 절에 불공을 드린다.
- ③ 집안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님·조왕님·삼신할머니께 빈다.
- ④ 샘이나 거목을 대상으로 빈다.
- ⑤ 성황당이나 당산나무를 향해 빈다.
- ⑥ 아들바위나 선바위 밑에 촛불을 켜고 빈다.

(2) 음 식

음식행위는 특정한 음식을 많이 복용함으로써 아들을 낳는다고 믿는 데서 유래하였다. 이는 사람의 체질을 변화시킴으로써 아들을 잉태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상징이기도 하다.

- ① 산모에게 첫국밥을 해주고 산모와 함께 국밥을 먹는다.
- ② 남의 삼신상에 올려 놓았던 쌀을 훔쳐다가 밥을 지어 먹는다.
- ③ 남의 집 금줄에 달아둔 고추를 훔쳐 달여 먹는다.
- ④ 가시 돋힌 고추를 삶아 먹는다
- ⑤ 황소의 불알을 삶아 먹는다
- ⑥ 설날에 낳은 계란을 먹는다

(3) 주 술

쇠도끼나 나무도끼를 속옷 끈에 차고 다녔다. 또 '한 텃줄에 아들 삼형제' 라하여 도끼 세 개를 한줄에 이어 맨살에 닿도록 차는 경우도 있었다. 도끼는 '남성이 쓰는 연장인 동시에 남성 그 자체를 나타내는 물건'인 까닭이다. 또는 아들을 많이 낳은 여인의 개짐을 돈을 주고 사

거나 몰래 훔쳐서 몸에 지니는 경우도 있었다.

(4) 공 덕

남에게 선행을 베풀으로써 음덕에 의해 자손을 얻을 수 있다는 신념에서 시작되었다. 곧 자식은 부부가 이웃에게 선행을 시행하는 가운데 신의 조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관점이다. 이는 인간사에서 자식의 귀중함을 일깨우는 교훈이기도 하다.

- ① 마을 공동우물을 청소한다.
- ② 스님에게 시주를 정성껏 한다.
- ③ 불쌍한 사람을 보면, 형제처럼 도와주거나 보살펴준다.
- ④ 허물어진 마을길을 보수하거나 마을길을 깨끗이 청소한다.

2) 임 신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태교(胎敎)를 한다. 태교는 태아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으로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금기는 태아에 대한 부정과 불길(不吉)을 예방하는 경험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태교나 금기는 임신부의 올바른 몸가짐, 음식물의 취사선택 등 임신부의 건강을 유지시키려는 목적 외에 유감주술적인 배려에서 나왔다. 또한 태아가 남아인가, 여아인가를 궁금하게 여겨 이를 태몽과 태점으로 미리 알아보았다.

임신을 하면, 가족 구성원도 지켜할 일들이 수반되었다. 가족들은 상가나 불난 곳 등의 출입을 대단히 엄격하게 제한시켰다. 해산일이 다가오면, 부엌을 고치거나 벽에 못을 치는 등 집안 수리는 모두 중단하였다.

3) 해 산

(1) 산바라지

산달을 앞둔 집에서는 출산 준비에 바쁘다. 기저귀·포대기·배내옷 등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 아기의 포대기는 친정에서 해 주며, 반드시 해산 전에 준비해 둔다. 아기가 태어난 뒤에는 부정이 탄다고 생각했다. 아기 물품을 살때는 깎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이를 깎으면 아기의 복을 깎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입는 배내옷은 첫 목욕시킨 뒤 바로 입히거나 사흘 뒤에 입힌

다. 이 옷은 바늘로 꿰매며 단추를 달지 않고, 긴 끈을 붙여 가슴에 한 바퀴 돌려 맨다. 단추 대신 긴 끈을 쓰는 것은 아기의 수명이 그 만큼 길기를 바라서이다.

해산일이 가까워지면 산바라지도 정해둔다. 이 일은 친정이나 시어머니가 맡으나, 해산경험이 많고 아이들을 모두 무사히 키운 복 많은 노인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산실 윗목에는 밥과 미역국을 소반에 올려놓고 순산을 빌기도 한다. 삼신은 아이를 배게 하고 낳게 하며,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돕는 신이다. 이 신은 한 집에 한 분뿐이므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산달이 같으면 며느리는 반드시 친절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는다. 순산한 뒤에는 삼신에게 바쳤던 쌀과 미역으로 밥과 국을 지어 산모에게 먹인다.

아기가 태어나면 산바라지는 먼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탄생시간이 장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기가 첫 울음을 울기 전 손가락에 풀솜이나 비단을 감고 입속에 넣어 줍쌀알갱이라 하는 이물질을 닦아낸다.

(2) 삼갈이

삼갈이라하여 태줄을 자르는데, 태줄을 잡고 아기쪽으로 훑은 다음 배꼽에서 한뼘쯤 되는 부분을 자르고 그 끝 부분을 실로 잡아매어 깨끗한 솜에 싸서 아기 배위에 올려 놓는다. 태는 흔히 가위로 자르지만 여아가 태어났을 때에는 동생이 남아이기를 바라는 뜻으로 소독한 낫이나 식칼을 쓴다. 남아인 경우에는 낫이나 식칼 외에 산모가 이로 꿇고 그 침을 삼키는데, 이렇게 하면 아기가 무병자우수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태는 짚이나 종이에 싸고 삼신상 아래 두지만, 이를 귀하게 여기는 집에서는 일진에 맞추어 좋은 방위에 놓아둔다. 이 방향을 장태방이라 한다. 태는 보통 사흘이 지나기 전이나 사흘째 되는 날 잣불에 바짝 태워 깨끗한 물에 띄우거나 산에 묻어 버린다. 이를 태우는 장소가 집에서 먼곳이면 동생 터울이 길고 가까우면 짧으리라고 여겼다.

(3) 금줄

아기가 태어나면 한이레 또는 세이레 동안 대문에 금줄을 쳐 둔다. 출산을 외부에 알려서 外人, 특히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이다. 남아인 경우에는 새끼줄에 붉은 고추와 숯덩이를 끼워두며, 여아는 솔가지·종이 따위를 달아둔다. 금줄은 반드시 원새끼로 꼬며 양끝을 자르지 않는다. 원새끼는 잡귀를 쫓기위해서이며, 양끝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아기와 산모의 수명이 끝없이 길기를 바라서이다. 또 금줄을 걸기 위하여 기둥에 못을 박으면 아기가 장님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삼갔다.

(4) 세이레

삼신상을 차려 감사를 드리고 금줄을 걷으며 산모나 아기, 그리고 가족들도 그동안 지켜야

했던 모든 금기도 풀어진단다. 아기에게 위아래 옷을 갖추어 입히며, 산모는 일상생활로 완전히 되 돌아온다. 이웃과 친지에게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며 수수떡과 소를 넣지 않은 만두를 빚어 문 앞에 놓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풀어 먹인다. 수수떡의 붉은 빛깔은 잡귀를 물리치고, 빈 만두는 아이의 도량이 넓어지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신타레나 건강하게 자란 아이옷을 선물하며, 첫 아기인 경우 외가에서 옷과 미역, 실 따위를 가져와 아이와 첫 대면을 한다.

(5) 백일

백일은 아이를 낳은지 100일 되는 날에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잔치이다. 그리고 아이는 백일 때부터 색깔 있는 옷을 입힌다. 그 이유는 아이의 명이 길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때부터는 아이를 업어줄 수가 있다. 백일 전에는 아이가 머리를 가누지도 못하기 때문에 업어줄 수 없지만 백일을 넘긴 후부터는 업어준다.

배냇머리는 이모가 깎아 주면 좋다고 한다. 깎아줄 때는 머리카락 몇 가닥을 남기고 깎아주는데, 이것은 아기의 명이 길라는 뜻이다.

(6) 첫돌

태어난 지 첫 해되는 날에 이른바 돌잔치를 베풀어 준다.

돌잔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돌잡이이다. 돌상에 여러 가지를 올려놓고 아기가 집어 드는 물품에 따라 장래가 결정된다고 믿는 풍속이다. 나마아 상에는 활·실·책·붓·먹·종이·두루마리·쌀·대추 따위를, 여아 상에는 쌀·먹·종이·실·국수·자·칼·바늘·가위 따위를 놓는다. 상 앞에 무명 피륙 한 필이나 포대기를 접어서 아기를 앉힌다. 먼저 집은 것이 활이면 장차 장군이 되고, 쌀이면 부자가 되리라 생각한다. 실은 장수를 나타내고 책·먹·붓 따위는 학자나 관리가 될 조짐이다. 여아의 경우 자·바늘·가위를 집으면 바느질을 잘하고, 칼을 잡으면 음식 솜씨가 뛰어나리라 한다. 따라서 돌상에는 아기의 장래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물품만을 놓으며, 부모는 아기의 미래와 연관되기를 바라는 것들을 집기 쉬운 자리에 놓아둔다.

2. 회갑

회갑은 60갑자가 한 바퀴 돌아왔다고 하여 회갑 또는 환갑(環甲)·주갑(周甲)이라고도 하는데 자손들이 헌수(獻壽)하는 큰 잔치를 베풀다.

아들·사위·아우·조카 등의 순으로 부부가 함께 축배로 장수를 헌하(獻賀)한다. 요즈음은

‘인생은 육십부터’라는 말이 유행하는 등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 친척들과 간소하게 축하한다. 대신 부모님의 여행이나 가족여행이 성행한다.

3. 칠순

칠순은 나이 칠십이 된 날을 기념해서 하는 잔치이다. 옛 글귀에 인생칠십고희래(人生七十古來稀)라하여 칠십까지 수명을 누리는 사람이 드물었다. 자손들은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큰 잔치를 베풀다. 대체로 회갑과 비슷하나 회갑보다는 훨씬 간략하게 한다.

4. 회혼

혼인하여 60주년이 되는 날을 회혼이라 한다. 자손들이 이날 의복을 갖추어 늙은 부부를 신흠과 같이 혼례식을 올려 헌수하는데, 이때 장남은 함진아비가 되어 함을 지고 두부장사(함진아비의 별명)노릇을 하며 해로장수를 축하한다.

친척과 친지를 초청하여 잔치뿐만 아니라 금침을 새로 마련하여 신방도 꾸민다.

〈백운화〉

제 2 장 세시풍속

세시풍속(歲時風俗)은 일상생활 속에서 계절에 따라 관습적으로 되풀이 하는 주기전승(週期傳承)적인 풍속을 의미한다. 설날·단오·추석 등 명절에는 오랜 관습에 따라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과 여러 신에게 제사를 행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진다. 이는 오랜 생활문화로서 매년 반복되는 관습으로 정착하였는데, 이를 세시풍속이라 한다.

생활로 정착된 세시풍속의 시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의해 관습화되었다. 곧 생활 속에서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생활 자체로서 성격을 지닌 것이 바로 세시풍속이다. 그런 만큼 생활에서 한 번 또는 일시적으로 행하다가 사라진 것은 세시풍속이라고 할 수 없다. 바로 세시풍속은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향토문화현상이나 민족을 단위로 나타나는 생활현상이다. 그런 만큼 대중의 공감으로 채택·토착화하는 가운데 전파·전승되었음을 의미한다. 한번 토착화된 세시풍속은 생활양식이나 의식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연속적인 생명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넓은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반복되는 생활관습은 세시풍속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마련이다.

문화형성에 자연환경은 많은 영향을 주며, 세시풍속 역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즉 자연환경의 차이는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게 마련이다. 이는 생업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세시풍속의 다양화를 나타낸다. 이리하여 세시풍속은 자연환경이나 생업 등에 따라 의미는 비슷하지만, 절차나 행사 등은 매우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특히 계절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며, 이는 세시풍속과 관련된 절차나 놀이문화 등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우리의 세시풍속에 관한 기록은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김매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志)』 등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농경사회인 우리 나라는 외형상으로 1950년대까지도 세시풍속은 커다란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시풍속의 끈끈한 생명력과 지속성이 드러난다. 그런데 내행동의 세시풍속은 경기 북부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내행동의 자연환경과 삶의 방식이 다소 다른 것처럼 부분적으로 다른 점도 있다. 이를 계절별과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술의 편의를 위해 봄은 음력 1월~3월, 여름은 4월~6월, 가을은 7월~9월, 겨울은 10~12월로 하였다.

제 1 절 봄

1. 조상숭배

1) 설 날

설날은 일년 중에서 으뜸으로 치는 날로 원일(垣日) 또는 원단(元旦)이라고도 한다. 설의 뜻은 제일 첫번째를 뜻하는데, 이날을 맞이하기 위해 전날인 섣달 그믐날에는 일년을 무사히 지낸 것을 감사하고 새로운 해를 맞기 위하여 마음을 정리한다. 이날은 일년동안 같이 고생한 친구와 가족들과 모여 밤 늦도록 이야기하며 설날을 맞는다.

내행동에서는 과거 풍물을 치면서 이 날을 의미있게 보냈었다. 집안의 부녀자들은 일년동안 행운을 비는 의미로 복조리를 사서 문지방 위에 걸었다. 반면 남자들은 주로 풍물을 치는데, 각 가정에서는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청하기도 하였다. 풍물을 치는 사람들은 먼저 마당에서 주인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고사상에 축원을 하며, 마당에서 놀고 부엌에서 조왕굿을 치고, 장독대나 우물가에서 축원을 빌었다. 이날부터 보름까지는 일반적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일년의 생활을 계획한다.

2) 세 배

세배란 정월 초하룻날 차례를 지낸 후 일동이 자리를 정돈하고 할아버지·할머니·부모님 다 음으로 일가친척의 연장자 순으로 새해 첫 인사를 드린다.

한 집안의 세배가 끝나면 동네의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하는데, 세배를 하러 온 사람들을 맞은 집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아이들에게는 세뱃돈과 떡·과일 등을 주며 덕담을 한다.

3) 청명일

청명일은 한식 하루 전이거나 한식과 같은 날이다. 대부분 농가는 이날을 기해 봄일을 시작

하므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식날과 같이 이날 산소를 찾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대궐에서 버드나무에 불을 붙여 각사(各司)에 나누어 주었는데, 불을 소중히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4) 한식일

한식일(寒食日)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며, 3월이 되기도 하나 대개는 2월 말인데, 양력으로는 4월 초순에 든다. 이날은 조상의 묘에 한식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무덤이 헐었으면 때를 다시 입히는데 이것을 개사초(改沙草)라 하거니와, 묘 둘레에 식목을 하게 되는 것도 이 날이 된다. 이는 시기가 덥지도 춥지도 않으며 농한기이고 해빙이 되어 분묘가 얼었다가 녹아서 무너진 곳, 때가 죽은 곳 등을 보수하기 적당한 때이기 때문이다.

한식날에는 찬밥을 먹는데, 이는 중국 진나라의 충신 개자추(介子推)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전한다. 즉 개자추가 간신에게 몰려 면산(綿山)에 숨어 있었는데, 진문공이 개자추의 충성심을 알고 찾았으나 나오지 않으므로 이날 나오게 하기 위하여 면산에 불을 놓았다. 그러나 개자추는 나오지 않고 불에 타죽고 말았으며, 사람들이 그의 충성됨에 감동하여 찬밥을 먹는 풍속이 생겼다고 한다. 따라서 찬밥을 먹는 풍속은 중국에서 전해온 유속(遺俗)이다.

한편 한식날 아니면 전날인 청명일 무렵부터 따뜻한 봄날씨가 계속되는 때이므로 농가에서는 나무를 심거나 채소 씨를 뿌리는 등 새해 농사가 본격화된다.

2. 기복과 기풍

1) 입춘불이기

입춘(立春)일은 대개 정월 말이나 2월 초순에 행한다. 이 날 각 가정에서 대문·기둥·대들보·천정·문설주 등에 입춘문을 붙이고 송축했는데, 이것을 '입춘불이다'고 한다.

입춘 글귀는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고전에서 골라 쓰기도하고 새로 짓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글귀가 많이 쓰인다.

歲在○○萬事如意亨通 (○○년에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立春大吉 建陽多慶 (봄이 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가 많아지리라)

龍輪五福 虎逐三災 (용이 오복을 실어오고 호랑이는 삼재를 쫓는다)

또는 대문에 용호 두 자를 크게 써 각 한 자씩 붙이기도 한다.

掃地黃金出 開門萬福來 (땅을 쓰니 황금이 나고 문을 여니 만복이 온다)

天增歲月入增壽 春滿乾坤福滿家 (하늘은 세월을 더하고 사람은 수를 더하는데, 봄은 하늘과 땅에 가득하고 복은 집에 가득하다)

門迎春夏秋冬福 戶納東西南北財 (문은 춘하추동 복을 맞이하고, 지게는 동서남북 재물을 들인다)

2) 소밥주기

정월 보름 전날 저녁에는 하루 세 번 먹는 소에게 한 번 더 주었다. 밥과 나물을 상이나 키에 담아다가 직접 소에게 먹이는데, 이때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곡식이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목화가 잘 된다고 한다. 또한 음력 보름날에는 밥과 떡 등을 상에 담아 소 외양간 앞에 놓고 1년 내내 소가 아무 사고없이 일 잘하고 병에 걸리지 않기를 기원하였다.

3) 더위팔기

정월 보름날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친구를 찾아가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게” 또는 “네 더위 내 더위 먼디 더위” 한다. 그러면 더위를 판 것이 되니까 판사람은 일년 동안에 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 대신에 멧 모르고 대답을 했다가 더위를 산 사람은 그 사람의 더위까지 두 사람 몫 더위를 먹게 된다. 그래서 대보름날 아침에 친구가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도리어 “내 더위 사가게” 하면 도리어 더위를 팔러 왔던 사람이 오히려 더위를 먹게 된다고 한다. 만약 무의식 중에 대답을 하여 더위를 샀을 때는 “내 더위 네 더위 맞더위” 하면 된다. 반드시 해뜨기 전에 더위를 팔아야 하는데 이것은 농사철에 대비한 근면성을 이깨우기 위함이라 하겠다.

한편 가축의 더위를 면하는 방법으로 원새끼를 꼬아서 소나 돼지의 목에 걸어주거나, 동으로 뺀 복숭아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 걸어 주기도 한다. 원새끼를 목에 걸어주는 것은 귀신을 묶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며, 동쪽으로 뺀 복숭아 나무의 가지는 악귀를 쫓는 민속적 주술로 쓰이는 일이 많아 더위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믿어지는 데서 유래했다.

4) 과일나무 시집보내기

과일나무 시집보내기는 정월 보름 전날 두 가지가 벌어진 과실나무의 틈에 돌을 끼워 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해야 과일이 많이 열린다고 한다. 이것은 벌어진 과실나무 가지를 여성으로 보고 돌을 끼움으로 성행위를 상징시켜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의례의 하나이다.

자손의 번창은 남녀의 혼인에서 비롯되듯이 과수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위해 같은 수단을 쓰면 될 것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발상에서 나무를 시집보냈다.

5) 귀밝기술

정월 보름날 새벽에 청주를 데우지 않고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또 그 해 내내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의미에서 시행되었다. 이 날 아침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평소에 술을 먹지 않는 사람도 조금씩 먹는다.

6) 부럼깨기

정월 보름날 새벽에 은행·밤·호두·잣 등을 깨무는데 것을 말한다. 이때 첫번째 깨문 것은 마당에 버리면서 “일년 열두 달 무사태평하고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맙시사” 하고 기원하고, 그 다음 것부터 먹는다. 이것을 ‘부럼깬다’ 또는 ‘부럼먹는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일년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나, 일설에는 치아를 굳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한다.

7) 오곡밥

정월 보름 전날에는 오곡밥을 지어 먹는데, 쌀·좁쌀·보리·팥·콩 등의 오곡을 섞어 밥을 짓고, 다섯 가지 나물을 무쳐 이웃끼리 서로 나누어 먹는다.

또한 평상시에는 하루 세번 먹는 밥을 이날은 아홉번 먹어야 좋다고 해서 틈틈이 여러 번 먹고, 일년 내내 부지런하라는 뜻으로 나무 아홉짐을 했다고 한다.

8) 복쌈

정월 보름날에는 김이나 묵은 나물로 쌈을 싸서 먹는데, 이것을 복쌈이라고 한다. 쌈을 먹을 때 “천석 만석”하고 부르며 먹는데, 이는 풍작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한편 두부를 먹으면 두부처럼 살이 찐다고 하여 여러 가지 반찬을 섞어 먹는다.

9) 약밥

정월 보름의 절식(絶食)으로 약밥을 먹는 풍습이 있다. 이러한 풍속의 기원은 신라 때부터이니 『삼국유사(三國遺事)』 사금갑조(射琴匣條)에 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 제21대 소지왕 즉위 10년 되던 어느 날, 천천사(天泉寺)에 행행(行幸)할 때 이 절 담 위에서 까마귀와 쥐가 서로 마주보고 울다가 쥐가 말하기를 “저기 날아가는 까마귀의 가는 곳을 찾아 보아라”하고 사라졌다. 소지왕은 이 말을 이상하게 여겨 기사로 하여금 까마귀의 간 곳을 찾아보도록 분부하였다. 기사가 남촌에 이르렀을 때 두 돼지가 싸우고 있으므로 그것을 보다가 까마귀를 놓쳤다. 그리하여 당황한 기사가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바로 길옆 못 속에서 나타난 백발 노인이 괘서(卦書)를 주었다. 이것을 받아보니 “개견이인사 불개견일인사(開見二人死, 不開見一人死 : 이 편지를 펴보면 두 사람이 죽고, 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적혀 있었다. 기사는 왕에게 그 편지를 보였다. 왕이 펴보지 않으려 하자, 일관(日官)이 말하기를 한 사람은 왕이요, 두 사람은 서민이라 하므로 개봉한 즉, “사금갑(射琴匣 : 금갑을 쏘아라)”라고 적혀 있었다. 왕은 대궐로 급히 돌아와 금갑에 활을 쏘고 나서 열어 보니, 내전에서 분수승(焚修僧)과 왕비가 몰래 내통하여 왕을 죽이고자 모의하다가 화살을 맞고 죽어 있었다. 이에 까마귀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약밥을 비롯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담 위에 얹어 놓았더니 까마귀가 날아와 맨 먼저 약밥을 먹었다고 한다. 이 때부터 해마다 정월 보름날이면 약밥을 지어 이웃끼리 나누어 먹는 것이 하나의 풍속으로 굳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잔칫날이나 설날에도 먹는 별미반(別味飯)의 하나가 되었다.

10) 콩볶기

각 가정에서는 2월 1일에 콩을 볶는다. 솥에 불을 지피고 콩을 넣은 후 주걱으로 타지 않게 켜는다. 볶은 콩을 식구들이 나누어 먹는데 아이들은 좋아라고 주머니에 가득 넣고 다니며 먹

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날을 기다린다.

콩을 볶을 때는 저으면서 “새알 볶아라, 쥐알 볶아라, 콩 볶아라”하고呪言을 한다. 그러면 새와 쥐가 없어져서 곡식을 축내는 일이 없다고 한다. 또한 이 날에는 콩 볶는 것으로 가을 수확을 미리 예상하기도 하는데, 그 방법은 콩과 약간의 보리를 섞어서 한 되를 솥에 볶는다. 다 볶은 다음 담아 한 되가 더 되면 풍년이 들어 추수가 많으며, 한 되가 못되면 흉년이 들게 된다고 전한다.

11) 나이떡

2월 초하룻날 집안 식구의 나이 수대로 손가락으로 쌀을 떠서 송편을 빚고 나이 수에 해당하는 수 만큼 먹는다고 한다. 이를 ‘나이떡’ 또는 송병(松餅)을 먹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내평안하는 동시에 만사형통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이 풍속은 정월 14일에 세웠던 벼가릿대의 곡식으로 2월 1일에 술잎을 켜켜로 놓고 송편을 만들어 노비들에게 나이 수대로 주어서 농사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던 것(일명 노비떡)이 점차 변한 것이라 한다.

12) 경칩일

경칩일(驚蟄日)은 땅 속의 동물들이 겨울 잠을 마치고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날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하여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한다. 특히 벽을 마르면 빈대가 없다고 한다. 또한 이 때의 도롱뇽 알이 몸에 좋다고 하여, 소주를 가지고 산이나 들에 가서 통째로 거둬서 먹기도 한다.

또한 경칩일에 보리싹의 성장을 보아 일년의 풍흉을 예측하여 단풍나무를 베어 나무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위장병에 좋다고 해서 약으로 먹기도 하였다.

13) 머슴날

2월이 되면 농사 준비를 해야 하므로 초하룻날 농사에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머슴들에게 송편을 빚어 먹이며 위로하는 날을 말한다. 이날 20세가 된 머슴은 선배 머슴에게 한 톱을 내아만 어른 대접을 받고, 품앗이에서 어른 몫을 받을 수 있다하니, 머슴의 통과례요 성년식인 셈이다.

14) 삼짇날

3월 3일을 보통은 삼월 삼짇날이라고 하는데, 상사일(上巳日) 또는 상제(上除)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속절(俗節)로 정하여 시식(時食)으로 가문에 제사를 지냈는데, 점차 청명과 한식에 통합되었다.

이 무렵이면 날씨도 온화하고 산과 들에 꽃들이 피기 시작하므로 놀이를 간다. 이 날은 진달래 꽃을 따다가 쌀가루에 반죽하여 참기름을 발라 꽃지짐(花煎)을 만들어 먹으며 봄을 즐겼다. 또 서당의 유생들은 사제간에 겨울 동안 움츠려 지냈던 생활 속에서 양춘가절 만나 산에 올라 춘색을 즐기고 화전을 먹고 시를 읊조리며 하루를 즐겼다.

이날 장을 담그면 맛이 좋고, 호박을 심으면 잘되고, 약물을 마시면 연중 무병하고, 아무리 집 안 수리를 해도 무탈하다고 하며,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물이 흐르듯이 소담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부녀자들은 다투어 머리를 감기도 한다.

이날은 강남갔던 제비도 돌아온다고 하며, 꽃을 찾아 날아 드는 각가지의 나비를 보고 점을 치는데,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먼저 보면 소원이 이루어질 길조라 하고, 흰나비를 먼저 보게 되면 부모의 상을 당하게 될 흉조라고 한다.

3. 점복

1) 옷점

설날에 옷을 던져 새해의 운수를 점치는 풍속을 말하는데, 『경도잡지』에서 “세속에는 설날에 옷가락을 던져 새해의 길흉을 점친다. 대개 세 번을 던져 짝을 짓는데, 64괘로써 하는 요사가 있다.”고 하였듯이, 옷을 세 번 던져 짝을 지어 주역에 의한 64괘로 풀이한 것에 맞춘다.

2) 보리뿌리점

입춘날 농가에서 보리 뿌리를 캐어 봐서 그 해 농작물의 풍년과 흉년을 점쳤다. 즉 보리 뿌리가 세 가닥으로 되었으면 풍작이고, 두 가닥이면 평년작, 하나면 흉년작이라 믿었다.

3) 일기점

설날의 일기를 보아 그 해의 일들을 점치는 것을 말하는데, 바람이 없이 날씨가 맑으면 풍년이 들고, 해가 붉으면 한재가 있으며, 검은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면 흉수가 있다. 또 북풍이 불면 풍작이고 남풍이 불면 흉작이라고 한다.

4) 닭울음점

정월 보름날 꼭두 새벽에 닭이 우는 횟수를 세어 점치는 것을 말하는데, 계명점년(鷄鳴占年)이라고도 한다. 첫 닭울음 소리를 들어 보아서 열 번 이상 울면 풍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5) 노래기 부적

2월 초부터 노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방에 까지 들어오므로, 이것을 막기 위해 2월 1일 날 집안을 청소하고 부적을 만들어 붙인다. 백지에 “향랑각씨속거천리(香娘閣氏速居千里: 향랑각시여 속히 천리 밖으로 도망가라)”라고 써서 기둥이나 벽, 서까래에 거꾸로 붙여 놓으면 노래기가 없어진다고 한다. 우리말에 여자를 향랑각시라 하니 이는 노래기를 미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노래기를 물리치려는 말이다.

제 2 절 여 름

1. 조상숭배

1) 초파일

4월 8일은 석가모니의 탄생일로 욕불일(浴佛日)이라 부르는데, 민간에서는 흔히 초파일이

라고 한다. 이날에는 각 사찰에서 축제를 올리는데, 남녀 신도는 물론 일반대중도 절로 모여 대행사를 구경하고 양초와 향을 부처님께 바치고 복을 빈다. 또 여러 가지 등을 만들어 성금을 받치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 달아 놓고, 밤에는 등에 불을 켜서 제등행렬(提燈行列)을 하는데, 이것을 연등이라 한다.

문헌에 의하면 연등하는 풍속은 신라의 팔관회에서 유래하여, 고려시대에도 이를 계승하였다. 8대 현종대에 2월 보름에 연등회를 거행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가, 고종대부터 초파일에 연등행사를 국가적인 의례로써 중시했다. 조선시대에는 승유억불정책으로 쇠퇴하여 고려시대처럼 연등하는 일은 없어졌고, 민간에서 세시풍속으로 전해오면서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8·15해방 이후부터 불교가 융성하는 가운데 1976년부터는 공휴일로 제정되었다.

2) 단오

5월 5일은 단오라고 하니, 단오는 초오(初午)의 뜻으로 5월 처음의 말(午)의 날을 말한다. 단오를 순 우리말로는 수릿날이라고 하는데, 수릿날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에 대해 몇가지 설을 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단오날 쑥떡을 해 먹는데 쑥떡의 모양이 수레 바퀴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며, 수리란 고상신 등을 의미하는 고어인데 5월 5일이 신의 날, 최고의 날이란 뜻에서 연유된 이름이라고 한다.

이날에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윤기가 흐르고, 머리칼이 빠지지 않고, 소담스러워진다고 해서, 옛날엔 남녀가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다. 또 홍록색의 새옷을 입고, 창포의 뿌리를 깎아 비녀를 만들어 수복(壽福)의 두 글자를 새기고 끝에 연지로 붉게 칠하여 아이들 머리에 꽂아주기도 하는데, 붉은색은 양색으로 재액을 물리치는 기능을 가진 데서 생긴 풍속인데, 지금은 사라졌다.

2. 기복과 기풍

1) 약쑥과 익모초베기

단오날 이른 아침에 쑥과 익모초(益母草)를 뜯어 말려 두었다가 약초로 쓰는 풍속이 있다.

쑥을 베어다가 다발을 묶어서 문 옆에 세워두면 재액을 물리친다고 하며, 농부들이 밭에서 일할 때 약쑥으로 긴 화를 만들어 불을 붙여두고 종일 담배불을 댕기는데 쓰기도 한다. 익모초는 산모의 몸에 이롭다고 하며, 또 여름에 즙을 내서 마시면 입맛이 나고 식욕을 돋운다고 한다. 쑥과 익모초는 한약제로 많이 사용하지만, 특히 단오에 뜯은 것이 약효가 좋다고 한다.

2)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단오날 대추나무의 가지가 벌어진 사이에 작은 돌을 끼워놓는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열매가 많이 열리고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한다. 이는 신년 초에 실시하는 과일나무 시집보내기와 같은 유품이다.

3) 봉선화 물들이기

봉선화가 피는 음력 5월 경에 소녀나 부녀자들 사이에 손톱에 봉선화 물들이기가 성행한다. 물들이는 방법은 봉선화의 잎과 꽃을 따서 백반을 섞어 짙은 다음에 물들이기를 원하는 손톱에 붙이고 형짚으로 싸매고 하루를 지낸다. 다음날 형짚을 풀어보면 손톱에 봉선화 색깔이 아름답게 물들여져 있다. 이 풍속은 '적(赤)이 사귀(邪鬼)를 물리친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한편 8월에 봉선화 물들이는 시누이가 있는 집에 시집가면 시집살이를 하고, 손톱의 봉선화 물이 첫눈 올 때까지 지워지지 않으면 첫사랑이 성공한다는 속설도 전해온다.

4) 삼계탕과 보신탕

복중에 더위를 막고 식욕을 돋기기 위하여 먹는 절식(絶食)으로 삼계탕과 구탕(狗湯, 일명 보신탕)이 있다. 계삼탕은 햇병아리를 잡아 인삼과 대추와 찹쌀을 넣고 곤 것이고, 구탕은 개고기를 곤 것이다. 『동국세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개를 잡아 파와 된장을 넣고 푹 끓인 것을 개장이라 하는데, 이 개장국에 깨와 고추가루를 타고 밥을 말아서 시절 음식으로 먹는다. 그렇게 하여 땀을 흘리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한 것을 보충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개를 잡는 것이 복 날의 큰 행사였으니, 지금의 풍속에도 개장이 삼복 중의 가장 좋은 음식이 된 것이다. 요즈음도 삼복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산간계곡이나 물가를

찾아가 개장이나 계삼탕을 먹으며 야유회 삼아 하루를 즐기는 복대림은 성행되고 있다. 이는 더위를 피하는 동시에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는 방법이었다.

제 3 절 가 을

1. 조상숭배

1) 백종일

7월 15일은 백종(百種)·백중(百衆)·중원(中元)·망혼일(亡魂日)이라고 한다. 이날 승가에서는 백가지의 꽃과 음식을 차려놓고 우란분제(盂蘭盆齋)를 개최한다. 이는 죽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공양인데, 그 유래는 부처님의 제자 일련존자(日蓮尊者)의 어머니가 죽어 극락으로 가지 못하고 악귀가 되어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부처님이 우란분제를 열어 백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어머니께 공양하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런 연유에서 백종날에 부모를 위하여 공양을 하게 되었다.

한편 망혼일이라고 하는 것은 백종일 밤에 술·고기·밥·떡·과실 등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망친(亡親)의 혼을 부러들여 제를 지낸다는 데서 연유되었다. 또한 이날은 그 해에 농사를 잘 지은 집의 머슴을 소에 태우거나 가마에 태운 후 위로하고 흥겹게 놀기도 하였다.

2) 추 석

추석의 우리말은 가위인데, 한자로는 가배일(嘉俳日)·중추절(仲秋節) 등으로 쓰인다. 추석날인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대명절이다. 옛부터 우리는 햇곡식으로 빻은 송편과 술 그리고 햇과일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선조의 묘에 성묘하는 풍속이 있다. 지금도 추석 명절을 지내는 풍습은 옛날과 다름없고, 이때만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라 할 만큼 고향을 찾아가는 귀성객들로 모든 교통 수단이 붐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추석의 유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신라 초

유리왕 때에 왕도를 6부(六部)로 나누었는데, 이를 다시 2부로 크게 나누고 각각 왕녀가 대표되어 부내(部內)의 여인들을 인솔하여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달동안 두레길쌈을 했다. 추석날 그 성과를 심사해서 진 편은 이긴 편에 주식(酒食)을 내고 '회소 회소' 하며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추석의 기원이라고는 하지만 추석은 수확의 명절이요, 달의 명절이란 점으로 미루어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1년 중에서 가장 달밝은 밤인 추석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임을 짐작된다. 따라서 추석은 훨씬 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한편 추석을 가위 또는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그 어원은 지금까지 '가본데'로 중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으며, 또한 신라 가위의 유래담에서 진 편이 이긴 편에 베푸는 잔치나 놀이로서 '갹다(報·價)'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

3) 벌 초

추석을 전후하여 조상의 묘에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고 잔디를 다듬는 풍속을 말하는데, 조상을 기리는 아름다운 풍속이라 하겠다. 지금도 성행하고 있으나, 다만 날짜는 8월 중 문중의 일가친척이 모두 모일 수 있는 휴일을 택하여 가문의 친목회를 겸하기도 한다.

4) 중앙절

9월 9일을 중구(重九) 또는 중앙(重陽)이라고 하는데, 이는 양이 겹쳤다는 뜻이다. 양수인 기수가 겹친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이 다 중앙이겠지만, 중앙하면 중구를 지칭했다. 이날은 국화로 만든 술과 떡을 만들어 먹는 풍속이 있었다고 하며, 또한 3월 3일 강남에서 왔던 제비는 돌아가고 기러기가 돌아온다는 날이기도 하다.

양주의 이인 정석(異人鄭碣)이 중앙에 대해 읊조린 명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世人最重重陽節	세상사람이 중야절을 가장 좋아하지만
未必重陽引興長	반드시 중앙날만 흥이 길더냐
若對黃花傾白酒	누른 꽃에 술을 기울일 수 있다면
九秋何日不重陽	구월달 어느 날이 중앙이 아니리오.

즉 결실의 계절에 자연을 벗삼아 정취를 즐기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요, 중앙절은 가장

복된 계절임을 찬미하고 있다. 이리하여 중양절은 가장 널리 풍속으로 성행하는 계기를 맞았다.

2. 기복과 기풍

1) 칠 석

7월 7일 저녁을 칠석(七夕)이라 한다. 이날 저녁에 직녀성이 하늘에서 바느질을 관장한다는 관념에서 처녀들은 바느질감과 과일을 마당에 차려놓고 바느질 솜씨가 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렇게 칠석날 밤 견우성과 직녀성을 숭상하며 경건히 지낸 것은 다음과 같은 애뜻한 전설이 있기 때문이다.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갈라져 있어, 서로 사랑하지만 다리가 없어 만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딱한 사정을 안 지상의 까마귀와 까치가 이날이면 은하수에다 오작교란 다리를 놓아 주어 견우와 직녀가 다리를 건너와 1년에 한 번 만나게 된다. 그러나 사랑의 회포를 다 풀기도 전에 새벽 닭이 울고 동쪽 하늘이 밝으니 다시 이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견우와 직녀는 또 다시 1년 동안 베를 짜고 밭을 갈면서 고독하게 보내야 했다는 전설이다.

이날 저녁에 비가 내리면 견우와 직녀가 상봉한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며, 이튿날 새벽에 비가 내리면 이별의 슬픈 눈물이라고 전한다.

2) 호미씻이

봄부터 바쁜 농사일에 쫓기다가 백종 때에 논밭의 김을 다 매면 추수 때까지 농부는 한가로이 어정거리게 되므로,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만큼 한가한 때다. 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호미를 씻어 둔다는 뜻으로, 이날은 각호별로 배당해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냇가나 나무 그늘에 모여서 하루를 즐긴다.

3) 삼삼기

7월 15일부터 농촌 부녀자들이 수십명씩 패를 이루어 매일 저녁 돌려가며 하루 한 집씩 삼

을 삼는데, 이것을 둘레삼(協同續麻)이라고 한다. 이렇게 둘레삼을 하는 뜻은 각 가정에서 제각기 따로 하면 능률이 나지 않을 뿐더러 시일이 오래 걸리는데, 협동작업을 하면 시간 가는 줄도 힘드는 줄도 모르게 되기 때문이다.

제 4 절 겨 울

1. 조상숭배

1) 개천절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하여 국경일로 정하고 의식을 행하고 있다. 개천(開天)이란 이름은, 10월 3일날 국조 단군이 천계(天界)에서 천문(天門)을 열고 인간계로 내려왔다는 우리의 전국신화에서 유래되었다.

2) 시 제

명절의 다례(茶禮)와 기제(忌祭)로 4대까지는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지만, 5대가 넘은 조상들에게는 10월에 날짜를 정해 묘제를 지내는데, 이러한 풍속을 시제라고 한다. 제물은 후손들 중 세대주 별로 차례를 정해 차리거나, 묘직이가 있어 재실(齋室)에서 차리기도 한다. 시제의 경비는 위토(位土)에서 경작한 수확물로 충당하는데, 위토는 각 문중의 형편에 따라 소유의 제한이 없었으나 1950년 농지개혁(農地改革)에 의하여 묘 1기당 3단보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분배되었다.

한편 시제는 조상들의 은공을 기리는 일이지 결코 상례와 같은 슬픈 제사는 아니다. 따라서 각지에서 모여든 후손들은 젊은 자제들을 데리고 와서 일가 어른들께 인사시키기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정담을 나누기도 하며, 문중 재산·묘제 따위를 안건으로 문중의 대동회를 열기도 한다.

3) 제야

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0일을 말하는데, 제석(除夕) 또는 제야(除夜)라고 부른다. 그 해에 있었던 모든 거래의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빛이 있는 사람은 이날 다 갚고,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은 이날까지 다 받고, 혹시 받지 못하면 정월 보름까지 받으러 가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또 집안의 묵은 약을 모두 태워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모든 질병이 약타는 냄새를 따라 없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를 한다. 이와 같은 것들은 묵은 것은 깨끗이 청산하고, 맑고 깨끗한 것을 맞이 하려는 마음에서 생긴 풍속이라 하겠다.

4) 묵은 세배

선달 그믐날 한 해를 보내는 인사로서 일가친척의 어른들을 찾아 뵙고 과세의 편안을 여쭙는 것을 묵은세배라고 하였다. 이때는 가까운 집안에 한정되고, 술이나 담배를 사가기도 했다고 한다. 또 사대부 집안에서는 사당에 참례를 했다고 하나, 지금은 모두보기 어려운 풍속이 됐다.

2. 기복과 기풍

1) 김장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담그는 일을 김장이라고 하는데, 김장은 겨울철의 반양식이라고 하듯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세시풍속이다. 김장을 담그는 가장 적당한 시기는 입동(양력 11월 7·8일) 전후 3일이라 하는데, 이 입동이 주로 10월에 드니 10월은 김장달이 된다.

2) 동지

하지가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데 대하여,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동짓날에는 어느 가정이나 팔죽을 쑤어 먹는데, 팔죽은 팔을 삶아 으깨거나 체에 걸러서 그 물에다 찹쌀로 단자를 새알만큼씩 만들어 넣고 쏜다. 이 찹쌀 단자를 새알심 또는 웅심이라

하며 사당에 놓아 차례를 지낸 다음 방·마루·광 등에 한 그릇씩 퍼놓고 식구들이 둘러앉아 먹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팔죽이 재액을 막아 준다는데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유래는 옛날 중국에 공공(共工)이란 사람의 아들이 동짓날 죽어 역귀(疫鬼)가 되었는데, 이 역귀는 팔을 무서워했다고 한다. 그 후로부터 그 역귀를 쫓기 위해 동짓날 팔죽을 쑤어 먹는 풍속이 생겼다고 전하다.

제 5 절 민속놀이

1. 윷놀이

윷놀이는 새해 유희 중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데, 차례와 세배가 끝난 후 정월 보름날까지 계속한다.

윷은 일반적으로 장작윷과 밤윷의 두 가지가 있는데, 장작윷은 장윷 또는 가락윷이라고도 한다. 길이 15~20Cm 직경3~5Cm 정도의 나무 2개를 각각 반으로 쪼개어 4가치를 만든다. 나무는 박달나무나 밤나무를 쓰는것이 보통이며 박달나무 윷은 주로 여자용이어서 비교적 작고 잘 다듬어 채색하는 경우도 있다. 밤윷은 쯔윷이라고도 하며, 작은 밤알만한 크기의 나무조각으로 만든 것이다. 장작윷은 네 짝을 높이 던져 바닥에 요한스럽게 떨어뜨리는데 반하여, 이 밤윷은 보통 조그만 공기 따위에 넣어 휘두르다가 바닥에 휘 던지는 식이다.

이 윷놀이는 대개 말판을 만들어 말판 쓰기로 승부를 가리며 승부에 따라 상품을 걸거나 술 내기 등을 하는데 두 사람 이상 몇 사람이라도 양편으로 갈라서 같이 놀 수 있다. 또 말판을 안쓰고 승부를 가리는 방법도 있으며 어린아이들은 윷 뺏기와 절하기 또는 자릿세 세기 등도 한다. 이러한 윷놀이의 유래나 기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은 없지만 다음 몇 가지 설이 전해진다.

첫째는 부여족시대에 다섯 가지 가축을 다섯 마을에 나누어 주고 그 가축들을 경쟁적으로 번식시킬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에 연유하여 도는 돼지[豚], 개는 개[犬], 길은 양(羊), 윷은 소[牛], 모는 말[馬]에 비유하기도 한다.

둘째는 삼국시대에 생겼다는 민간전설이다. 즉 신라시대 궁녀들이 새해 초에 즐기던 놀이라

하고, 백제의 관직명인 저가(猪加)·우가(牛加)·마가(馬加)·대사(大使)에서 유래된 것이라고도 한다. 또는 고구려의 오가(五加: 東·南·西·北·中央)에서 나온 것이라기도 한다.

셋째는 옛날 어느 장수가 적과 대전 중 적군의 야습을 경계하여 진중의 병사들의 잠을 막기 위하여 이 놀이를 창안하였다는 말도 전하다. 그 밖에 율판이 초패왕 항우의 마지막 결전장이던 해하진형(垓下陳形)을 본 뜬 것이라고도 하나 확실하지는 못하다.

2. 널뛰기

널뛰기는 음력 정초를 비롯하여 5월 단오, 8월 한가위 등의 명절에 젊은 부녀자들이 즐기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길이 7~8척, 너비 1척 정도의 두툼하고 긴 널빤지를 준비하여 그 가운데 밑에 짚단이나 가마니 같은 것을 뭉쳐서 고여놓는다. 그리고 양쪽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한 사람이 뛰었다가 내리 누르는 힘의 반동으로 상대방이 뛰어 오르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뛰어오르기를 되풀이하는 놀이이다.

널뛰기의 유래에 대해서는 상고할 자료가 없고, 고려시대 여성은 매우 활발하여 기마나 격구 같은 경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널뛰기도 고려 여성들의 활발한 기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고려시대부터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널뛰기에 대한 기록은 『경도잡지』에는 부녀들이 널빤지 위에서 춤을 추는데 이를 판무(板舞)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에는 우리나라 여성의 대표적인 고유한 민속으로 이 널뛰기를 들고 있다.



널뛰기

한편 널뛰기와 비슷한 놀이로 유구(琉球)에 판무허(板舞戲)라는 것이 있었다. 이는 고려 말기부터 조선 중기에 걸쳐서 많이 내왕했던 유구의 사신과 상인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놀이가 전파된 것으로 추측된다. 속설에 정초에 널뛰기를 하면 일년 내내 가시에 찔리지 않는다고 전한다.

3. 연날리기

연을 날리는 시기는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가 본격적이지만, 12월 20일 경이면 아이들이 여기저기에서 연날리기를 하는 것을 본다. 연실에다 사기가루나 유리가루로 '깁치'를 먹여 연실에 서술이 일게 하여 연을 얼릴 때에 띠 연을 끊어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놀이를 연싸움이라고 한다. 이 연은 날리는 이의 숨씨에 따라 한 곳에 머무르는 일이 없고, 가로 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는 뒤로 물러갔다 급전진 하는 등 자유자재로 날린다.

이 연날리기는 정월 보름 며칠 전에 큰 성황을 이루는데, 대보름이 되면 '액연(厄鵞) 띄운다.' 하여 연에다 액(厄)·송액(送厄)·송액영복(送厄迎福)·가구모생신액소멸(家口某生身厄消滅 : 집안 식구 아무개 某生 몸의 액을 없애 버린다) 등을 써서 날린다. 이때에 열레에 감겨있던 실을 다 풀고 실을 끊어서 멀리 날려 보낸다. 그러므로 보름이 지나서도 연을 날리는 이가 있으면 '고리백장'이라고 놀려대고 욕을 한다. 그런데 음력 정월 보름에 액을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 띄운 액연이, 자기 집에 떨어지면 좋지 못한 액을 받게 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만약 떨어지면 그 연을 곧장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와 불살라 버렸다고 한다.

4.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정월 보름 날에 행하지만 단오절이나 한가위에 행하기도 한다. 줄은 한 부락이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 집집에서 모은 짚으로 새끼를 꼬아 만든다. 수 십 가닥 꼬아 합친 큰 줄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총집합하여 당겨 승부를 가린다. 줄에는 암줄과 숫줄이 있어 동을 줄, 서를 암줄이라 하며 줄에는 머리에 고리용 머리를 만들어 숫줄의 머리를 암줄 고리에 끼이고 멍에 목을 질러 양 줄을 연결시켜 당긴다. 줄을 당겨 이긴 편은 일년 내내 질병에 걸리지 않고 농사는 풍작이 된다고 하여 함성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당긴다.

줄다리기는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일본·버마 등 여러 나라에도 있으나 그 발생지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한나라 이후에 拔河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하는 줄다리가 있었다. 이 놀이가 행해진 목적은 예양(豊穰)의 기원에 있었는데, 한국이나 일본 등의 줄다리는 이 발하 풍속을 모방하여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줄다리의 관습은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민족의 줄다리는 농경제의(農耕祭衣)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5. 다리밟기

정월 보름날 밤에 다리를 밟으면 일년 내내 건강한 다리로 지낼뿐만 아니라, 액을 면한다고 하여 남녀노소가 모두 다리를 밟는다.

이날에는 새옷으로 갈아입고 부녀자들은 음식물을 냇물에 던져 복을 빌기도 하고, 남자들은 농악을 앞세우고 무동을 서기도 하며 다리 위에서나 다리 근처에서 술자리를 베풀어 한바탕 즐기곤 하였다.

대보름 밤은 모두 다리를 밟으러 나오기 때문에 매우 혼잡하였고 또한 양반들은 상민과 함께 어울리기를 꺼려서 앞당겨 14일에 다리를 밟았으니 이것을 양반 다리밟기라 하였으며, 또 부녀자들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하루 늦추어 16일에 밟기도 했다.



넛다리밟기

6. 돈치기

정초에 청소년들은 따뜻한 양지쪽에서 돈치기를 한다. 돈치기는 규모가 작은 도박의 일종으로 어른들이 금하기도 하지만 놀이의 하나로 흔히 논다.

마당의 넓고 편편한 곳에서 5m쯤 되는 거리에 금을 긋고 동전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 놓는다. 두 사람 이상이면 가능한 데 제각기 돈을 던져서 구멍에 들어간 사람이 첫째이고, 다음은 구멍에 가까운 순으로 차례를 정한다. 순서대로 금을 밟고 돈을 던져 구멍에 든 것은 그냥 따먹고, 나머지 중에서 지정하는 것을 돌로 만든 목대를 던져 맞혀서 따먹는 놀이이다. 돈치기는 동전이 제 값을 지니던 시대에는 많이 성행하였으나 주화의 값이 떨어진 지금은 별로 볼 수 없게 되었다.

7. 각시놀음

풀각시 인형을 가지고 놀던 놀음을 말하는데, 봄이 되면 시골 여자어린이들이 각시풀로 풀각시를 만들어 놀던 놀이이다. 무릇의 둥근뿌리에서 비늘을 벗겨내고 나뭇가지를 꽃아 몸통을 만들어 거기에 형짚 조각을 입혀서 각시처럼 꾸미고 혼례식과 신방 등의 흥내를 내며 노는 소꿉놀이이다.

8. 버들피리

소년들은 물 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비틀고 껍질을 통째로 뽑아서 그것으로 피리를 만들어 부는데 이것이 버들피리다.

9. 그네뛰기

단오날 여성의 놀이로는 그네 뛰기가 있다. 짚으로 단단하게 꼰 동아줄이나 밧줄을 가로로 뻗은 큰 나뭇가지나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가로로 댄 나무의 양끝을 매고 그네를 뛰는데, 녹음이 짙은 5월의 거목 아래서 울긋불긋 곱게 차려입은 소녀들이 치마폭을 바람에 날리며 하늘로 치솟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부녀자들의 외출이 억제되었던 옛날에도 단오날만은 일년 내내 억눌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 볼 수 있는 유일한 놀이였던 셈이다. 그래서 춘향전을 비롯한 우리의 고대소설이나 민담에도 그네를 뛰다가 사랑을 맺게 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네뛰기

이 그네뛰기는 『고금예술도(古今藝術圖)』에 의하면 북방 오랑캐들이 한식날 몸 단련을 위한 뜻으로 추천을 하였는데, 중국의 여자가 이를 배워 한식날의 유희로 삼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에 단오날 유희로 된것이라고 한다.

10. 씨름

단오날 남자들의 놀이로는 씨름이 있다. 지금도 장정들이나 소년들이 넓은 백사장이 또는 잔디밭에 모여 서로의 힘과 슬기를 겨루는 씨름대회가 도처에서 벌어진다. 장정들이 하는 씨름은 어른씨름, 소년들이 하는 것은 아기씨름이라 한다.

씨름은 오래전 상고시대부터 전해 내려왔으며, 중국에서 씨름을 고려기(高麗技)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한민족의 독특한 운동이었던 것이라 믿어진다.

씨름은 서로 마주보고 허리를 굽혀서 오른손으로는 상대방의 허리띠를 잡고 왼손으로는 상대방의 오른쪽 다리를 잡는 자세를 취하고서 시작한다. 이 때 오른쪽 넓적다리에 살바라고 하는 띠를 걸고 하기도 한다. 서로 자세를 갖추면 심판의 신호에 따라 힘과 기술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어느쪽이든 먼저 신체 중 발바닥 이외의 신체가 땅에 닿는 사람이 지게 된다. 씨름의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로 상대방의 다리를 밖으로 감아 걸어 쓰러뜨리는 방법, 상대방을 들어서 쓰러뜨리는 방법, 손으로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방법 등이 주로 많이 쓰인다. 한편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씨름은 자주 이기는 사람을 두결국(都結局)이라 하였으며, 기술로는 내구(內句), 외구(外句), 윤기(輪起) 등 여러 자세가 있다.

씨름대회에서는 도전자들을 모두 이겨 상대자가 없게 되면 우승을 하게 되는데, 우승한 사람을 장사라 부르며 상으로 황소를 주는 것이 관례였다. 상품으로 줄 황소는 미



씨름

리 사다가 씨름판에 매어 두며 승리를 거둔 장사는 황소를 타거나 앞세우고 의기양양하게 씨름판을 돌며 승리감을 만끽한다. 요즘에도 단오 때면 남성들이 자신의 힘과 기술을 발휘하는 씨름대회가 개최되며 프로선수들이 생겨서 사철 씨름대회가 많은 상금을 놓고 열리고 있다.

11. 파리불기

7월에는 파리들이 많이 열린다. 소녀들은 그 열매를 따서 꼭지 붙었던 자리에 바늘로 구멍을 내어, 속을 꺼내 버리고 공기를 불어 입안에 넣고 놀라서 빠드득 하는 소리를 내면서 노는데, 이것을 파리불기라 한다.

12. 도둑놈잡기

마을 내에서 주로 어린이들이 하는 숨박꼭질의 일종이다. 마을 안에 큰 행길가를 중심으로 도둑이 숨을 수 있는 구역을 정한 다음 가위·바위·보로 도둑과 경찰을 뽑는다. 즉 가위·바위·보에서 진 쪽지 2명은 경찰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도둑이 된다. 놀이가 시작되면 도둑은 사방으로 흩어져 몸을 숨기고 경찰은 도둑이 숨을 수 있도록 1~100까지 세고 난 뒤 '찾는다'는 신호와 함께 도둑을 찾아 나선다. 경찰이 도둑을 잡으러 돌아 다니는 동안 도둑이 몰래 돌아와 경찰서로 지정한 물체 또는 기둥을 잡거나 경찰이 일정한 시간내에 찾지 못하면 다음에도 숨을 자격을 얻는다. 반면에 경찰에 몸이 노출되어 잡혀온 도둑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두 명의 경찰이 되어 다시 놀이를 시작한다.

13. 땅따먹기

땅따먹기는 남·여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놀이로써, 작은 막자를 가지고 텅겨서 정해진 구역 내의 땅을 차지하는 놀이이다. 마당이나 공터 또는 행길가에서 주로 하는데 땅이 고르고 잔돌이 없는 곳을 택해 가로 세로 2m 가량되는 사각형을 땅바닥에 그린다. 그리고 네모 안의 모퉁이에는 두 손가락이나 발을 대고 반원을 그려 자기집으로 삼는다. 예컨대 네 명이 할 경우에는

네모통이를 하나씩 차지하고 두 명이 할 경우에는 대각선 방향에 마주보게 집을 그리며, 그 이상의 인원이 함께 할 때는 중간중간에 집을 그린다. 땅따먹기 사용되는 막자는 세로, 가로 2m 안팎의 매끈한 돌이나 사기 그릇 깨진 것, 혹은 네모난 타일을 사용한다.

각자의 집을 그리고 나면 가위·바위·보를 누가 먼저 할 것인지를 정한다. 순번이 결정되면 1등을 한 사람부터 막자를 자기집의 끝선에 대고 엄지와 검지 또는 엄지와 중지를 사용해서 정면이나 좌우로 튕긴다. 그러면 막자가 날아간 곳까지 금을 긋고 다시 한 번 막자를 튕겨서 금을 그은 다음 세번째 튕길 때에는 막자가 자기집으로 들어와 한다. 만일 막자가 자기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거나 밖으로 나가면 다음 사람이 시작하고, 성공하면 그은 만큼 자기집이 되므로 계속해서 땅따먹기를 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한 번이나 두 번째 튕길 때 막자가 밖으로 나가면 죽고, 집외의 금에 막자가 물리면 그 곳까지는 모두 자기의 영토가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서로의 영토가 넓어져 더 이상 빈 공간이 없으면 땅을 많이 확보한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 혹은 빈 공간이 없을 때 상대방의 영토를 침입해서 땅을 모두 빼앗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기도 한다.

14. 기마전

널리 알려져 있듯이 기마전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행했던 전쟁놀이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내행동에서는 1945년 이전, 즉 지금의 6~70대 장년층에서 많이 했으며, 그 이후에는 크게 하지는 않고 단지 초등학교 운동회 등에서 시범을 보이는 정도였다.

기마전은 양 진영으로 나누어 싸움을 하되 각 편에서는 4명이 한 개 조가 되어 말을 만든 다음 대장말의 지휘에 따라 싸움이 시작된다. 즉 한 명은 말이 되고 두명은 말의 어깨사이로 두 팔을 끼워 기수가 탈 수 있도록 하며 나머지 한 명은 기수가 되어 말위에서 직접 싸움을 하게 된다. 기마전의 규칙은 상대편 말을 쓰러뜨리거나 기수를 말 위에서 떨어뜨리면 죽는다. 그러므로 상대편의 말을 모두 죽이거나 아니면 대장말을 먼저 쓰러뜨리는 편이 승리하게 된다.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면 대장말은 3~4구의 호위말을 거느리고 뒷전에서 싸움을 지휘하기 마련이다.

내행동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기마전 외에도 두건을 쓰고 하는 기마전이 행해지기도 했었다. 즉 상대편의 말을 쓰러뜨리는 기마전은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기수 한 명만 머리에 두건을 쓰고 싸움을 하되 상대편의 말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두건을 빼앗으면 승리자로 인정되는 것이다.

15.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마당이나 공터 등에서 남녀 구분없이 어린이들 시이에 행해지고 있는 놀이로서, 겨가 종종 함께 하기도 한다. 놀이의 방법은 5~10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꼴지 한명을 뽑는데, 여기서 꼴지로 선정된 사람을 혼 또는 수꿍이라 부르고 나머지 사람들을 앙꿍이라 한다.

혼과 앙꿍이 정해지면 앙꿍들은 혼과 10~15m 전방에 나란히 서 있고 혼은 기둥이나 나무 또는 벽 등에 기대고 서서 눈을 감은 채 큰소리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천천히 외기도 하고 빠르게 반복하기도 한다. 그러면 앙꿍들은 혼히 주문을 외는 사이에 재빨리 한 두 걸음씩 앞으로 나간다. 만일 혼히 눈을 뜬 다음에 움직이다 발각되는 사람은 앞으로 불려나와 혼에게 가서 한 손을 잡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놀이가 진행되는데, 혼히 외는 주문이 거듭될수록 앙꿍들은 점점 앞으로 다가가서 동시에 혼에게 발각된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 꾸러미처럼 길게 늘어지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혼과 가장 가까이 접근한 사람이 혼히 주문을 외는 사이에 손을 쳐서 죽은 사람들을 풀어 주면 앙꿍과 불려나갔던 사람들은 일제히 처음 출발점으로 도망간다. 이때 혼도 뒤돌아 가서 한 명을 터치하면 그 사람이 다시 혼이 되고 놀이는 계속해서 진행된다. 그러나 만일 앙꿍을 잡지 못하거나 혼 앞에 간 사람이 손잡이를 끊지 않고 혼의 몸을 잡으면 혼이 다시 수꿍이 된다.

제 6 절 마을신앙

행단제는 1945년 해방을 전후로 잊혀졌던 놀이였으나, 경기도가 지역에 묻혀 있는 전통놀이 발굴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계기로 동두천 문화원의 발굴계획에 의해 향토사가인 조규진에 의해 재현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놀이의 시작은 조선 초기인 세조 때부터 행해진 놀이라고 하는데 이 놀이의 유형은 천여 년 된 은행나무에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무병장수 그리고, 새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수제(樹祭)로부터 시작된다. 인근 마을(행단, 송내, 지행)주민들이 참여해 농악·씨름·힘겨루기 등 세 종목을 가지고 마을간에 경진하여 각 종목에서 장원을 뽑아 장원자가 많이 나온 마

을이 그 해의 장원을 차지하는 거승로 일반 놀이와 같다. 이 과정에서 마을간의 협동심이 강조되고 특히 힘의 대결로 결정되는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 무인행사의 색채가 짙다.

제10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1995년 9월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행단제

1. 행단제

행단제는 동신(洞神)인 수신(樹神) 1천여 년 된 은행나무에게 그해의 풍년에 감사하고, 이듬해의 풍년과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제사의식으로 시작되는 대동제의 형태로서 줄다리기, 씨름, 힘겨루기(2백근이나 되는 돌을 들고 은행나무 주위를 맴도는데 제일 많이 든 사람이 승자) 등의 뒷풀이로 구성된 놀이이다. 특히 장원한 마을에서는 장원기와 힘겨루기에 사용된 거석을 다음 놀이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는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행단제의 시원은 조선 초기부터 전해져 온 놀이로 구전되는데, 세조의 성종 연간에 무인이었던 어유소 장군이 소년시절 이 놀이의 힘겨루기에서 장원하였다고 하며 이 은행나무 아래서 학문과 무예를 연마하여 제조때 무과에 급제하여 나라에 큰 기둥이 되었다고 한다.

2. 놀이 구성

행단제의 구성은 인근 3개 마을 지행, 송내, 행단 주민들이 참여하였으며 매년 10월 상단(上田)에 길일을 택하여 3일간이나 지속하였다. 그러나 해방 전까지는 원형대로 지속되어 왔으나 한국전쟁 이후로는 놀이와 의식이 축소된 채로 2년 또는 3년에 한 번 수제의식(樹祭儀式)만으로 전통을 이어오다가 1994년 10월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계기로 발굴하여 참가하게 되었다.

▶ 구연 행단제 기능 보유자

박영빈(85세)·이강진(69세)·안병철(72세)

3. 행단제 홀기

행단제 홀기는 행단제의 진행 순서이다. 우리 선조들은 제례 등 의식의 절차를 매우 중시하였다. 곧 형식적인 완성을 통해 내면적인 완성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형식은 단순한 겉치레가 아니라 자신의 겸양을 표현하는 과정이었다. 그런 만큼 절차는 곧 일상사의 과정 자체였다. 홀기는 다음과 같다.

(1) 행관세례(行盥洗禮)

獻官以下 諸執事 皆盛服盥手洗手 序立 壇下

(2) 행진설례(行陳設禮)

陳設先人 壇上 陳設一如陳設

(3) 행분향례(行焚香禮)

獻官詣 香案前詭 奉爵奉盞盤 奉爐奉香爐

(4) 행강신례(行降神禮)

獻官詣 香案前詭 奉爵奉盞盤 司樽酌酒

獻官奉盞盤 三祭 莎上 奠爵奉空盞奠子位前

(5) 행참신례(行參神禮)

獻官以下 諸執事 皆再拜

(6) 행헌작례(行獻爵禮)

獻官詣 香案前詭 奉爵奉盞盤 司樽酌酒

奠爵奉空盞奠子位前 大祝詣獻官之左 東向詭 讀祝 獻官 再拜

(7) 행사신례(行辭神禮)

祝焚祝文 獻官以下 諸執事 皆再拜

(8) 행음복례(行飲福禮)

祝取爵 取脯詭進干獻官 獻官盥爵

諸執事 序次撤饌

4. 집사자와 제물

제례를 집행하는데 각각의 임무가 부여된다. 이를 집사자라고 한다. 특히 마을 단위일 경우에는 덕망과 복덕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여 이들에게 모든 과정과 절차를 맡긴다. 집사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관 1인, 집례 1인, 대축 1인, 봉향 1인, 봉작 1인, 사준 1인 등이다. 이들은 각각 맡은 바에 임무를 다한다.

한편 제례를 위한 준비물은 유진, 도포, 행전, 짚신 등이다. 그리고 제물은 떡 1시루, 돼지 머리, 삼색과일, 포, 쌀과 좁쌀 1되, 제주(막걸리) 등이다. 제물은 마을의 공동재산이나 각 가정의 부담으로 준비한다.

5. 행단치성제 축문

축문은 제례의 가장 귀중한 부분이다. 곧 모든 참가자의 정성을 축문을 통해 표현한다. 이는 일반 가정의 기제사에서든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없다. 행단제 축문과 고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축문〉

모년모월모일 아모는 존위께 감히 고하나이다.

이(理)와 기(氣)는 양과 음이 있으며, 물체는 나고 죽는 것이 있고, 오면 반드시 가고, 신이 있으면 반드시 귀가 있나니 물체의 남음이 없으면 어찌 귀신의 주가 없으리오.

정이 없는 것이 음양이요 정이 있는 것이 귀신이니 정이 없으면 더불어 말하지 못하고 정이 있으면 가히 깨달을 것이라. 오직 물과 불이 사람을 기르나 때로는 혹 사람을 상하게 하며, 귀신이 사람을 주로 하나 때로는 혹 해하는지라. 그러나 사람을 상하게 하는 자는 물과 불이 아닌 사람이고 사람을 해하는 자는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러므로 추위와 더위며 비오고 개이며, 오미의 음식으로 사람을 살게 하나 사람이 조화를 자실하면 병이 생기는 고로 귀신의 성덕이 천지와 한 가지니 이제 괴기 실로 귀신의 장난이 아니오, 사람의 자작지열이라. 해가 넓이 침노하여 무고히 죽는 것이 어찌 사람이 혹 실덕하여 옥석을 구분함이 아니리오. 사람은 양덕이요, 귀신은 아니며 사람이 주로 살 곳이 없어 음과 양이 서로서로 기다리어 하나도 빠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항상 한 가지도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횡리 요찰을 차마 볼수 있으랴 이에 우리 한 집안이 단을 설치하고 술과 음식으로 제사를 드리오니 오지 존신께서는 괴상한 요기를 맑게 거두어 생생한 큰 덕을 펴 주옵소서. 상향.



행단치성제 들돌

〈고사〉

단기 4천 3백 〇년 〇월 〇일 길일을 택하여 행단 동민 일동은 정성을 한데 모아 치성을 올리오니 영험(靈驗)하신 은행영수(銀杏靈樹)님께서 강림하사 두루 살피시어 그 정성을 너그러히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서 행단동문 일동을 대표하여 제주 〇〇〇는 영주님 앞에 삼가 고하나이다. 〇〇년 올해에도 영주님의 보살핌 속에 동민일동은 근면·성실·화합으로 풍요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의 변천 속에 풍운은 얼마나 지났으며, 갓은 풍진은 몇몇이나 겹쳤습니까? 오늘도 묵묵히 서있는 자태는 무수히 지나간 풍진 속에 시달린 그 흔적에서 역력히 지난 일들을 더듬어 볼 수가 있습니다.

타지에서는 거의 보기 드문 평화의 상징이며 행단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대대로 전승해 온 우리 마을 주민들의 화합의 상징이요, 평화로운 행단의 표상인 것입니다.

지난날 선조들께서도 대대로 이 행단 아래서 마을의 중대사를 의논하고 어려울 때면 의지도하여, 모진 재난에서 구원도 기원해 왔기에 그때마다 천재지변 등 갓은 고난의 화를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도 마을 주민 일동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머리숙여 기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앞날에도 천재지변이나 수마와 함께 길이길이 누리도록 너그러히 받아주시어 우리 고장에 서광과 영광을 비쳐주시옵기 기원하오며 간소하나마 여기에 주민들의 정성으로 장만한 주찬을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행단제 제주 〇〇〇재배

6. 농악놀이

향토사학자 조규진에 의하면 행단농악, 안흥농악, 광암농악, 하봉암농악 등이 있었다. 그런데 농악의 특출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기능을 잇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해 그저 명맥만은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옛날부터 전승되어온 송내농악과 행단농악이 4월 초파일부터 5월 단오절까지 행단마을 은행나무 아래서 벌려오던 곳이 다시 재현되어 농악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담 농악놀이

▶ 구연자

어형우(85세, 송내동) 육태신(82세, 송내동)

박영빈(85세, 송내동) 이강진(69세, 지행동)

농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 경기, 충청 판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 ▷ 가락으로는 광복가락이 있으며, 또한 벽구의 농사풀이 동작을 소고놀이로 표현한다.
- ▷ 농기에는 태극기를 그려 놓은 것이 특징이다.
- ▷ 쇠파가락이 태극기를 그려 놓은 것이 특징이다.
- ▷ 상쇠의 채발림이 섬세하고 채상놀이가 화려하다.
- ▷ 판제가 다양하며 가락의 수는 많지 않으나 일채, 삼채, 칠채 굿거리가 적절하게 잘 다듬어 있다.
- ▷ 전승의 내력을 갖추고 있으며 가락의 신명을 가지고 있다.

수상경력

1991년	9월	경기도 민속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1996년	10월	제3회 전국 농악경연대회 차상
1994년	10월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풍물부분 버금상 수상	1996년	9월	제1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최우수상 수상
	10월	제6회 전국고등학교 풍물놀이 은상 수상		10월	제8회 전국고등학교 풍물놀이 장원(2연패)
	10월	제2회 전국농악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10월	제4회 전국 농악경연대회 장원
1995년	9월	경기도 민속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11월	경기도 4H 경진대회 농악부문 장원
	10월	'95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풍물부분 버금상	1997년	5월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버금상 수상
	10월	제7회 전국고등학교 풍물놀이 장원 수상			

7. 아차동의 솟대

솟대는 민간신앙의 한 형태이다. 민간신앙이란 다른 어떠한 종교보다도 오랜 역사성을 가지며, 대다수 민중의 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한민족의 기층문화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마을은 산신을 중심으로 장승·솟대·선돌·탑·서낭당 등에 대한 신앙의식과 의례가 행해지며, 이러한 의식은 마을공



아치노리 솟대

동체 구성원에게 정신적 일체감과 위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솟대는 장승과 더불어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신앙대상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 남아있는 솟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조사·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솟대의 형태는 마을공동체의 안녕과 수호를 지원하는 액막이와 풍농(豊農)을 위하여 마을에서 공동으로 세우는 '일반솟대'와 풍수도참설에 의해 행주형지세(行舟形地勢)의 마을에 돛대를 나타내기 위해 세우는 '돛제기념의 솟대' 등이 있다. 그리고 새를 묶은 밧줄은 기둥에 닿게 해놓았다. 솟대 아래에는 대리석의 판석을 2장 깔아 제단으로 만들어 제물을 진설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지금도 매년 정월 열나흘날 해질무렵에 동리 주민들에 의해 제를 올리고 있다.

〈백운화〉

제 3 장 민 요

제 1 절 개 요

1. 의미와 변천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 구전되는 노래의 총칭이다. 특정한 개인이 창작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악보로 기록되지 않고 구전되는 점이 민요의 특징이다. 또 어려운 수련을 거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를 익히게 된다. 악곡이나 사설은 부르는 사람이나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즉흥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민요를 흔히 민중의 소리라고 하며, 민중의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민요는 민속·음악·문학을 포함한 종합예술이다. 민속으로서 민요는 구비전승(口碑傳承)이지만, 생업·세시풍속·놀이 등을 기능하는 생활집단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동시에 집단행위를 통해 불린다는 점에서 구비전승과는 다른 영역이다. 음악으로서 민요는 민중이 즐기는 민속음악에 속하나, 전문적인 수련을 필요하는 판소리·무가·가사·시조 등과는 구분된다. 또한 문학으로서 민요는 구비문학의 한 영역이지만, 일정한 율격을 지닌 단형시라는 사실은 설화·수수께끼·속담 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 민요는 이러한 음악·민속·문학의 복합적인 측면을 지니며, 각각 분리된 채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종합예술인 민요는 인류의 집단생활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수렵·어로생활이나 농경생활은 공동노동을 통해 노고를 감소하는 한편 기쁨을 증폭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인류 역사와 함께 계승되었으며, 고구려·부여·옥저·삼한 등에서는 국가적인 행사 거행 시 민요는 큰 구실을 하였다. 지배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민요 중 일부는 공식적인 기능을 지닌 음악문화로 채택되는 등 변화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즉 고구려의 「내원성(來遠城)」·「연양(延陽)」, 백제의 「선운산(禪雲山)」·「정읍(井邑)」, 신라의 「도솔가(兜率歌)」·「회소곡(會蘇曲)」 등이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고려 초기에는 중국문화의 대량 유입으로 음악에서는 당악(唐樂)과 아악(雅樂)의 성행으로

민요는 점차 그 위력을 상실하여 갔다. 궁중음악과 민요 사이에 문화적인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고려 후기에 민요가 궁정악곡으로 대량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속악가사(俗樂歌詞)를 이루었다. 「서경별곡(西京別曲)」·「청산별곡(靑山別曲)」·「가시리」 등이 좋은 예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민요 본래의 모습은 상당히 윤색되었지만, 곡조와 사설 양면에서 민요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시대는 예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민요는 사실상 주목받지 못하고 말았다. 단지 민심의 동향과 교화의 정도를 파악하는 의도에서 민요를 수집함으로써 후세까지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즉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에 정치적인 변화의 조짐을 알리는 참요(讖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였다. 조선 후기는 이양법의 보급에 따른 토지생산성의 증가와 기존 지배질서가 점차 해체되는 과도기였다. 민중의식의 각성이 민요를 통해 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속악이 일어나고, 국문시가도 민요에서 소재와 표현을 찾는 등 민중생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정지역에서 일정한 생활상의 기능과 더불어 전승되던 민요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때는 본래의 기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람의 교류와 교통의 편리함 등으로 「아리랑」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물론 장단이나 가락은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드러낸다. 무가(巫歌)나 노동요 등이 유희요로 바뀌는 등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전문적인 예능집단인 놀이패가 주도하였으며, 이들은 음악적인 세련성과 문학적인 수식을 첨가하는 등 민요를 잡가(雜歌)로 변질시켰다. 근대사회로 전환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이르는 현상은 증폭되었다. 「경복궁타령」·「도라지타령」·「노들강변」 등은 새로 지은 민요이다.

식민지시기에 민요는 민족정서를 집약하는 동시에 일제에 대한 저항성을 표출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였다. “말깨나 하는 놈 재판소 가고, 일깨나 하는 놈 공동산에 간다”라는 표현은 암울한 세태를 적나라하게 풍자한 내용이다. 그러나 대중가요의 유입과 생활방식의 변화로 민요는 점차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2. 기능

민요의 기본형태는 생활 속에서 일정한 기능을 가지며, 이 중에서 노동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노동요는 행동통일을 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힘든 노동을 즐거움으로 전환시키는 등 능률의 향상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다. 그런 만큼 노동요는 노동의 전 영역에 걸쳐 있었고,

노동 방식에 따라 다르게 불리었다. 오늘날 노동 종류·방식과 생활의 급격한 변화로 노동요 전승이 거의 단절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요는 농업노동요·어업노동요·잡역노동요로 구분한다. 농업노동요와 어업노동요는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집단노동요이다. 잡역노동요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토목·운반노동요는 집단노동요인 반면에 수공업이나 집안일을 하면서 부르는 것은 개인노동요이다. 집단노동요는 악곡이나 사설이 단순하게 반복되고, 개인노동요는 표현이 다채롭고 풍부하다.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된 농업노동요는 「보리타작소리」·「모내기소리」·「논매기소리」·「밭매기소리」 등이다. 「보리타작소리」와 「논매기소리」는 한 사람이 선창하면 여럿이 의미없는 여음을 선택하는 선후창방식이다. 반면 「모내기소리」는 일하는 사람들을 양분하여 의미있는 사설을 한줄씩 부르는 교환창(交換唱)을 택한다. 이러한 차이는 노동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노동요는 지역적인 특성과 생업의 종류에 따라 크게 평야형·산간형·해안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처럼 산간형과 해안형을 아우른 특이한 형태도 발견된다.

의식요는 통과 의례와 세시의례를 거행하면서 부르는 민요이다. 혼인할 때 교군(轎軍)이 부르는 노래, 환갑잔치 등에 부르는 노래는 통과 의례에 따른 의식요이다. 그런데 장례시에 부르는 「상여소리」나 「덜구소리」는 다른 민요와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즉 상여를 메고, 무덤을 다지는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라 할 수 있지만, 망자(亡者)의 안장(安葬)과 유족을 위로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자의 잡역노동요이자 개인노동요의 대표적인 것은 「길쌈노래」이다. 길쌈은 여러 명이 모여 작업을 하더라도 각자 자기 일이나 배역을 정할 수 없고, 작업이 장시간 이루어지므로 길게 이어지는 사설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여자들은 마음에 묻어둔 사연을 토로하기 때문에 내용이 구성지거나 처절하다.

유희요는 주체에 따라 아동유희요·남성유희요·여성유희요로 구분된다. 동요는 대부분 아동유희요로 「어깨동무」·「기차노래」·「고무줄놀이」 등이 대표적이다. 남성유희요는 즉흥성을 많이 지니므로 특별한 사설을 지닌 경우가 드물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정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여성유희요는 「강강수월래」나 「뚝다리밟기」 등과 같이 형식이나 내용이 잘 구비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된 「강강수월래」는 의식요인 동시에 유희요이다.

제 2 절 내행동의 민요

내행동의 민요 전승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오래 전에 현장에서 많이 사라졌다. 민요의 특성상 노동의 형태 변화로 그 노래 또한 사라지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이농과 더불어 기계농의 확산은 집단적인 노동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이앙법은 기계로 대체되고, 제초작업인 논메기도 농약인 제초제로 대체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리하여 노동요는 점차 생활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보리농사는 주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먼 '과거'로 인식될 정도로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다. 또한 추수도 모두 기계영농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변화는 곧 노동요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반감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러한 여러 요인으로 내행동에서 성행한 민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생존하는 노인들의 증언이나 아이들의 유희요 속에서 이를 발견·정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특히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를 발굴·정리함으로써 내행동 일대에서 성행한 민요가 되살아날 수 있었다. 내행동에 널리 분포된 민요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역시 노동요와 유희요였다.

1. 노동요

1) 모심는 소리 ①

선 : 에— 여기저기 심어도 삼배출만 나거라

후 : 호나 호나 호나 호나

선 : 여기 저기 꽃아도 사방줄모(사방점조식)로 꽃아라

후 : 호나 호나 호나 호나

2) 모심는 소리 ②

선 : 허어나 허어나 한알기로구나

후 : 허어나 허어나 한알기로구나
 선 : 여기 저기다 심어도 정조식으로 심어라
 후 : 허어나 허어나 한알기로구나
 선 : 여기 저기다 꽃아도 삼배출자리로 심어라
 후 : 허어나 허어나 한알기로구나
 선 : 여기 저기다 꽃아도 정조식으로 심어라
 후 : 허어나 허어나 한알기로구나
 선 : 여기 저기다 심어도 삼배출자리로 심어라
 후 : 허어나 허어나 한알기로구나
 선 : 여주 이천 자체배로 심어라
 후 : 허어나 허어나 한알기로구나
 선 : 김포 통진 일다리배로 심어라
 후 : 허어나 허어나 한알기로구나

3) 논매는 소리

선 : 에헹 에헤요오 헤이에헤 에헤야 에야 에이야 에야루 방아중소
 후 : 에헹 에헤요오 헤이에헤 에헤야 에야 에이야 에야루 방아중소
 선 : 좋다 좋구나 오다가다 만난님은 정은 어이 깊었는지 생각허구서 에루하 또 생각나니
 후 : 에헹 에헤요오 헤이에헤 에헤야 에야 에이야 에야루 방아중소
 선 : 좋다 좋구나 해다지구 저문날에 옥천앵두가 다 붉었구나 시호시호는 에루야 부재재라
 후 : 에헹 에헤요오 헤이에헤 에헤야 에야 에이야 에야루 방아중소
 선 : 좋다 좋구나 오다가다 만난님은 정은 어이 깊었는지 생각허구서 에루하 또 생각허니
 후 : 에헹 에헤요오 헤이에헤 에헤야 에야 에이야 에야루 방아중소
 선 : 좋다 좋구나 해다지구 저문날에 옥천앵두 다 붉었구나 시호시호는 에루야 부재래라
 후 : 에헹 에헤요오 헤이에헤 에헤야 에야 에이야 에야루 방아중소
 선 : 좋다 좋구나 강남서 나온 제비란 놈 박씨 하나를 입에다 물고 부러진 쪽지를 에루하
 잘잘 끝먼
 후 : 에헹 에헤요오 헤이에헤 에헤야 에야 에이야 에야루 방아중소
 선 : 좋다 박석고개를 썩 넘어가서 흥부네 문전을 당도허니 안어이헤루 에루하 썰어를 졌네

후 : 에헹 에헤요오 헤이에헤 에헤야 에야 에이야 에야루 방아쥬소

선 : 좋다 어떤 호걸이 씨불인 글씨 모진 광풍에 다 떨어지구 충성충짜와 에루하 매울열짜

후 : 에헹 에헤요오 헤이에헤 에헤야 에야 에이야 에야루 방아쥬소

선 : 좋다 이십오현 탄야월에 불승청원 저 기러기 갈순 하나를 에루하 입에다 물구

후 : 에헹 에헤요오 헤이에헤 에헤야 에야 에이야 에야루 방아쥬소

선 : 좋다 거지중천 높이 떠서 에강 어디루 가려느냐 어떤 호걸을 에루하 찾어가나

후 : 에헹 에헤요오 헤이에헤 에헤야 에야 에이야 에야루 방아쥬소

선 : 좋다 치악산 지역에 동낙대하니 신선이 모여서 에루하 바둑만두나

후 : 에헹 에헤요오 헤이에헤 에헤야 에야 에이야 에야루 방아쥬소

선 : 좋다 하늘천짜 따지당에 집우짜루다 집을 짓구 날일짜 에루하 영창문에

후 : 에헹 에헤요오 헤이에헤 에헤야 에야 에이야 에야루 방아쥬소

선 : 좋다 달월짜루 다리를 놓구 방중삼경 긴데다 쓰니 별진잘숙에 에루하 불어쥬라

후 : 에헹 에헤요오 헤이에헤 에헤야 에야 에이야 에야루 방아쥬소

4) 발매는 소리

이내 발골 어서 매고

님의 발골 마저 맴새

언제나 다 매고 젓맥이러 갈거나

설렁설렁 부는 바람

우리님의 한삼 바람인가

서울이라 남대문 바람인가

5) 나무하면서 부르는 노래

가지를 치세

한짐이 났으면 어서

부모님 방에 불 때 드리자

가지를 치세

한짐이 났으면 어서

님에 방에 불 때 주리라

6) 지경맞이

선 : 에라어리 지경이요(3번)

선 : 태백산으로 올라가서

선 : 사해사방 바라보니

선 : 제주도라 한라산이요

선 : 전라도라 지리산이요

선 : 충청도라 계룡산이요

선 : 황해도라 구월산이요

선 : 평안도라 묘향산이요

선 : 강원도라 금강산이요

선 : 경기도로 치달아

선 : 삼각산이 되었구나

선 : 대산에 올라 대솔씨 심고

선 : 중산에 올라 중솔씨 심고

선 : 소산에 올라 소솔씨 심은 뒤에

선 : 본향산에 내려와서

선 : 소요산에 심은 뒤에

선 : 낮이면 양기를 씌고

선 : 밤이면 음기를 씌고

선 : 눈비 찬이슬 맞은 후에

선 : 아귀 트고 싹이 나서

선 : 청송영이 되었구나

선 : 집터전을 잡을 적에

선 : 무학도선 상고 고흔되고

선 : 상거사란 지관을 불러다

선 : 좌자오향 쇄를 띄니

선 : 주산 좋고 안산 좋다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3번)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 : 산각산이 똑떨어져
선 : 도봉산이 되었고
선 : 도봉산이 똑떨어져
선 : 칠봉산이 되었고
선 : 소요산이 되었구나
선 : 소요산이 이 터전 모아 놓고
선 : 지경을 다져보자
선 : 동쪽을 다져보니
선 : 금구령이 복구령이
선 : 이리저리 들어온다
선 : 남쪽을 다져보자
선 : 업쪽제비 북쪽제비
선 : 이리저리 왕래하고
선 : 서쪽을 다져보자
선 : 난데없는 금거북이
선 : 서출 등유수로
선 : 수구를 안고 들어온다
선 : 북쪽을 다져보자
선 : 업두꺼비 북두꺼비
선 : 이리저리 왕래하고
선 : 영금설설 기어든다
선 : 중앙으로 다져보자
선 : 부영새 내려퍼고 날아든다
선 : 옥황상제 친입해서
선 : 사해용왕 입실들고
선 : 오방내가 마르도록
선 : 물을 주어 길어낼 제
선 : 삼사년이 지나더니
선 : 방석송이 되었구나
선 : 일일이십년 지나더니

[illegible]

선 : 집주상향 하올차로
 선 : 감상관에 찾아가서
 선 : 상냥봉일 하여보니
 선 : 대주는 생기일이요
 선 : 계주는 복덕일이라
 선 : 원근지세 살펴보자
 선 : 만수산이 비쳤으니
 선 : 역척만년 살것이요
 선 : 북내산이 비쳤으니
 선 : 오복팔복 올것이요
 선 : 이구산이 비쳤으니
 선 : 성현군자 날것이요
 선 : 문필봉이 비쳤으니
 선 : 문장재사 날것이요
 선 : 동자봉이 비쳤으니
 선 : 귀동자가 날것이요
 선 : 에라어리 지경이요(3번)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 에라어리 지경이요(3번)

2. 의식요

1) 고삿반소리

고사 고사 고사로다
 학을 놀러라 대궐 짓고
 범운자 돌아든다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동구재 만리재 백호로다
 북으로 고였으니
 은하는 금여차일

만복을 점지할 때
 육조 앞에는 오영문 혜각사
 삼각산천 기봉되고
 각도 각읍 마련할 때
 동적강수 긴 머리
 우리 나라 금상님은
 해동 대한은 유명국

경상도는 칠십이관
 이 대면내는 대면내요
 중남자 도련님이요
 노랑머리 더벅머리
 흰용 흰용 가리어 보자
 이세 태평은 후세로다
 이씨 한양 등극시에
 아래 윗방 지식님살
 금일 고삿반에 도액을 하니
 호구역살이 세다고 하니
 왕십리 청룡되고
 인왕산 나린 즐기는
 태평성대가 장안되고
 경기하고 삼십칠관
 양승같은 대목 안에
 상남자 서방님이요
 무릎 밑에 손등자
 꿈결같이 지내놓고
 원근 도중에 왕래살
 들로 나리면 들롱살
 안마당엔 비천살이요
 팔만하고 대장군살
 이살 저살 휘몰아다
 이택 가중에는
 우리 나라는 조 한국이요
 심이지국 열두 나라
 신불은 뚝 떨어지다만
 무슨 배를 타고 갈까
 돌배를 집어타니
 흙두선을 집어타니

충청도는 오십삼관
 권명 000씨 댁에
 어깨너머 길동자
 작년같은 험한 세월
 혼인장사에 주당살이요
 국태민안 시화년풍
 마루대청에는 성주님살
 횡대 끝엔 삼신살
 글란 그리도 하려니와
 강남은 대한민국이요
 한강수가 호수가 되고
 여천지는 무궁되고
 사바세계로다
 강원도는 이십칠관
 내 이대동중 대동이요
 하남자 여자기
 우르르 칭칭 자라날 때
 모수적삼에 거상살이요
 내외간에도 이별살
 집으로 들어가자
 장독간엔 고대두살
 헛대 밑엔 농마대살
 만사는 내길이요
 구역살을 풀고 가자
 저궁을 받으려고 드나드는
 호구별 쌍의 손님마다
 앞뒤 강도 열두 강
 나무배는 모진 태풍을 못이겨
 무쇠배를 타고가니
 흙이라 슬슬 풀리고

배 하나를 지어보자
 물에 들면 용왕님살
 마굿간에 우마다살
 마루대청 올라서니
 아랫 대궐 윗 대궐
 경안장을 씌 지나서
 00시 00동 00번지 00씨택의
 천지대역의 백중력을
 오상화해 육중복덕
 중에 한쌍 돈았구나
 심신불이 나오실 때
 이십사 강을 건널 적에
 홀렁 쓰러져 뒤집혀 버리고
 지남철이라 들러붙고
 앓다, 그 배는 못타겠다
 놀다 가던 버드나무
 거무패는 청산개
 이십사 강을 건넜으니
 한양터에 들어서서
 왕십리 살고지요
 이천장 당도하니
 사흘 나흘 보람보고
 삼하절테 사중유혼
 일광보살 점지하여
 손님마마는 곱게곱게 지나가서
 이런 경사가 어데 있나
 낮은 데는 논을 풀어
 벼들 가지에 벼들 잎을
 저무패는 황성개
 부산관에 숙조하고

산으로 오르면 산신살
 바깥 마당에 벼락살이요
 부엌 한칸 들어서니
 안방으로 들어서니
 한양을 뚝 떠나서
 곤지암을 씌 지나서
 하루 이틀 자리보고
 일상생거 이중천의
 좋고 좋은 날을 가려
 하에 한쌍 돈았구나
 심신불이 나오실 때
 나무배를 타고 가자
 가로 뒤편 가라앉고
 물이라 힘을 못이겨
 수양산 마립산 앵무공작이
 네잎 쭈루루 훑어서
 복을 치켜 달고
 부산 장안 잠시 보고
 금지문에 진을 치니
 아래 쌍용 윗 쌍용
 손님마마 들어오신다
 여기 저기 펼쳐 놓고
 하절명 팔중귀훈
 성님의 은덕으로
 굴란 그리도 하려니와
 농사 한철을 짓고 가자
 벼농사를 지을 적에
 엽엽선을 모아 보라
 두리둥실 올리면서
 부산을 뚝떠나서

은지문에 말을 매고
 불탄 대궐 구경하고
 불쌍하다 홀아비콩
 여기저기 심어 놓고
 여기저기 심어 놓고
 서마지기 논배미 가서
 앵무같은 한님네는
 억억부리 저적부리
 들어오면 참바리요
 적게 먹어라 홀쭉벼요
 높은 데는 밭을 풀고
 어떤 벼를 심었느뇨
 많이 먹어라 등터지기
 휘휘 둘러라 상모찰
 은방도 그미도 칠성도 다마금을
 가을보리 봄보리
 들러붙은 매미보리도
 도갈포수의 검은 콩을
 여수거리 천날 거리도
 지게에다 꽃아지고
 논두렁마다 걸어 놓으니
 소 한 마리를 부려보다
 나가면 빈바리
 뒤부리면 뒷노적
 상봉에 깃도 되고
 환갑 진갑에 노인벼
 여기저기 심어놓고
 쑥 깎아라 중보리
 여기저기 심어놓고
 이월에 드는 액은

입문취선 잠시하고
 투태 농사 지어보자
 알록달록 까투리콩
 옥조 참절미 차조
 깔닥낫 싹 갈아서
 저리로 걸어 이리로 베고
 앳다, 그 일 못하겠다
 꿈지없는 동격소요
 싹쓸어라 검불벼요
 덜커덩 푸드덩 쟁기찰
 농사 한철 짓고 가자
 두렁 밑엔 들청벼요
 혼자 먹어라 돼지벼요
 여기저기 심어 놓고
 보리농사를 지을 적에
 홀랑 벗어라 쌀보리
 방정맞은 주머니콩
 스숙(서숙) 농사도 지어보자
 잠방이 입고 곰방이 물고
 이리로 걸어 저리로 베고
 따뱅이 밭을 여드릴 때
 별백이는 노고지리
 앞으로 부리면 앞노적
 암불담불 쌓아노니
 울음을 울음을 울적에
 요즈음 시체 사는 벼
 무슨 보리를 심었느뇨
 이모저모 육모보리
 만리 타국의 강남콩
 제배 또는 맹맥이로 막아주고

사월 초파일 석가여래
 그네줄로 막아내고
 전우 직녀 상봉일에
 팔월이라 한가위날
 팔월에 드는 액은
 난데없는 봉덕새가 날아와서
 이 날개를 툭탁치면
 말을 치면 용마가 되고
 있는 아기는 수명장수
 오동지 육석달인데
 저리로 만석이 쏟아지고
 개를 치면 내눈백이
 긴명은 서려 담고
 이 가문에 묻은 정을
 삼월에 드는 액은
 오월 단오 그네 타는
 밀잼뱅이로 막아 주고
 칠월에 드는 액은
 쟁반 굽으로 막아주고
 국화 농주를 많이 빚어
 사월이라 상달인데
 동지달이라 동지날
 이리저리 끼었으니
 동지날에 드는 액은
 내년 정월 열나흘날
 이월 영등 막아주고
 마음가짐 잡순대로
 생각을 해도 축근자거니
 이웃에 모셔다가 백지
 좋고 좋은 날 가리어서

사월에 드는 액은
 유월이라 유두일
 까치머리로 막아주고
 이웃집에 나누어 주던
 명에 노적에 싸노적을
 중봉에 내려 앉아
 저 날개를 툭탁치면
 닭을 치면 봉황이 된다
 짧은 명은 이어 담아
 다 풀어 점지하자
 이리로 만석이 쏟아진다
 없는 아기는 점지하고
 정칠월 이팔월 삼구월 사시월
 정월에 드는 액은
 관등놀이로 막아내고
 오월에 드는 액은
 칠월이라 칠석날
 햅쌀 송편을 많이 빚어
 구월이라 궁구날에
 사당차리로 막아주고
 시루떡으로 막아주고
 양손에 죽 퍼들고
 뜨거운 팔죽을 뒤집어 쓰고
 흰 떡 가래로 막아주고
 망이 맞은 북어 대가리
 삼월이라 삼짓날
 동지에 하는 굿은
 정월하고 상달인데
 구월에 드는 액은
 시월에 드는 액은

동지 팔죽을 정히 쏘어
 오는 잡귀 가는 잡귀
 만사가 대길ियो
 선달에 그믐달
 오곡밥을 정히 지어
 원강에 소멸하니
 소원성취 발원이라
 받아주어서 오실 적에

중문대문 드나들며
 막걸리 한잔 끼얹은 채로
 앓다, 뜨겁다 도망가자
 선달에 드는 액은
 한 장에 둘둘 말아
 백사가 여일하고
 이고사 복 받으신다
 고삿반으로 돌아보세

2) 상여소리

선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선 :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선 :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선 : 일가 친척 동리 양반
 선 : 인사말씀 들어보소
 선 : 일향만강 하옵시고
 선 : 천년만년 불로장수
 선 : 두손 모아 비나이다
 선 : 일락 서산 지는 해는
 선 : 지고 싶어 지려느냐
 선 : 북망산천 가는 나는
 선 : 가고 싶어 가려느냐
 선 : 어이 같고 어이 같고
 선 : 구만리 황천 어이같까
 선 : 하늘 보고 한숨쉬고
 선 : 땅을 치고 통곡하니
 선 : 산도 울고 물도 울고
 선 : 산천초목이 다 우는구나
 선 : 일가 친척 많다지만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선 : 돈이 없어 죽었으니
 선 : 삼천갑자 동방삭은
 선 : 명이 짧아 죽었으니
 선 : 천하며의 편작이는
 선 : 약명 몰라 죽었으니
 선 : 기비상천 이태백은
 선 : 술이 없어 죽었으니
 선 : 북망산천 가는 나도
 선 : 이내 명이 이뿐이라
 선 : 이팔청춘 소년들아
 선 : 백발보고 웃지마라
 선 : 네가 항시 청춘이며
 선 : 내가 본시 백발이더냐
 선 : 나도 엇그제 이팔청춘
 선 : 소년행락 하였건만
 선 : 무정 세월 여류하여
 선 : 금일백발 원수로다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후 : 어하 어하 어휘리 딸랑

3) 달고질소리

선 : 해가 서산에 걸렸으니 역사행로 빨리 합시다
 선 : 에헤리 휘어리 달궁
 선 : 먼데 사람 듣기도 좋게
 선 : 오신 손님 보기도 좋게
 선 : 한발 두발 달고대로
 선 : 깎은 머리 흔들면서
 선 : 산동허리를 보면서
 선 : 아주 콧광 잘 다져 봄세
 선 : 그럭으로 하려니와
 선 : 무슨 소리 해보시오

후 : 예~헤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선 : 노후대책 마련하세
 선 : 청춘가고 백발오면
 선 : 황천고혼 될줄 알고
 선 : 오는 세월 못오도록
 선 : 철장대로 가로 막고
 선 : 가는 세월 잡으려고
 선 : 밧줄로 동여매고
 선 : 천년만년 살자더니
 선 : 가는 세월 못막고서
 선 : 원수백발 되었도다
 선 : 초로같은 우리 인생
 선 : 아차 한 번 죽어지면
 선 : 움이 날까 싹이 날까
 선 : 또다시 못오는 인생
 선 : 먹고 가고 쓰고 가고
 선 : 맘대로 놓고 가소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후 : 에헤리 달궁

3. 잡역요

1) 디딜방아 노래

청치매 끈에다
 오동나무 숲으로
 떨커덩 떨커덩 쫓는 방애
 시어머니 죽으면 시원타더니
 시아버님 죽으면 시원타더니

소주병 달고
 임 찾아 가세
 언제나 다짚고 밤마실갈까
 보리방애 물부어논게 생각이 나네
 명석자리 떨어진게 생각이 나네

2) 벚틀가

벚틀을 놓세	벚틀을 놓세
옥낙간에다	벚틀을 놓세
에헤요 벚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벚틀에	수심만 지노나
양덕 맹산	중세포요
길주 명천	세북포로다
반공중에	걸린 저 달은
바디장단에	다 넘어간다
초산 벽동	칠승포요
희천 강계	육승포로다
춘포 조포	생당포요
경상도라	안동포로다
젊은 비단	생팔주요
늙은 비단	노방주로다

4. 유희요

1) 잠자리

잠자리 동동 파리 동동 여기 여기 앉어라
잠자리 동동 파리 동동 여기 여기 붙어라

2) 자장가

자—장 자—장	자—장 자—장
노래를 들으며	아가야 잠들어라
아가야 잠자거라	엄-마 손은 약손이다

아가야 잠-자-거-라

3) 고무줄놀이 ①

똑똑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들어오세요	어디 앉아요
아랫목에 앉아요	뜨거워요
윗목에 앉아요	차거워요
순이야 순이야 얘기봐라	울렸어요

4) 고무줄놀이 ②

꼬마야	꼬마야	뒤로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한 발을 들어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손뼉을 쳐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잘 가거라

5) 놀림노래

바보같은 게	쪼다같은 게
곤지 못하고	분위기 망친다

6) 숨박꼭질노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텃밭에는 안된다	상추씨앗 밟는다
꽃밭에도 안된다	꽃모종 밟는다

울타밑도 안된다	호박순을 밟는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종종머리 찾았네	장독대에 숨었네
까까머리 찾았네	방앗간에 숨었네
빨간 댕기 찾았네	기둥 뒤에 숨었네

7) 기차노래

장난감 기차가 칙칙 떠나간다 과자와 사탕을 신고서
엄마방에 있는 우리 애기한테 갖다 주러 갑니다

8) 이슬뽕

이슬뽕 내리뽕	이른 아침 뽕
우산세뽕 나란뽕	걸어갑니뽕
빨간뽕 파란뽕	찍어진 우뽕
종다뽕 펄럭이뽕	우산 세 개뽕
뽕뽕뽕보뽕뽕뽕	이마를 마주 대뽕 걸어갑니뽕

9) 연날리기

연아 연아 올라라	솔개같이 올라라
구름까지 올라라	하늘까지 올라라

10) 학교종 ①

학교종이 깨졌다 엇바뀌 먹자
선생님이 때리면 신고합시다

11) 학교종 ②

학교종이 찌그러졌다 강냉이 사먹자
선생님이 때리면 같이 때린다

12) 우리집에 왜왔니

우리 집에 왜왔니 왜왔니 왜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은지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 바위 보

13)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수한다		멋쟁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옷 입는다		예쁜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5. 기 타

1) 통타령

이통	저통
신통	방통
노방통	금부통
장구통	여우 흘림통
깹깹이통	원산 고불통
옷집 오줌통	아랫집 똥통
우리집 절구통	술집 뜨물통
장님 북통	돼지 오줌통
수비대 나발통	엷은 놈의 상통
목수 목통	못생긴 밥통
큰애기 젓통	주정꾼 술통
못된놈 심통	설은 사랑애통

2) 시집살이 노래 ①

고추당추	맵다하니
시집같이나	매울소나
못살것네	영죽것네
이 시집은	못살겠네

3) 시집살이 노래 ②

아버님 생전	내에 모래
어머님 생전	내에 모여
뭐나 뭐나	해여가나
뒷동산에	앞동산에

송기 뜯어
 뭐에 뭐에
 표주박에
 뭐나 뭐나
 자면지나
 뭐나 뭐나
 장삼이나
 뭐나 뭐나
 송낙이나
 뭐나 뭐나
 낫파리나
 뭐나 뭐나
 앞동산에
 비루먹은

송기 절편 해여가지
 담아가나
 담아가지
 덮어가나
 덮어가지
 입구가지
 입구가지
 쓰구గా나
 쓰구가지
 신구గా나
 신구가지
 타구గా나
 뒷동산에
 당나귀나 타구가지

4) 시집살이 노래 ③

남방 비단
 북방 비단
 안옷 그림
 겹옷 그림
 고름 끝을
 을조롱
 타기 싫은
 가기 싫은
 우리 형제
 나다니는데
 밤이면
 낮이면
 티미하다

남지불에
 등정받고
 닳냥팔이
 옛냥짜리
 보니 ㄸ내
 조롱조롱
 쌍가매야
 시집이라
 다 놔두고
 자치도 없어지네
 한 베개요
 한 자리요
 어이 살꼬

설마 후설
 수재도 한치
 어린 동생
 주역주역
 늙은 종
 목을 놓고
 사촌 종적
 니야 무슨
 아부님은
 층층시아
 열두 마리
 니야 무슨
 생야라던
 일조에
 생부지자하
 내집같이
 고마가에
 새각 나절
 저무도록
 저 동리가
 사백 비단
 동서방네
 저무도록
 각토증이
 짹짹감주
 먹으라고
 조심 많아
 안모하신
 며느리
 녹의홍상

하건마는
 후롱같이 가르친다
 큰 동생은
 눈물이라
 젊은 종은
 슬피운다
 다 모여서
 한이 있노
 대현서고
 좋은 집에
 동봉 말이
 한이 있노
 우리 집에
 이별하고
 남의 집을
 가는구나
 동의하니
 다다르니
 무산 눈물
 그 동리가
 푸른 후에
 들어가니
 지닌 달이
 절로 난다
 냉랭체로
 하는 것을
 못먹겠네
 늙은이가
 잘도봤다
 새댁들이

첩첩이
 하로 밤을
 아버님도
 하인도
 숨은 눈물
 문을 닫고
 거룩하다
 시수물을
 웃지 말고
 오는 손님
 웃구경
 옷말에
 가지가지
 홑옷에
 겹옷에
 홑옷에
 들쳐보며
 즈그正
 이상하다
 잘도 했다
 즈그正
 산들산들
 사날있다
 들어가
 시아버님
 기미몰라
 맛을 보고
 조심이요
 짹아도
 정주간에

들어앉아
 자고난 후
 하직하고
 이별하고
 울고 나서
 앉으니
 어머니
 손에 들고
 분석객 다시하고
 영접해라
 하러온다
 잇는 것을
 들쳐낸다
 발린 솔과
 창침손과
 가끔새를

 짓거리며
 도령수사

 오므리고
 웃는구나
 정주간에

 그건님이
 헤메시냐
 싱거워도

 근심이요
 들지마라

불티맞이	오라캐지
방앗간에	들지마라
둥기패	오른다
놀다가	심심그면
상육이나	쳐봐라
어린 아이	첫술이나
쳐주라	
비단 치마	댕기건던
모시 처마	입어봐라
암만 섬겨도	남산 안보인다
한길에	가든 손님
친정손님	오시는가
손님이	대문밖으로 가니
손님도	날 속인다
하인도	친정 하인
오시는가	
하인도	날 속인다
하늘가에	저 기러기
친정에	댕겨오는고
그러구로	친정가는
날이 닥쳐	
열두 마리	도복받고
시아버님	비행서고
오던 길로	호행하니
앞에 모양	부지구나
뒤에 모양	정에구나
어떡어떡	말만 몰아다고
전에 보던	동산 닥쳤구나
아들이나	되었으면
한강물의	

저고기	잡아서
부모님	반찬할 것인데
여자 몸이	되었으니
그리	못하겠네
사촌 형제	다 모이네
날마장	잔치로다
달마장	추지로다
한달은	머리빗고
한달은	잠을 자고
청도입구	밀양박씨
반별도	종거니와
부모도	가지라고
남게도	준수하다
백사도	구비하다

5) 시집살이 노래 ④

성님 성님	사춘성님
시집살이	어쩔디까
고추 당추	맵다해도
시집보듬	더 매울까
시집 삼년	살고 나면
미나리꽃이	다 퍼나네
장다리꽃이	다 퍼나네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일세
성님 성님	사춘성님
시집살이	어쩔디까
시집간 지	사흘만에
부엌문을	열어보니

거미줄이
솔뚜껑을
녹이 하나
아궁지를
각시풀이
물독을
쟁개비가
열두 폭의
햇대 끝에
들며 나며
눈물씻기

가뜩하고
열어보니
가뜩하구
디려다 보니
가뜩하구
디려다 보니
가뜩하구
다홍치마
걸어 놓고
나며 들며
다 씹었네

6) 이별곡

꽃은
가지높아
꺾든지
이름이나
아마도
단장화인가

곶다마는
못꺾겠네
못꺾든지
짓고 갈까
그 꽃이름

7) 상사요

간다 간다
금일이야
간다 간다
금일이야
낭군은
정을 두고
산아 산아

간다더니
나는 간다
간다더니
아조가나
갈지라도
가오
수양산아

놀이 좋다
임 그려
약을 쓴다고
바람불어
비가 온다고
반달같은
홍우산을
인력거
장안사로

백두산아
상사병에
일어나며
누운 나무
일어날까
얼골에
받치고
바람에
돌아든다

〈김형목〉

제 4 장 민 속 어

제 1 절 속 담

1. 의 미

속담(俗談)은 교훈이나 풍자를 위해 어떤 사실을 비유하는 방법으로 서술하는 관용어구(慣用語句)이다. 관용어구는 속담 이외에 금기어·격언·수수께끼·인사말 등이 있다. 이러한 어구는 낱말은 아니지만, 언어의 특별한 사회적·문화적 관념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휘(語彙)에 준한다.

우리 나라 속담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때는 조선 중기부터이다. 즉 『어우야담(於于野談)』과 『동문유해(同文類解)』에서 처음 사용되었지만, 실제로 속담이 사용된 시기는 이보다 훨씬 빠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을 통해 삼국시대에 이미 속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속담의 발생은 특정한 역사적 사례에 대한 묘사로부터 형성되는 경우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된다. 대부분 속담은 일상적인 묘사부터 만들어지지만, 그것도 반복되는 특수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역사적 인물이나 문학작품의 인물,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지역이나 벼슬 등이 속담에 등장하는 이유는 이러한 고유명사가 이미 언어대중에게 어떤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황정승(黃政丞)네 치마 하나 세 모녀가 돌리 입듯”이나 “평양감사(平壤監司)도 제 싫으면 그만” 등은 대표적인 경우이다.

어떤 표현이 하나의 속담으로 정착되는 데는 여러 단계를 반드시 거친다. 우선 개인의 비유 발언에서 속담은 시작된다. 이는 마음 속에 품고 있던 기발한 착상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저 우연한 사건을 묘사·서술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비유의 어구가 새로운 사례에 적용될 때에 이를 이해한 언어대중이 묘사의 적절함과 경이·쾌감 등을 통해 공감을 얻어야만 속담으로 정착될 수 있다. 또한 계속 인용될만큼 사회적인 공감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즉 처음 사용될 때보다 다듬어지고 공감을 느껴 언어대중에 거듭 인용되면, 속담으로서 언어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속담은 5단계를 거쳐 정착한다. 특수 사례의 발생, 사례에 대한 묘사, 묘사가 다듬어지고, 언어대중의 공감과 다시 인용, 어구의 고정과 전파의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속담은 처음에 개인적·특수적인 것에서 출발하지만, 나중에 사회적·일반적인 것으로 귀결됨으로써 언어사회에 진면목을 드러낸다. 이리하여 속담은 정착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변화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변질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속담의 효과는 크게 두가지로 교화(敎化)와 풍자(諷刺)이다. 즉 “등잔 밑이 어둡다”는 의미는 “가까운 데 있는 일을 잘 모른다”거나 “가까운 곳에 진실 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일 반성을 띤다. 이는 속담이 사용되는 현장 상황에 따라 명령·지시·경고를 나타내는 완곡한 표현을 나타낼 수도 있다. 위의 속담도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과 교화의 기능에서 일치를 보게 된다. 하지만 속담이 교화 기능의 방편으로 사용되지 못하면, 야유나 풍자로 탈바꿈한다. “열 두가지 재주에 저녁거리가 없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능력이 반드시 현실적 생활 수단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로 사용된다. 이처럼 속담은 풍자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2. 특성과 기능

속담을 구성하는 어휘나 기본의미는 우리 선조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크게 세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비속성과 일상성이다. 속담의 비속성은 바로 속담의 본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서민들이 지닌 의식의 비속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속담을 한자의 고사성어와 같은 형태로 변조하여 사용하지 한글의 형태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즉 이의봉(李義鳳)의 『동한역어(東韓譯語)』에는 106종류의 속담을 수록하였는데, 이 중 66종류는 한자속어로 기록하였다. 아무리 천박한 표현도 한자로 바꾸면 비속성은 경감하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는 개·똥·물·소·집·말[言]·사람·발·떡 등이다. 이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은 바로 개와 똥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나타내는 낱말의 의미를 범주화면, 가축·자연·주거·인륜·음식·언어·신체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곧 우리 선조들의 가장 관심사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수익성과 편의성이다. 언어대중은 속담이 표현하는 기본의미가 어김없는 보편적 진리를 나타낸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런데 속담은 일상사에서 임기응변으로 말하는 이의 자기합리화를 위해 쓰는 경우가 빈번하다. 두 개의 속담을 대비하면, 서로 상반되는 기본의미 또는

함축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공든 탑이 무너지랴”와 “십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의 속담은 어떤 의미를 추상화시키며, 현장상황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처럼 속담의 의미는 논리적 모순을 부담없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즉 속담은 보편 타당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의 단면을 그때그때 편한대로 노출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셋째, 서민성과 냉소성이다. 속담은 의미상 논리적 모순을 부담없이 나타내는데, 이는 인간 사회에 모순이 상당히 공존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논리적 모순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생활함을 의미하며, 속담은 그러한 인간사회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은 민중이 정치권력에 별로 관심없는 동시에 권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만큼 정치권력에 밀착된 양반에 대해 상당히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기 마련이다. “양반 못된 것이 장에 가 호령한다”거나 “대신댁 송아지 백정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의미는 양반에 대해 냉소적이면서도 관존민비(官尊民卑)를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속담에는 충성이나 민족 등과 같은 개념은 처음부터 반영될 수 없었다.

특히 속담에 반영된 사회관이나 종교관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불교가 융성한 삼국시대~고려시대까지의 속담은 거의 현존하지 않아 전체적인 실상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 불교가 배척을 받으면서 불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즉 “비맞은 중놈”이라거나 “의몽하기는 노전대사라” 등이 대표적인 표현이다. 승려는 야유와 비난의 대상이지, 결코 민중이 이들을 존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식구조는 현대사회에서 “의사와 변호사는 허가낸 도둑놈”이라는 표현으로까지 이어진 사실에서 이해된다. 속담은 건전하고 진취적인 사회관보다는 편의주의적이고 냉소적인 의식과 결부되어 있다. 체면과 실리의 극단을 편의에 따라 왕래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속담을 즐기는 언어대중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인 특성이 민중의 참모습은 아니며, 하나의 경향에 불과할 뿐이다.

3. 내행동의 속담

내행동의 속담을 조사하여 자모 순으로 정리하였다. 이해를 돕고자 『속담사전(종로서적출판사, 1993)』, 최근학 편저, 『한국속담사전(문학출판사, 1991)』과 김도환 편저, 『한국속담활용사전(도서출판 한울, 1993)』 등의 속담사전을 참고로 속담의 뜻을 밝히는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 가게 기둥에 입춘(立春)이라 : 격에 맞지 않는다.
-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 가난한 사람의 구제는 매우 어렵다.
- 가난하면 친척도 멀어진다 : 사람이 가난하면 친한 사람도 그를 멀리한다.
- 가는 말에도 채를 치렀다 : 일이 잘 되더라도 방심하지 않도록 더욱 경계·노력해야 한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이에 응한다.
-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 정을 베풀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 가던 날이 장날이라 :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한다.
-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 몹시 가난하다.
- 가물에 콩 나듯 : 어떤 일이나 물건이 드문드문 있다.
- 가뭄에 비 기다리듯 : 좋은 일이 생기도록 간절히 기다린다.
- 가재는 게 편이다 :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친하게 따르며 어울린다.
- 가진 것이라고는 불알 두 쪽 밖에 없다 : 재산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빈털터리이다.
- 가진 놈이 더 무섭다 : 부자일수록 더 인색하다.
- 간다 간다 하면서 아이 셋 놓고 간다 : 그만둔다고 말로만 하면서 그만두지 못하고 끌어 간다.
- 간에 가 붙고, 쓸개에 가 붙는다 : 지나치게 아부한다.
- 간에 기별도 안 간다 : 성에 차지 않게 너무 적게 먹었다.
- 간이 콩알만 하다 :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아주 놀란다.
- 갈수록 태산이다 : 점점 더 어려운 일을 당한다.
- 강 건너 불 구경하듯 : 자기와는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다.
-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한다 : 과거사의 곤경한 처지를 모르고 현실을 두둔한다.
- 꼬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黃毛)는 못된다 : 타고난 좋지 않은 성질은 언제까지 가도 변하지 않는다.
-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 어떤 것을 좋아하면 다른 것도 그와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
- 개도 기르면, 은혜를 안다 : 남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갚도록 해야 한다.
-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 :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감사해야 한다.
-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 평소에는 흔하고 보잘 것 없지만은 필요할 때는 구하기 힘들다.
- 개똥 밟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 세상사가 괴롭더라도 죽음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
- 개똥참외는 먼저 맑은 이가 임자다 : 소유자가 없는 물건은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가진다.
- 개 밥에 도토리 : 따로 떨어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 개천에서 용난다 : 비천한 집안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태어났다.
- 거지도 쌀밥 먹을 날이 있다 : 못사는 사람도 언젠가 잘살 때가 있다.
- 건기도 전에 날기부터 배운다 :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한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강자끼리 다투는 사이에서 관계도 없는 약자가 피해를 입는다.
- 고목에서 꽃이 필까 : 도저히 실현될 가망이 없다.
- 고양이 쥐 생각한다 : 당치도 않게 남을 위하여 무엇을 생각해주는 척한다.
- 곶은 나무도 뿌리는 구부러졌다 : 겉으로 양전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야심을 품고 있다.
- 곶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 말을 조심해야 한다.
- 공것이라면 양젖물도 들고 마신다 : 공짜는 모두 좋아한다.
- 공든 탑이 무너지랴 : 정성을 기울인 결과는 오래까지 유지된다.
-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 자기보다 유식한 사람 앞에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잘 아는 체한다.
- 과부는 은이 서말이다 : 과부는 살림살이를 알뜰함으로 경제생활을 잘한다.
- 구렁이 담 넘어가듯 : 우물쭈물하는듯 보이지마는 어느 틈에 일을 이루어 놓았다.
- 구멍은 깎을수록 커진다 : 잘못된 것을 수습하면 할수록 더욱 악화된다.
-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 쉬운 일이라도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 국물도 없다 :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
-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재물을 함부로 쓰지 말고 절약해야 한다.
-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본토인을 내 쫓는다.
- 굶기를 밥 먹듯이 : 아주 빈한한 살림살이.
- 굶병이도 똥구는 재주가 있다 : 아무리 미련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한 가지 재주는 있다.
-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 : 기대하지도 않던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수가 있다.
- 귀가 보배다 : 배운 것은 없으나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 많다.
- 귀신도 빌면 듣는다 :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비는 사람은 용서한다.
- 귀신 씨나락 까 먹는 소리 : 남이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중얼거린다.
- 귀신은 뭘 먹고 사나 :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속이 시원할 정도로 미워하는 못된 사람.
- 귀에 못이 박힌다 :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
- 귀엽게 기른 자식이 어미 꾸짖는다 : 자식을 귀엽게만 기르면 버릇이 없어진다.

- 그릇은 돌면 깨지고, 여자는 돌면 버린다 : 여자가 외출을 자주하면 부정한 짓을 하게 된다.
- 그림의 떡이다 : 보기는 하지마는 실상은 아무 소용도 없다.
- 그물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 범망에도 피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 굶어 부스럼 만든다 : 가만히 두었으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것을 공연히 건드려서 탈을 낸다.
- 급하기는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겠다 : 너무 황급한 나머지 엉뚱한 곳에 도움을 요청한다.
- 급히 더운 방이 쉬 식는다 : 일이 너무 빨리 잘되면, 오래 가기가 어렵다.
- 기둥뿌리가 흔들린다 : 집안이나 사업이 한꺼번에 망해간다.
- 긴 병에 효자 없다 : 부모의 오랜 간병은 자식이 효자 노릇하기 힘들다.
- 길고 짧은 것은 대 봐야 안다 : 좋고 나쁜 것은 실제로 경험해 봐야 알게 된다.
- 김 빠진 맥주다 :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 쓸모가 없는 물건이다.
- 김서방이 아픈데, 이서방을 침 준다 : 엉뚱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 기억력이 없어서 잘 잊어버린다.
- 꼬리가 길면 밟힌다 : 옳지 못한 짓을 오래 계속하면 결국은 밝혀지고 만다.
- 꿈보다 해몽이 좋다 : 언짢은 일을 유리하게 둘러대어 말한다.
- 꿩 구워 먹은 소식 : 아주 소식이 없다.
- 꿩 대신 닭 : 자기가 쓰려는 것이 없어서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응한다.
- 날개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 : 나쁜 소문은 빨리 알려진다.
- 날 잡아 잡수 한다 : 어떻게든지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상대방에게 배짱을 부린다.
-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김씨나 이씨 집에 들어간다 : 김씨나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많다.
-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가 난다 : 남에게 악독한 짓을 하면, 반드시 보복이 돌아온다.
- 남의 일이라면 쌍지팡이를 짚고 나선다 :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여한다.
- 남의 제사에 감 놓아라 꽃감 놓아라 한다 :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쓸데없이 간섭한다.
- 남이야 전봇대로 이를 쭈시건 말건 : 너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니 관여할 것이 아니다.
-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 배우지를 못 하여 글을 모른다.
- 낫 도깨비 같다 : 해괴망측한 짓을 한다.
-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 말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 내친 걸음이다 : 이미 시작한 일로서 그만둘 수가 없으니 끝까지 해보겠다.

- 내 코가 석자다 : 근심이 쌓이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 맥이 빠졌다.
- 내 할말 사돈이 한다 : 남을 닮하려고 하는 차에 도리어 그 쪽에서 먼저 자기를 책망한다.
- 냉수 먹고 이 쭈신다 : 실속은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있는 체한다.
-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 : 불행한 기회를 도리어 유리하게 이용한다.
- 노루가 제 방귀에 놀란다 : 자기가 한 대단치 않은 일에 스스로 겁을 먹고 놀란다.
- 노처녀가 시집 가려니 등창이 난다 : 버르던 일을 하려 하니 방해가 끼어 하지 못하게 되었다.
-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 : 결과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살피고 일을 시작한다.
- 누워서 침 뱉기 : 자기가 자기에게 해되는 것을 한다.
- 누이 좋고, 매부 좋고 : 서로가 좋다.
- 눈 가리고 아웅한다 : 얕은 수단으로 남을 속이려고 한다.
- 눈 뜨고 도둑 맞는다 : 변연히 알면서도 손해를 본다.
- 눈 뜨고 코 베어 갈 세상 : 세상의 인심은 사납고 험악하다.
- 눈에 쌍심지가 오른다 : 몹시 성이 난다.
- 눈엣 가시 :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몹시 미워한다.
- 눈 온 뒷날에는 거지가 빨래를 한다 : 눈이 온 뒷날에는 꼭 따뜻하다.
- 눈코 뜰 새 없다 : 너무나 바쁜 처지에 놓여 있다.
- 눈 허리가 시어 못 보겠다 : 하는 짓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니꼽다.
- 뉘 집 개가 짖느냐 한다 :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못들은 척한다.
- 늙으면 아이된다 : 사람은 늙으면 아이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다.
- 늙은 소 콩밭으로 간다 : 늙으면 더 먹고 싶어한다.
- 다 된 죽에 코 떨어졌다 : 다 된 일을 그만 망쳐버렸다.
- 단 맛 쓴 맛 다 보았다 : 세상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 겪어 보았다.
- 달걀로 바위치기다 : 강한 사람에게 무모하게 덤빈다.
-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놓는다 : 잘못된 행위를 감추고 변명한다.
-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 남에게 진 빛이 많다.
- 더부살이가 주인 아가씨 혼수 걱정한다 : 제게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에 주체 넘게 관여한다.
- 더운 밥먹고 식은 말한다 : 쓸데 없는 소리를 한다.
-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 운이 나빠 일이 잘 안되려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 도둑이 제 발 저린다 : 제가 나쁜 짓을 저질러놓고는 안 한 척하면서 숨기려고 한다.
- 도둑질을 해도 손이 맞아야 한다 : 서로 합심하여 일을 해야 한다.
-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 어떤 일의 결과가 기대 이상이다.
- 독안에 든 쥐다 : 빠져나갈 수없는 극단적인 곤경에 빠져 있다.
-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 : 돈만 있으면, 세상 일을 어떻게든지 뜻대로 이룰 수 있다.
- 둘다리도 두들겨보면서 건너라 : 매사를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 돼지 낮찍 보고 잡아 먹나 : 겉 모양에는 관여치 말고 속만 좋으면 그것을 취해야 한다.
- 돼지 목 따는 소리 : 목소리가 듣기 싫게 아주 날카롭다.
- 되 글을 짓고 말글로 써먹는다 : 배운 글은 적으나 그것을 효과적으로 써먹는다.
- 된장에 톳고추 박히듯 : 어느 한 자리에 늘어붙어서 꿈쩍도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
-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 상대가 있어야 일을 이룰 수 있다.
- 둘러치나 매어치나 :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다.
- 둘이서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다 : 맛이 매우 좋다.
- 둘째 며느리 얻어 보아야 큰 며느리 착한 줄 안다 : 비교할 것이 없으면 진가를 알 수가 없다.
- 뒷간 다른 데 없고, 부자 다른 데 없다 : 부자치고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 뒷구멍으로 호박씨 잔다 : 겉으로는 어리석은 채하면서 속심은 엉큼하여 딴 짓을 한다.
- 등잔 밑이 어둡다 : 자기가 잘 알고 있을 법한 가까운 일을 모른다.
- 딸 셋이면 문을 열어놓고 잔다 : 딸을 출가시 과대한 혼비(婚費)로 재산이 얼마 없다.
- 땅 넓은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만 안다 : 키가 매우 크다.
- 땅은 비 온 뒤에 굳어진다 : 고생을 해보면 의지가 굳어진다.
-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 기회를 이용하여 일을 치룬다.
-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 매우 가난하다.
- 똥 누고 밭 안 췌는 것 같다 : 일을 완성하지 못하여 마음이 꺼림칙하다.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 제 허물이 큰 줄 모르고, 남의 작은 허물을 들어 흉 본다.
- 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 상대방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 경우를 모르고 경망하게 덤빈다.

- 뛰는 놈위에 나는 놈이 있다 : 자신보다 월등한 재주를 지닌 자가 항상 주변에 있다.
- 뛰어 봤자 벼룩이다 : 도망쳐 봤자 별 수 없다.
- 말이 씨가 되었다 : 항상 말하던 것이 밀천이 되어 일을 이루게 되었다.
-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 : 아무리 애써 찾아도 없다.
- 매뚜기도 유월이 한 철이다 : 모든 일에는 전성기가 있다.
- 모로 가도 서울에만 가면 된다 :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어떠한 수단도 관계없다.
- 목구멍에 때를 벗긴다 : 맛 있는 음식물을 오래간만에 많이 먹는다.
-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 사람은 굶주리면 마음이 변하여 불가피하게 나쁜 짓을 하게 된다.
-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빨난다 : 되먹지 못한 사람이 건방지고 좋지 못한 짓을 한다.
- 못 먹는 감 찢러나 본다 : 자기에게는 이득이 없는 일에 심술을 부려 방해한다.
- 문둥이 콧구멍에 박힌 마늘씨도 파 먹겠다 :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이다.
- 물에 빠지면 짚이라도 잡는다 : 사람이 곤경에 처하면 조금만 도움도 필요하다.
- 물이 얕으면 돌이 보인다 : 경솔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속을 드러낸다.
- 밀이 구리다 : 숨기고 있는 범죄나 비행때문에 기가 죽어서 떳떳하지 못하다.
-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 서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 다니는 등 아주 밀접한 사이이다.
-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 처음에는 하찮은 것을 훔치다가 나중에는 큰 도둑질을 한다.
- 바늘 방석에 앉은 것 같다 : 자리에 그대로 있기가 몹시 불안하다.
- 발등에 불 붙었다 : 당한 일이 매우 다급하다.
- 밤 새도록 울다가 누가 녹었느냐고 한다 :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
- 밥 빌어다 죽을 쑤어 먹을 놈 : 성질이 느리고 게으르며 하는 짓이 어리석다.
- 밥 숟가락 놓았다 : 운명하였다.
- 방귀 똥 놈이 성낸다 : 제가 잘못하여 놓고는 도리어 큰소리를 친다.
- 배먹고, 이뉘는다 : 한 가지 물건을 이용하여 두 가지 이득을 본다.
-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 본체보다 거기에 딸린 것이 더 크다.
- 뱀새가 황새 걸음을 걸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날뛰면 망신을 당한다.
- 버스는 떠났다 : 이미 기회를 놓쳐버렸다.
- 번갯불에 콩 볶아 먹겠다 : 성미가 급하여 무엇이든지 당장에 처리해 버린다.
- 범 굴에 들어가야 범을 잡는다 : 발 벗고 나서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 병어리 냉가슴 앓듯 : 남에게 말 못할 사정때문에 마음 속으로 답답하게 애태운다.

- 병어리도 아이 어머니가 되면 말을 한다 : 어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노고를 많이 한다.
-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 : 극히 적은 이익을 위해 부당한 수단을 써 남의 것을 착취한다.
- 병신 육갑한다 : 못난 자가 더욱 더 미운 짓만 한다.
- 봉사 문고리 잡기 : 개간도 없고 솜씨도 없는 자가 우연히 일을 잘 하였다.
-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 : 부부는 싸움을 하더라도 곧 화합하게 된다.
- 부잣집 만며느리감이다 : 여자 얼굴이 복스럽고 원만하게 생겼다.
- 부처님 가운데 토막 : 성질이 온순하고 마음이 어질다.
- 북과 아이는 칠수록 큰 소리만 난다 : 부모는 아이를 잘 타일러야 한다.
- 불알 두쪽 밖에는 없다 : 재물이 전혀 없다.
- 비가 와도 양반 걸음이다 : 바쁜 일이 있어도 게으름을 부려 서두르지 않는다.
- 빈 외양간에 황소 들었다 :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알뜰하게 벌어 잘 산다.
- 빛 좋은 개살구 : 겉모양은 좋으나 실속이 없다.
- 사내가 부엌일을 하면 불알이 떨어진다 : 남자는 여자가 하는 일을 하면 성미가 여자같이 된다.
- 사돈네 남의 말한다 : 제 일은 젓혀놓고 남의 일에 참여하여 간섭한다.
- 사위는 백년 손이다 : 사위가 오면 처가집에서는 그를 귀한 손님처럼 극진히 대우한다.
- 사족을 못 쓴다 : 무엇에 반하거나 혹하여 꿈쩍을 못한다.
-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 남이 잘된 것을 보고 시기한다.
-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 : 경우에 잘 맞아야 일을 이룰 수 있다.
- 산전수전 다 겪었다 :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겪어서 무슨 일이나 노련하다.
- 살얼음을 밟는 것 같다 : 위태위태하여 마음이 대단히 불안하다.
- 서당개 삼년에 풍월을 한다 :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과 지내면 지식을 높일 수 있다.
-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다 : 잘 알지도 못하고 막연한 것을 무턱대고 찾아 다닌다.
-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 능하지도 못한 자가 아는 체하여 남에게 실수를 하게끔 한다.
- 설마가 사람 죽인다 : 사람은 그럴리야 없겠지 속으로 믿고 있다가 크게 낭패를 당한다.
- 성급한 놈 술값 먼저 낸다 : 성미가 급한 사람은 손해될 짓까지 한다.
- 세살 난 아이 물가에 둔 것 같다 :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는지 마음을 줄이고 불안하다.
-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 어릴 때 몸에 젖은 버릇은 늙도록 고치기 힘들다.
- 세월이 약이다 : 세월이 지나면 괴로운 것이 다 잊혀진다.
- 소금 먹은 놈이 물을 권다 : 어떤 사상의 배후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 소나기 맞은 생쥐 같다 : 모습이 몹시 흉하다.
- 소리 없는 방귀가 더 구리다 : 말 없는 사람이 더 무섭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평소에 손을 쓰지 않고 있다가 손해를 보거나 실패한 뒤에 대비한다.
- 소태 씹는 맛이다 : 입맛이 없다.
- 손도 안대고 코 풀려고 한다 : 노력도 없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당긴다 : 지나친 보호는 버릇없는 아이를 만든다.
- 송곳 하나 꽃을 땅도 없다 : 빈 틈이라고는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가득히 모여 있다.
-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 자기의 분수에 넘치거나 힘에 겨운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쇠 귀에 경 읽기 : 사람이 둔하여 가르치고 설명해도 알아 듣지를 못한다.
- 쇠뿔도 단김에 빼라 : 일은 기회가 적절한 때에 당장 해치운다.
- 수박 겉 핥기 : 무슨 일을 하면서도 참뜻이나 내용을 모른다.
-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샌님 :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시거든 뚝지나 말고, 엮거든 검지나 말지 : 사람이 쓸모가 없고 변변치 못하고 어리석다.
- 시어미 죽고 처음이다 : 오랜만에 흡족하고 시원하다.
- 시장이 반찬 : 굶주린 사람은 무엇이나 맛있게 먹는다.
- 시집 간 딸년치고 도둑 아닌 년 없다 : 시집 간 딸은 친정에 와서 무엇을 가지고 간다.
- 식은 죽 먹기 : 일하기가 아주 쉽다.
-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썬 줄 모른다 :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다.
- 십년 공부 나미아미타불 : 오랫동안 애써 한 일이 허사로 돌아갔다.
-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 십년 동안에 만상은 변하지 않는 것없이 다 변한다.
- 싸라기 밥을 먹었나 : 기분 나쁘게 자기에게 반말을 쓴다.
- 싹수가 노랗다 : 일이 시초부터 어긋나 이루어질 가망이 없다.
- 싹 것이 비지떡 : 값싼 물건치고 품질이 좋은 것은 없다.
- 쑥밭이 되었다 : 집이 없어지고 빈 터만 남았다.
- 씨 도둑은 못한다 : 유전의 법칙은 어길 수 없다.
- 아내가 귀여우면, 처가집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 :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가의 모든 것이 긍정적이다..
- 아는 길도 물어 가라 : 쉬운 일에도 조심하여 물어서 틀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아닌 밤중에 홍두깨 : 전혀 관계가 없는 탄소리를 불쑥 내놓는다.

- 아들 못난 것은 제집 망치고, 딸 못난 것은 양사돈 망친다 : 여자는 품행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
- 아들 밥은 앉아 먹고 딸의 밥은 서서 먹고 남편 밥은 누워 먹는다 :
- 아이 자라 어른 된다 : 부모는 어린이를 심하게 구박하지 말아야 한다.
-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 운수가 사나우면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낭패를 본다.
-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 :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 돈을 꾸어 주고 그것을 다시 받기는 매우 어렵다.
-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겠다 : 사람이 너무나 까다롭고 냉정하다.
- 알아야 면장을 한다 : 남의 뒷자리에 서려면 알아야 한다.
- 앓던 이 빠진 것 같다 :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져서 기쁘고 속이 시원하다
- 어깨 넘어 글 : 정식으로 배우지 못하고 자주 들어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 어느 장단에 춤추랴 : 다급한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어쩔 줄을 모른다.
- 어린애 보는 데는 찬물도 못 마신다 : 어린이는 어른이 하는 것을 쉽게 배운다.
- 어물전 망신은 꿀뚜기가 시킨다 : 못난이가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망신시킨다.
- 얼굴에 똥칠한다 : 남에게 불명예가 되는 짓을 한다.
- 엎어지면 코 닿을 데 : 거리가 아주 가깝다.
- 여드레 삶은 호박에 이 안들 소리 :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 : 사람의 마음을 알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열 두 효자가 악처 하나만 못하다 : 자녀들보다 부인이 남편에게 잘한다.
- 열 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 : 반복을 계속하면, 일을 뜻대로 이룰 수가 있다.
-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못 막는다 : 아무리 엄중한 경계도 허점이 있다.
- 열 손가락에 어느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을까 : 모든 자식은 다 사랑스럽고 귀엽다.
- 오늘월 감기는 개도 아니 앓는다 : 여름에 앓는 감기는 매우 지독하다.
- 오늘월 쇠 불알 늘어지듯 : 행동이 몹시 느리고 더디다.
- 오늘월 하루 별도 무섭다 : 단시일 동안에 생기는 차이가 현저하게 다르다.
- 오장이 뒤집힌다 : 마음이 몹시 상하여 견잡을 수 없다.
- 오지랖이 넓다 : 사람의 교제 범위가 매우 넓다. 주제 넘게 아무 일이나 관여한다.
- 옥에 티다 : 나무랄 데 없는 것에 한 가지 흠이 있다.

- 옷이 날개다 : 못난 사람도 옷을 잘 입으면 잘나 보인다.
- 요지경 속이다 : 속 내용이 아주 복잡하고 기괴하다.
- 용꿈 꾸었다 : 매우 좋은 수가 생겼다.
- 우물 안의 개구리 : 일 부분만을 알고 넓은 세상의 형편을 모른다.
- 울지 않는 아이 젖 줄까 : 가만히 있지 않고 간청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기 마련이다.
-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 공교롭게도 원한을 맺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 아무리 능숙한 사람도 실수를 한다.
-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 인생사에는 행복과 불행이 수반된다.
- 이마를 맞댄다 : 이마를 맞댈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다.
- 이마를 찢러도 피 한 방울 안나겠다 : 남에게 너무나 인색하다.
- 이마뺨에 피도 안 말랐다 : 하는 짓이 유치하고 어리석다.
- 입술에 침이나 바르지 : 거짓말을 천연스럽게 잘도 한다.
- 입에서 신물이 난다 : 두 번 다시 대하기 싫을 만큼 지긋지긋하다.
- 입은 거지는 얻어 먹어도, 벼는 거지는 못 얻어 먹는다 : 옷 차림새를 깨끗이 해야 한다.
- 입은 비뚜러져도, 말은 바로 하라 :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 입춘을 거꾸로 붙였다 : 추위가 풀려야 할 계절에 날씨가 거꾸로 더 추워진다.
- 자식은 품안에 둘 때 자식이다 :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
- 자식 자랑과 남편 자랑은 팔불출의 하나 : 가족에 대한 자랑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작게 먹고 가는 똥 누지 : 제 힘에 맞도록 분수를 지켜,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작년 추석에 먹은 송편이 나온다 : 거만한 행동을 보니 속이 뒤집힐 정도로 아니꼽다.
- 작은 고추가 더 맵다 :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도리어 단단하고 재주가 더 뛰어나다.
- 작은 복은 제게 달렸고, 큰 복은 하늘에 달렸다 : 큰 성공은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때를 잘 만나야 이루어진다.
- 잔칫날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다 : 기다리고 버르던 일이 빗나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있다.
- 잘 짓는 개 물지 않는다 : 말이 많거나 경솔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지게 지고 방으로 들어간다 : 추어주니까 신이 나서 괴상한 짓까지 한다.

- 저녁 굶은 시어미 상이다 : 못 마땅하여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다.
-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산다 : 젊어서 시련은 성공의 원천이 된다.
- 접시 물에 빠져 죽지 : 갑작은 분격하고 있다.
- 젓 먹던 힘까지 다 든다 : 몹시 힘드는 일을 한다.
- 하던 지랄도 명석 퍼 놓으면 안한다 : 분위기에 맞지 않는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철없이 강한 사람에게 덤빈다.
-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 : 한 가지의 일을 보면 다른 모든 행동도 알 수 있다.
-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 말을 듣고는 곧 잊어버린다.
- 한 남자가 열 계집마다 앓는다 : 남자는 여자를 좋아한다.
- 한 치 앞을 못본다 :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른다.
-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 너무나도 뜻밖의 좋은 일을 하였다.
-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 : 실없이 비실비실 웃는다.
- 현 짚신도 짝이 있다 : 사람은 서로 어울리는 대상이 반드시 있다.
- 헤엄 잘 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말 잘타는 사람은 말에서 떨어져 죽는다 : 자신의 재주만 믿고 만용을 부려면, 자기 피해 당한다.
-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 사람은 일생동안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
- 호랑이 담배 먹을 적 : 아주 옛날의 일이다.
- 호박 덩굴 뻗듯 한다 : 세력이 급속히 퍼진다.
- 호박이 넝쿨 채로 굴러 떨어졌다 : 아주 좋은 운수가 닳쳤다.
- 화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 말을 조심해야 한다.
- 화김에 서방질한다 : 사람은 분에 못 이기면 분풀이로 이성을 잃고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 물욕이 심하면 천한 사람이 되니, 물욕을 너무 내지 말라.
- 황소 뒷걸음질에 쥐 잡기 : 요행으로 뜻밖에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 사람은 활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지므로 활동을 해야 한다.

제 2 절 수수께끼

1. 특 징

수수께끼는 구비문학의 한 장르로 은유를 써서 대상을 정의하는 언어 표현이다. 이는 기억하기 간단하고, 전달과 보급이 쉬울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기능적 필요성에서 생겨난 인간적 언술(言述)의 근원 형태이다. 표준어인 수수께끼의 방언은 50여 종 이상이나 된다. 즉 수수께끼·쉬수께끼·수수적기·수수잡기·수지기·걸룩락 등이며, 한자는 미(謎)·미어(謎語)·미설어(謎說語)라고 한다.

수수께끼의 특징은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구연(口演)에서 화자(話者)와 청자(聽者)가 함께 참여한다. 즉 다른 구비문학 장르가 일방적인 전달을 하는데 비하여, 화자와 청자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수수께끼 구성은 설문과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설문은 개념을 정의하는 부분으로 대체로 의문형의 문장을 취하지만, 상황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응답은 주제로 대개 하나의 단어이다. 설문 내용은 주제의 형태·기능·행동 등에 관한 부분이다. 둘째, 묘사가 극히 단순·간명하다. 구비문학 장르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는 속담과 수수께끼이다. 이야기 형태를 가진 서사문학 장르는 화자의 임의로 첨가·부연됨에 비하여 수수께끼는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다. 셋째, 은유적인 표현이다. 수수께끼는 어떤 사물에 대해 직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한다. 속담도 은유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수수께끼와 일치하지만, 목적은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즉 속담은 특수한 것을 일반화하는 반면에 수수께끼는 일반적인 것을 특수화한다. 넷째, 고의적인 오도성(誤導性)을 지닌 점이다. 수수께끼는 어떤 사물의 의미를 감추어 결과를 청자의 지적 상상력을 계발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애매한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암시될 만한 점은 슬쩍 피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칫하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 마련이다.

우리 나라 최초의 수수께끼집은 1925년 조선총독부에서 조선민속자료집으로 발간한 『조선의 미(朝鮮謎)』이다. 이 책에는 888종의 자료가 수록되었다. 이는 최초의 수수께끼집이라는 점 이외에도 체계적인 수수께끼를 분류를 시도한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후 민속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많은 수수께끼집이 출간되는 등 민중생활사의 이면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수수께끼 분류는 문항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늉에 관한 것으로 외형묘사·동작묘사·성질묘사 등이 있다. 둘째, 소리에 관한 구분이다. 셋째, 슬기[智]에 관한 것으로 방법·이유·선택·추수·숫자 등을 묻는다.

수수께끼의 표현은 주로 은유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를 이용한 말재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수사학상 대조·열거·생략·은유·점층·중의(重義) 등 여섯가지로 구분된다. 한가지 기교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고, 몇 개를 동시에 혼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표현상으로 문장이 비합리적·비상적으로 서술된다. 그러므로 상식적인 것은 수수께끼가 되지 못한다. 설령 이것이 수수께끼로 된다고하더라도 훌륭한 것은 못된다. 더욱이 여러 개의 답이 가능한 수수께끼는 그만큼 좋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물에 대해 하나의 수수께끼만이 성립하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물에 대한 은유는 여러 가지로 존재할 수 있고, 이는 각각 수수께끼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한 내행동의 수수께끼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자모순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수수께끼는 내행동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 일대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2. 내행동의 수수께끼

- 가죽 속에 털이 난 것은? 「옥수수」
- 가지는 가지인데 못 먹는 가지는? 「한가지」
- 갈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섬은? 「보물섬」
- 갈비집에서 뼈다귀에 붙은 살을 뜯으며 하는 말은? 「살맛난다」
- 감은 감인데 못 먹는 감은? 「영감」
- 갯은 갯인데 먹지 못하는 갯은? 「샷갯」
- 갯은 갯인데 쓰지 못하는 갯은? 「쑥갯」
-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못 짚는 강아지는? 「땅강아지」
- 강은 강인데 못 건너는 강은? 「요강」
- 강은 강인데 배가 뜨지 못하는 강은? 「요강」
- 강 한가운데에 떠 있는 둥근 은쟁반은? 「강에 비친 달 그림자」
- 개는 개인데 짚지 못하는 개는? 「산고개」
- 개 중에서 가장 큰 개는? 「안개」

- 객이 들어가서 주인을 내쫓는 것은? 「열쇠」
- 거꾸로 매달린 집에 많은 문이 달린것은? 「별집」
- 거꾸로 보면 3분의 1 손해보는 숫자는? 「9」
- 걸어가면서 도장찍는 것은? 「지팡이」
- 검은 개가 백사장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검은 똥을 누는 것은? 「뱃」
- 계급이 가장 높은 병균은? 「대장균」
- 공기는 공기인데 들이마실 수 없는 공기는? 「밥공기」
- 공은 공인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은? 「성공」
- 구리는 구리인데 사용하지 못하는 구리는? 「멍텅구리」
- 귀는 귀인데 못 듣는 귀는? 「빠다귀」
- 그네를 쉬지 않고 뛰는 것은? 「시계추」
- 금은 금인데 먹는 금은? 「소금」
- 기다란 외나무 끝에 갈대밭이 있는 것은? 「치솔」
- 기둥 하나, 가지가 열 둘, 잎이 삼백육십오개인 것은? 「1년」
- 깎으면 깎을수록 길어지는 것은? 「연필심」
- 깎으면 깎을수록 커지는 것은? 「구멍」
- 껌껌할 수록 잘 보이는 것은? 「영화」
- 나갈 때는 훌쩍이, 들어올 때는 배불뚝이 인것은? 「쌀자루」
- 나오자마자 어머니 뺨을 때리는 것은? 「성냥」
- 날개가 없어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연기」
- 날씨가 더우면 크고, 추우면 작아지는 것은? 「온도계」
- 날아다니는 개는? 「술개」
- 남의 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안과의사」
- 낮에는 바위였다가 밤에는 마당이 되는 것은? 「이불」
- 낮에도 밤이라 하는 것은? 「밤(栗)」
- 내 것인데 남이 더 많이 쓰는 것은? 「이름」
-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 지는 것은? 「웁크」
- 늘 둥근데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것은? 「해」
- 다켰어도 자라라고 하는 것은? 「자라(鰲)」
- 닦으면 닦을수록 더러워지는 것은? 「걸레」

- 더울 때는 일하고 추울 때는 잠자는 것은? 「부채」
- 더울 수록 작아지는 것은? 「얼음」
- 돈은 돈인데 쓰지 못하는 돈은? 「사돈」
- 따뜻할 땐 안보이고, 추울때는 보이는 것은? 「입김」
- 때려야 사는 것은? 「팽이」
- 때리면 때릴수록 깊이 들어 가는 것은? 「못」
-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커지는 것은? 「북소리」
- 때리면 먹기 좋아지는 것은? 「북어」
- 떡은 떡인데 못 먹는 떡은? 「그림의 떡」
- 떡은 떡인데 빨리 먹을 수 있는 떡은? 「헐레벌떡」
- 뜨개질을 해야 먹고 사는 동물은? 「거미」
- 마셔도 마셔도 배 부르지 않는 것은? 「공기」
- 많이 먹으면 배부르지 않고 화만 나는 것은? 「욕」
- 말은 말인데 타지 못하는 말은? 「거짓말」
- 맛보고 떨어지는 것은? 「밀싹개」
- 맞고오면 엄마가 좋아하는 것은? 「백점」
- 머리 가운데 흑이 난 것은? 「술뚜경」
- 머리가 잘못된 걸 콩지가 고쳐주는 것은? 「지우개 달린 연필」
- 머리로 먹고 입으로 나오는 것은? 「주전자」
- 머리를 얻어 맞아야 들어가는 것은? 「못」
- 머리를 풀고 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김장배추」
- 머리를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연기」
- 먹지도 못하고 입만 그슬리는 것은? 「부지쟁이」
- 먹지도 쉬지조 앓으면서 앞으로만 가는 것은? 「세월」
- 먹지 않아도 맛이 단 것은? 「단잠」
-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은? 「항아리」
- 먹지 않으면 볼수 없는 것은? 「음식맛」
- 먼 산 밑에 바가지 얹어 놓은 것은? 「무덤」
- 먼 산 보고 절하는 것은? 「디딜방아」
- 먼 산을 보며 부채질 하는 것은? 「키」

- 멀어질 수록 힘이 강해지는 것은? 「고무줄」
- 몸에 항상 가지고 있는 반찬그릇은? 「장단지」
- 못 사온다 하면서 사오는 것은? 「못」
- 무거울수록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저울추」
- 묵은 묵인데 먹지 못하는 묵은? 「아랫묵」
- 문은 문인데 떠돌아다니는 문은? 「소문」
- 물에서 태어났으면서 물에 들어가면 죽는 것은? 「소금」
- 물은 물인데 무서운 물은? 「괴물」
- 밑에서 먹고 밑으로 내놓는 것은? 「만년필」
- 바다와 물 사이에 있는 것은? 「와」
- 바람은 바람인데 부는 바람이 아닌 것은? 「신바람」
- 박은 박인데 쓸모없는 박은? 「우박」
- 발이 두개 달린 소는? 「이발소」
- 밟을수록 달아나는 것은? 「자전거」
- 밤낮없이 남의 말만 전하는 것은? 「전화」
- 밤에 들어가면 검고, 아침에 나오면 하얀 것은? 「연탄」
- 밥은 밥인데 못 먹는 밥은? 「툽밥」
- 병은 병인데 안 아픈 병은? 「물병」
- 비가 와도 젖지 않는 것은? 「연기」
- 빈손으로 갔다가 들고 오는 것은? 「두레박」
- 빨간 모자 쓰고 눈물 흘리는 것은? 「춧불」
- 빨간 얼굴에 검은 깨가 있는 것은? 「딸기」
- 뼈속에 살이 든 것은? 「호두」
-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성귀는? 「에베소서」
- 상은 상인데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은? 「상상」
- 새긴 새인데 제일 빠른 새는? 「눈 깜짝할 새」
- 새끼는 가는데 아비는 못 가는 것은? 「활과 화살」
- 새 옷을 입어도 검고 헌 옷을 입어도 검은 것은? 「그림자」
- 새 옷을 입으면 매맞는 것은? 「다듬잇돌」
- 서서먹고 누워서 토하는 것은? 「병」

- 성공하면 죽고, 실패하면 사는 것은? 「자살」
- 세 살때 나서 열 다섯 살까지 자라서 서른 살에 죽는 것은? 「달」
- 세상사람들이 동시에 먹고 있는 것은? 「나이」
- 세상에 날 때부터 늙은이는? 「할미꽃」
-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눈꺼풀」
- 소는 소인데 뿔없는 소는? 「미소」
- 속으로 살찌는 것은? 「게」
- 술과 술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은? 「입술」
- 술은 술인데 못 마시는 술은? 「마술」
- 슬픔을 모두 받아주는 것은? 「손수건」
- 신경통 환자가 싫어하는 악기는? 「비올라」
- 심지 못하는 씨는? 「아저씨」
- 씨는 씨인데 심어도 안 나는 것은? 「숨씨」
-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은? 「방학동」
- 아침마다 절 받는 것은? 「세숫대야」
- 아침에는 네발, 점심에는 두발, 저녁엔 세발인 것은? 「사람」
- 안으로 들어갈 때는 1개인데, 나올때는 2개인 것은? 「바지」
- 앉으면 높고, 서면 낮아지는 것은? 「천장」
- 알은 알인데 날아가는 알은? 「총알」
- 암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먹으면 죽는 것은? 「나이」
- 약삭 빠른 사람들이 사는 술은? 「처세술」
- 양파를 계속 까면 나오는 것은? 「눈물」
- 양품점 점원 아가씨와 총각 손님 사이에 오고가는 정은? 「홍정」
- 어느 계절이나 피는 꽃은? 「웃음꽃」
- 어려서는 회고, 커서는 푸르고, 늙어서는 붉은 것은? 「고추」
- 오른쪽으로 갈 수록 높아지는 것은? 「피아노」
- 오리의 방석은? 「물」
- 오이의 나이는? 「10살」
- 왼쪽으로 갈 수록 높아지는 것은? 「주판」
- 울어도 눈물이 안 나오는 것은? 「금붕어」

- 울통 쑥 뽕죽 그 밑에 낭떨어지 인것은? 「얼굴」
- 위로 먹고 아래로 토하는 것은? 「우체통」
- 위로 먹고 옆구리로 내는 것은? 「뱃돌」
- 위 아래로만 움직이는 것은? 「엘리베이터」
- 일 할때 모자를 벗고, 쉴때 모자를 쓰는 것은? 「만년필」
- 입으로 먹고 등으로 나오는 것은? 「대패」
- 자리는 자리인데 깔지 못하는 것은? 「꿈자리」
- 잘못했을 때 권하는 과일은? 「사과」
- 잡아잡이면 죽고 뛰면 흔들리는 것은? 「벡타이」
- 장남도 볼 수 있는 것은? 「꿈」
- 장인 장인테 못 먹는 장은? 「송장」
- 저녁에만 피는 꽃은? 「별」
- 저승은 어떤 곳인가? 「좋은곳」
- 적에게 쫓무니를 보여야 이기는 것은? 「달리기」
- 젊어서는 약하고 늙을수록 튼튼해지는 것은? 「대나무」
- 젊어서는 은돈, 늙어서는 금돈인 것은? 「고추」
- 제비죽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주머니」
- 조개는 조개인데 못 먹는 조개는? 「보조개」
- 종이밥 먹고 종이똥 누는 것은? 「우체통」
- 죄도 없이 밤낮 발로 채이는 것은? 「축구공」
- 주고도 가지고 있는 것은? 「지식」
- 주름에서 음악이 나오는 것은? 「레코드 판」
- 죽도록 매맞고 줄에 매달려 춤추는 것은? 「빨래」
- 죽은 나무가 걷는 것은? 「목발」
- 책은 책인데 읽지 못하는 책은? 「주책」
- 최초의 다이빙 선수는? 「심청이」
- 침은 침인데 놓지 않는 침은? 「목침」
- 칼은 칼인데 자르지 못하는 칼은? 「머리칼」
- 커질수록 값이 싸지는 것은? 「물건의 흠집」
- 코는 코인데 제일 큰 코는? 「멕시코」

- 콩은 콩인데 먹지 못하는 콩은? 「베트콩」
- 키스를 거꾸로하면 스키, 스키를 거꾸로하면? 「넘어진다」
- 피도 뼈도 살도 없는 손은? 「장갑」
- 하늘보고 송곳질 하는 것은? 「절구」
- 하늘에 머리 풀고 올라가는 것은? 「연기」
- 하루 종일 걸어도 오리 밖에 가지 못하는 것은? 「오리」
- 학은 왜 한쪽발을 들고 서나? 「두발 다들면 넘어지니까」
- 한 달에 두 번 병신되는 것은? 「달」
- 한 독에 두가지 장 담근 것은? 「달걀」
-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세월」
- 한 자 반이 되는 콩은? 「콩자반」
- 허수아비 아들 이름은? 「허수」
- 헌병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옛장수」
- 희어도 검고 검어도 검은 것은? 「그림자」

제 3 절 금기어와 길조어

1. 개 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공포(恐怖)와 흉조(凶兆)를 연상케 하는 행동에 대해 금기시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을 금기어(禁忌語)라 한다. 반면 길조어(吉兆語)는 금기어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좋은 현상의 조짐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만큼 금기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거망동하는 행동에 제재를 가하는 교훈적인 특성을 지닌다. 길조어 우리의 생활사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내행동의 금기어·길조어를 조사하여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였다.

2. 금기어

- 가물 때 어린애가 입술로 투레질 하면 비가 온다.
- 간장 맛이 변하면 집안이 망한다.
- 갓 이사와서 팔죽을 쑤어 먹으면 부자가 된다.
- 개가 풀을 뜯어 먹으면 그 해에 가뭄이 든다.
- 개 꼬리에 짚이 붙어들어 오면 손님이 온다.
- 개미가 개미집 구멍을 막으면 장마비가 온다.
- 객사한 시체는 방에 들여 놓지 않는다.
- 거울을 깨뜨리면 집안에 화를 당한다.
- 고기의 눈알을 먹으면 효성이 없어진다.
- 고양이가 사람의 관을 넘으면 관이 일어난다.
- 고양이가 얼굴을 씻으면 비가 온다.
- 고양이를 죽이면 고양이가 원수를 갚는다.
- 국그릇을 밥의 왼쪽에 놓고 식사하면 복이 나간다.
- 국물을 먹다 남기면 복이 나간다.
- 국수를 잘 먹으면 오래산다.
- 굴뚝이 무너지면 재수가 없다.
- 귀가 길면 오래산다.
- 귀문이 좁으면 부자가 된다.
- 길 떠날때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
- 길에서 담뱃대나 머리빗을 주으면 재수가 없다.
- 길에서 칼을 주어오면 동티난다.
- 까마귀가 많이 울면 마을에 초상이 난다.
-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기억력이 없어진다.
- 나비를 잡고 눈을 비비면 장님이 된다.
- 남을 비웃으면 입이 삐뚤어 진다.
- 남의 귀를 휘벼주면 재수가 없다.
- 남의 몸을 함부로 넘어가면 재수가 없다.
- 남의 집에서 손톱을 깎으면 그 집과 사이가 멀어진다.

- 남자가 밥상의 모서리에 앉으면 모난소리 듣는다.
- 눈에 거머리가 많으면 벼가 잘된다.
- 누워서 밥을 먹으면 소가 된다.
- 누워서 벽에다 발을 올려놓고 자면 집안이 망한다.
- 늦잠이 많으면 가난해 진다.
- 다리를 뺏고 밥을 먹으면 가난하게 산다.
- 다리미질 할 때 웃고름부터 다리면 빌어 먹는다.
- 닭이 지붕위에 올라가면 비가 오지 않는다.
- 대나무 꽃이 피면 나라가 망한다.
- 대나무로 사람을 때리면 몸이 마른다.
- 돌 때 떡을 해주지 않으면 잘 넘어진다.
- 뜨거운 것을 잘 먹으면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된다.
- 마르지 않은 옷을 입으면 옷을 못얻어 입는다.
- 마른때를 벗기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말 며느리가 외출이 잦으면 집안이 망한다.
- 말이 많은 여자의 집에는 장맛도 쓰게 변하다.
- 문지방에 밥 사발을 올려놓고 먹으면 귀머거리가 된다.
- 문지방을 타고 앉아 밥을 먹으면 빌어 먹는다.
- 물건을 주었다 뺏으면 항문에 종기난다.
- 밤에 방망이질 하면 우환이 든다.
- 밤 이슬을 맞고 자면 입이 돌아간다.
- 밥그릇에 손을 받치고 먹으면 가난해 진다.
- 밥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밥을 먹으면 여러번 이사한다.
- 밥 먹고 나서 곧 그 자리에 누우면 죽어서 소가 된다.
- 밥 먹고 물 마시지 않으면 가난하게 산다.
- 밥 먹을 때 턱을 괴고 먹으면 복이 나간다.
- 밥 비벼먹은 그릇에 물을 부어 마시면 체증이 없어진다.
- 밥상 앞에서 울면 부모가 돌아가신다.
- 밥상위에 칼을 올려 놓으면 부부싸움 한다.
- 방에서 휘파람을 불면 뱀이 들어온다.

- 뱀을 죽이다 말면 그 뱀이 살아서 원수 갚으러 온다.
- 뱀이 길가는 사람의 앞길을 질러가면 재수없다.
- 뱀이 집에서 나오면 초상난다.
- 버선을 뒤집어 신으면 재수없다.
- 벼개를 높게 베고자면 쉬 죽는다.
- 벽에다 바늘을 꽂아 놓으면 남편이 마른다.
- 벽에다 손그림자 비추면 도둑이 든다.
- 복숭아 벌레 먹으면 예뻐진다.
- 봄에 흰나비를 먼저보면 상복을 입게 된다.
- 부엉이가 많이 울면 동네에 초상난다.
- 부엌 바닥에 침을 뱉으면 죄가 된다.
- 부정한 사람은 산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 불 장난하면 밤에 오줌싼다.
- 삭망지낸 밤을 먹으면 무서움을 안탄다.
- 산후 7일동안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 산후 삼칠일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부정킨다.
- 상주가 새 옷을 입으면 부모님의 저승길이 어둡다.
- 상중에 빨래를 하면 병이 난다.
- 솔뚜껑 위에 바가지 얹어놓으면 도둑이 든다.
- 수의를 만들 때는 실을 매듭짓지 않는다.
- 시아버지 앞에서 아이에게 젓을 먹이면 나쁘다.
- 시집가서 바로 사발을 깨면 계속 깨게 된다.
- 시집가서 바로 큰 그릇을 깨면 재앙이 생긴다.
- 시체가 든 관위에 칼을 넘기면 시체가 일어선다.
- 식사를 하다가 변소에 가면 복이 달아난다.
- 식사를 하면서 이를 보이면 가난하게 산다.
- 식사중에 입안의 음식이 보이면 복이 나간다.
- 식사 후에 수저를 가만히 놓지않고 던지면 복 나간다.
- 신발을 거꾸로 신으면 복이 나간다.
- 신발을 잃어 버리면 재수가 없다.

- 신부의 꽃다발을 비 맞게 하면 좋지 않다.
- 쌀 뒤주 밑바닥을 너무 닥닥 긁으면 가난하게 산다.
- 쌍동밤을 나누어 먹지 않으면 쌍둥이를 낳는다.
- 아궁이에 소변보면 불행해진다.
- 아랫목에다 머리를 두고 자면 해롭다.
- 아버지를 너무 따르는 아이는 수명이 짧다.
- 아이 뺨 여자가 절구통에 앉으면 쎄보 난다.
- 아침에 엎드려 자면 복이 나간다.
- 아침에 여자가 큰 소리 치면 재수가 없다.
-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 어린아이가 지렁이에다 소변을 자지가 붙는다.
- 여자가 남자를 앞질러 지나가면 재수가 없다.
- 여자가 남자의 허리를 넘으면 그 남자가 허리를 앓는다.
- 여자가 다듬잇돌 위에 앉으면 소박 맞는다.
- 여자가 문지방을 베고 자면 평생 집을 사지 못한다.
- 여자가 비를 깔고 앉으면 도깨비가 생긴다.
- 여자가 시기심이 많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
- 여자가 임신중에 화로를 타 넘으면 불효자식을 낳는다.
- 여자가 치마를 태우면 부모와 이별한다.
- 여자가 휘파람 불면 팔자가 세다.
- 여자의 소리가 집밖으로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
- 여자의 속옷을 울타리에 널면 복이 나간다.
- 염할 때 시체위로 칼을 넘기면 살인하게 된다.
-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
- 오지않는 사람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이 와서 화를 낸다.
- 웃고름을 자르면 재수가 없다.
- 임신부가 부엌비를 깔고 앉으면 쌍둥이 난다.
- 임신부는 가축 등을 죽이는 것을 보아서는 아니된다.
- 임신부는 말 고삐나 개끼줄을 넘지 않아야 된다.
- 임신부는 몸 속에 불결한 물건을 품고 자면 안 된다.

- 임신부는 시루나 무거운 독을 들어서는 안 된다.
- 임신한 여자가 빨래를 널으면 좋지 않다.
- 임신한 여자가 숯불을 피우면 좋지 않다.
- 자는 사람 얼굴에 그림을 그리면 그사람이 죽는다.
- 자루를 베고 자면 귀머거리가 된다.
- 잔소리가 많으면 가난해 진다.
- 잠 자면서 이를 갈면 복이 나간다.
- 잠 잘때 발을 포개고 자면 복이 달아난다.
- 제비를 잡으면 학질에 걸린다.
- 제비를 죽이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제사 때 축문을 크게 읽어야 조상이 기뻐한다.
- 제사 지내기 전에 닭이 울면 귀신이 오지 못한다.
- 제사지낸 밥을 먹으면 마른버짐이 없어진다.
- 제사지낸 송늬를 먹으면 겁이 없어진다.
- 제사지낸 후 대추를 먹어야 늙지 않는다.
- 제사지낸 후에는 飲福을 해야 자손이 잘된다.
- 제사 지낸 후에는 음식을 여럿이 먹어야 좋다.
- 제사지낼 때는 문을 열어 놓아야 조상이 들어온다.
- 지게 작대기로 부지깥이하면 언청이 손자 낳는다.
- 책상에 올라 앉으면 공부 못한다.
- 책을 베고 자면 공부 못한다.
- 처녀가 머리를 풀고 문지방을 넘으면 시집을 못간다.
- 처녀가 머리를 풀고 부엌에 들어가면 평생 고생한다.
- 초상집에 다녀오면 짚을 태워 불을 쏘여야 한다.
- 칼을 부뚜막위에 그냥 놓으면 부정탄다.
- 콩을 볶아 껍질을 까 먹으면 가난하게 산다.
- 평상시에 한숨을 쉬면 팔자가 사나워진다.
- 혼인 날 비가 오면 불길하다.
- 혼인 날 신부가 웃으면 첫 딸을 낳는다.
- 홍역할 때 개를 잡으면 해롭다.

- 홍역할 때 개를 잡으면 해롭다.
- 환갑잔치는 앞당겨서는 해도 늦춰서 하지는 않는다.

3. 길조어

- 까치집이 있는 나무밑에 집을 지으면 부자가 된다.
- 꿈에 귀인에게 절을 하면 대길하다.
- 꿈에 돼지새끼를 낳으면 운수대통한다.
- 꿈에 몸이 날아오르거나 하늘에 오르면 운수대통한다.
- 꿈에 무지개를 보면 집안에 경사가 생긴다.
- 꿈에 용을 타고 물에 들어가면 운수대통한다.
- 네잎 클로버를 찾으면 행운이 온다.
- 노름판에서 굴뚝 쪽으로 앉으면 돈을 탄다.
- 닭이 감나무에 올라가면 재수가 좋다.
- 돌날 어린애가 돈을 집으면 부자가 된다.
- 돌날 어린애가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한다.
- 돌날 어린애가 책을 집으면 학자가 된다.
- 돌날 어린애에게 실을 사다주면 명이 길다.
- 동짓날 팔죽이 쉬면 그 다음해 풍년이 든다.
- 등에 점이 일곱개 있으면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다.
- 메주를 예쁘게 만들면 예쁜 딸을 낳는다.
- 밤에 거미가 들어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 봄에 벌을 제일 먼저 보면 부지런해 진다.
- 뽕꾸기가 울면 풍년이 든다.
- 새해에 복조리를 많이 사면 복이 많이 들어온다.
- 설날에 널을 뛰면 발이 건강해진다.
- 소쩍새가 우는 것을 보면 풍년이 든다.
- 승냥이 밥알이 뜨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 시험보기 전 날 엿을 먹으면 합격한다.

- 시험보는 날 배냇 저고리를 몸에 지니고 가면 합격한다.
- 시험칠 때 정문에다 엇을 붙여 놓으면 합격한다.
- 식전에 상제가 상점에 오면 재수가 좋다.
- 아침에 집안에서 거미를 보면 돈이 생긴다.
- 아침에 호랑나비를 보면 그날 재수가 좋다.
- 암탉이 알을 낳는것을 보면 횡재수가 있다.
- 여자의 속옷을 입고 노름을 하면 돈을 탄다.
- 웃고름이 저절로 풀어지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 이사가는 날 팔죽을 쑤어 먹으면 운수좋다.
- 임신한 여자가 꿈에 용을 보면 큰 인물을 낳는다.
- 자기도 모르게 쇠똥을 밟으면 재수가 좋다.
- 장례차를 보면 재수가 좋다.
- 집안에서 돈벌레를 보면 돈이 들어온다.
- 집에 개미가 들끓으면 부자가 된다.
- 학이 새끼를 낳으면 그해 풍년이 든다.

〈백운화〉

제 5 장 전 설

제 1 절 전설의 분류와 분포

1. 개 념

전설은 설화(說話)의 한 장르로서 특정한 대상물이나 증거물에 대한 유래를 말한다. 설화는 학술적으로 신화(神話)·민담(民譚)·전설로 크게 분류한다. 전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전해 오는 통시간적(通時間的)인 존재인 동시에 시간에 따라 빨리 전파됨으로 넓은 공간에 파급된 문화형태이다. 그런데 전달하는 내용, 전달하는 사람,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언어·문학 등과 비슷하다. 다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이 결합한 형태로 전하는 과정을 수없이 대를 이어 현재까지 이르렀다는 시간의 여과와 사라질 것은 사라지고 남은 것만 전승한다는 점은 다른 문화현상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일정한 민족 또는 지방에서 민간에 전하여오는 설화로 신화가 신격(神格) 중심인 반면에 전설은 인간과 그 행위를 주제로 하였다. 전설은 화자와 청자가 이야기를 사실로 믿으며,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기념물이나 증거물이 있으며, 역사와 깊은 관련으로 역사를 전설화하든가 혹은 역사화의 가능성이 있는 독특한 형식을 가진다.

전설은 문헌전설과 구비전설로 구분한다. 구비전설은 대상, 전파·분포, 증시물(證示物)의 수, 시간성, 표현방법, 지역적인 분포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다. 대상에 따른 전설은 세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자연물인 자연전설이다. 이는 육지인 지역지명·산·고개·바위·동굴·식물·동물 등과 하해(河海)인 샘·우물·못·강·섬·곶·항구·바다·항만 등이 대상이다. 둘째는 인공물인 인공전설이다. 이는 유적인 성터·집·정자와 누각·다리·비석·제방과 둑·무덤·묘당(廟堂)과 유물인 복식·음식·가구·가면·신아물·무구류(武具類), 사찰연기담인 사찰·탑·불상·종·경판(經版)·불구(佛具) 등이다. 셋째는 인간과 동물의 전설이다. 이는 인물인 장자(長者)·고승(高僧)·충신·학자·무장(武將)·시조(始祖) 등, 인간행위인 과거(科擧)·풍수·수련(修練)·괴담(怪談)·점복(占卜)·기로(棄老)·힘내기·인신공희(人身供犧)·전란 등, 동물인 용·호랑이·개·지네·뱀·기타 동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전파에 따른 분류는 전국적으로 분포되는 등 민담과 비슷하면서 증시물을 가진 광포전설(廣布傳説)과 국내에서 유일하거나 몇 개만 있는 특수전설로 구분된다. 쌀이 나오는 구멍(米穴)전설이나 홍수로 산꼭대기가 물에 잠겼다는 홍수전설은 광포전설이다. 반면 어느 가문이나 동네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특수전설이다. 또 전설은 분포에 따라 전국에 골고루 분포된 균포전설(均布傳説)과 한쪽 지방에 편재된 편재전설(偏在傳説)로 나눈다.

증시물에 따른 분류는 공간적인 증거물이 하나인 단일증시전설과 한 전설에 여러 가지로 연결된 연쇄증시전설로 구분한다. 시간에 따라서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하는 설명전설과 다분히 예언적인 예언전설로 나눈다. 예언전설은 예언완성과 예언미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표현방법에 따른 구분은 줄거리만 간단히 제시하는 건조체전설과 장황한 수식어를 사용하는 윤색체전설 등으로 나눈다. 마지막으로 전설은 국가별·도별·군별 등 지역적인 분포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2. 의미와 분포

전설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망부석(望夫石)은 세월이 아무리 경과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찬양받을 기념물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기념물을 보고 부인의 정절을 찬양한 사람은 부근의 주민들이었다. 사람들이 세운 기념비가 아닐지라도 부인이 죽은 장소에 있던 자연석을 기념석을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이를 소중한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연석을 대할 때마다 죽은 부인을 대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면 바로 부인이 죽어서 망부석이 되었다는 논리로 비약된다.

우리 나라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전설은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부임 첫날 밤에 죽은 원님」은 대표적인 예이다. 주요한 내용은 “여러 원님이 어느 고을에 부임하는 첫날 밤에 죽었다. 새로 부임한 원님은 억울하게 죽은 아랑의 원혼을 만나서 또는 지네와 독이 해치는 것을 알아서 사건을 해결하여 칭송을 받았다”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는 부임 직후 이전의 지방관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민심을 안정시킨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첫날밤’을 강조한 경우이다. 지방관의 능력은 첫날밤이라는 부임 직후에 판명된다는 점이다. 즉 아랑사건처럼,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지방관을 민중은 무능하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이를 배척하기 마련이다.

한편 전설의 분포는 민담이나 신화와 달리 공간적인 면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는 곧 지표상의 증거이기도 하다. 유일한 것은 존재하지 않음으로 자체가 변이양상(變異樣相)을 자연스럽게 띤다. 변이양상은 전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현재 지표상에서 정착된 상태로 증시(證示)한다. 그런 만큼 전설 분포는 시간적인 전승과 공간적인 전파가 현재 시점에서 교차된 양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설 분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우선 분포도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점이다. 즉 전설에 대한 지역비교인가 아니면 전파방향인가 하는 사실이다. 둘째로 무슨 자료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로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조사하는 동시에 자료에 대한 신빙성은 어떠한가 하는 사실이다. 넷째로 수집된 자료 중 어떠한 구조 단위를 기준으로 분포도를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설은 발생한 장소에서 공간적으로 먼 지역일수록 원형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내용을 쉽게 추출할 수 있다.

우리가 전설을 신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특정 대상물이 존재하는 데서 전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지역의 특정 대상물에 대한 유래라는 특성으로 여타의 설화 장르 중 지역 주민들간에 연대감 내지 공동체 의식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한국인은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만큼 전설은 일상생활에서 풍부하게 전승되거나 수용되어 왔다. 곧 전설은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대변하는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부귀색(富貴色)을 추구하는 행복관, 충·효·열·우애 등의 윤리관, 죽은 이후 이승으로 연결되는 생사관, 현실에 좌절하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갈구하는 비극성과 희망의지, 국가·마을·집단이 존속하는 생명력 등을 전설은 광범위하게 포용하고 있다.

오늘날 물질만능주의와 급속한 산업사회, 핵가족제도, 이농과 도시집중화, 서구화 등에 따른 외래문화의 모방, 매스컴의 범람 등으로 전설은 변질되거나 가치를 상실하는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전설은 바로 우리 선조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전승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가치관은 물론이고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내행동 역시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지명유래 전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자료를 확보해 주신 분과 참고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제보자 ◀

목유상 (축산업, 6대조부터 거주, 66세, 송내동 323번지)

안병철 (농 업, 6대조부터 거주, 69세, 지행동 241번지)

이강진 (농 업, 6대조부터 거주, 69세, 지행동 214번지)

최육중 (농 업, 6대조부터 거주, 62세, 송내동 138번지)

▶ 참고자료 ◀

양주군지편찬위원회, 『양주군지』 (양주문화원, 1993)

동두천시사편찬위원회, 『동두천시사』 (동두천시, 1998)

내행동사무소, 『동지』 (내행동, 1998)

제 2 절 지명유래

1. 내행동의 유래

시의 남부에 위치하며, 1981년 7월 1일 시 승격 당시 생연6리, 지행 1·2리, 송내리 등을 병합하여 개편된 동이다. 동명은 송내리의 '내' 자와 지행리의 '행' 자를 따서 내행동으로 하였다.

3번 국도와 경원선이 지나며, 포천과 파주 적성을 잇는 지방도로가 나있다. 동단으로는 광암동과 접하고 서단은 강변 우회도로가 지나며, 강화천을 사이로 양주군 은현면과 경계를 이루고, 남단은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와 접하여 있다. 북단은 생연1·2동과 접한다.

동두천시교육청·등기소·한국전력공사 등의 관공서와 초등·중등·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동양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인 재생병원이 곧 개원예정이다. 따라서 동두천시의 10개 동 중 주거환경이 가장 좋은 동으로 손꼽히고 있다.

2. 자연마을

1) 송내동

일명 송라(松蘿)마을로도 불린다. 조선시대에는 강화천 부근에 한 마을을 이루었는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시에 강화천을 경계로 남으로 분리된 마을명을 송촌이라 하고 북으로 분리된 마을명을 라리(蘿里, 일명 서낭당으로 성황당의 방언)로 부르게 됨에 따라 두 마을의 이름 중에서 한 자씩을 따 송나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한 안골의 내자와 송나의 송자를 따서 송내동이라고 하였다고 전한다.

2) 안골

강화천변 큰 길에서 동쪽으로 깊숙히 들어가 칠봉산 서쪽에 자리잡은 데에서 안골로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 마을은 조선 초기 청주 한씨가 정착하였으며, 이후 중종조 말부터 함종 어씨가 뿌리를 내려 400여 년을 세거하였다. 또한 사천 목씨도 이곳에서 깊숙히 뿌리를 내려 양대 성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동두천시의 터전은 이곳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내동 안골마을

3) 지행동

닥채나무를 많이 재배하여 생산하던 곳이었다 하여 붙여진 종이골(紙洞)과 사당골(杏壇)의 한 자씩을 따서 지행동이 되었다.

4) 종이골

종이골은 조골이라고도 하며, 닥채나무를 재배하여 종이를 생산하였다하여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한편 일제강점기 공동작업반 조직인 진흥회의 명칭을 당시 구장이 화성진흥회로 명명한 데서 일제 말기를 전후해 화성마을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한편 진터들은 송내동과 지행동의 서향에 펼쳐진 들판으로 옛날부터 진터들이 구전되고 있다. 일설에는 중종의 딸이자, 선조의 고모인 정순옹주(貞順翁主)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의 배위(配位) 장례 때 장지인 양주군 은현면 선암리 소래산까지 선조가 몸소 와서 머무는 연유로 호위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하여 진터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전한다. 또한 이곳은 김유신(金庾信) 장군이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연개소문(淵蓋蘇文) 장군에 패하여 후퇴하며, 이곳에 진을 치고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머물렀다 하여 진터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다.

5) 도독골

도독골(都督谷)은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敬順王)이 935년 고려에 항복을 하자 경순왕의 친척들을 보호·감금하기 위해 도독골에 도독부(都督府)를 설치하고 호위병을 배치하여 보호케하고 양주군민으로부터 받은 조세로 생활해 나가도록 위리안치(圍離安置)한 곳이라고 한다. 그 후부터 이곳을 도독골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 골짜기를 대대장골, 중대장골, 소대장골이라고도 하며, 송내동 산 5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6) 행단마을

세종 16(1443)년에 태어난 어유소 장군이 1456년 무과급제 하기까지 이곳에서 학문과 무예를 익혔다고 한다. 학문을 익힌 은행나무 밑 단(壇)을 행단(杏壇)이라하여 행단마을이 되었고, 사당을 크게 지어 놓고 조상을 모시어 사당이 있는 골[谷]이라하여 사당골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다.

7) 온수골

예전에 온수가 나와 온수골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옛날에 한 피부병 환자가 이 온수에 목욕을 하고 피부병이 말끔이 낳았다. 그 소문이 퍼져 피부병 환자가 몰려 들었다 한다. 그 치닥거리로 힘들게 되자 마을 사람들이 온수가 나오는 우물을 묻어 버렸다고 한다.

한편 천여년 전 이 마을에 청주 한씨 일가가 살았는데, 나병환자 수백명이 몰려와 이 물에 목욕을 하며, 한씨네 일가의 채소를 훔쳐 먹었다고 한다. 청주 한씨 일가는 나병환자를 몰아

내려는 궁리를 하고 있는데, 한 스님이 그 우물에 개를 잡아 넣고 치성을 드리면 나병환자를 몰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 스님이 일러준 대로 하자 갑자기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산이 무너졌다고 한다. 이로 인해 가옥과 전답을 잃게 된 한씨 일문은 다른 곳으로 이주했고, 온수가 나오던 우물도 묻혀져 없어졌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다.

송내동 6통에 위치하며, 천보산과 칠봉산이 서로 분지하는 서쪽 골짜기로 내동마을과 연결된다.

8) 능안마을

이 마을은 지금의 에이스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지역으로 예년에 꽤 큰 마을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마을 이름의 유래는 뒷산에 광정승의 묘가 있었는데, 풍수지리상 능터자리라 하여 '능안'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전하나, 지금은 그 광정승의 못자리는 흔적조차 없다.



능안마을

9) 무수동



무수동

물이 귀하여 무수동이라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전한다. 조선 초기부터 이곳에 세거해온 평해 황씨 일문에서는 조선 중기에 이르러 농사철만 되면 물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어야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축을 쌓고 다시는 물걱정을 안하는 마을로 만든

다고 '수(水)' 자를 '수(愁)' 자로 고쳐 '무수동(無愁洞)' 이라고 하였다고 전한다. 한편 방축을 단단히 쌓기 위해 뚝 위에다 엽전을 뿌려 놓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뚝을 밟으며 돈을 주워가도록 하였으나, 물만 채우면 붕괴되어 마침내 황씨네는 재산만 탕진하고 결국 막지 못했다고 한다.

수 백년이 지난 지금도 무수동은 수리시설이 없는 마을로 남아 있다. 농경사회에서 물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농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강한 지를 알 수 있다.

10) 아치노리

고려 말의 주왕(朱王)이 봉어하자 회암사에서 수행하던 무학대사는 주왕의 못자리를 잡기 위해 천보산맥을 따라 지금의 아차동까지 왔는데, 산맥이 아차동에 와서 끊기고 자신이 예측했던 것과 크게 어긋났음을 알자 '앗차' 하며 자탄하였다고 하였던 것이 연철되어 '아차' 라고 부리워지게 되었다고 전한다.



아치노리마을

일설에는 천보산 봉우리가 높고 험해 '아차(峨嵋)' 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다고도 전한다. 현재에는 점점 연철되어 아치노리라고 부른다.

11) 행자막골

고려 말에 주왕의 못자리를 찾아 나선 무학대사는 천보산맥이 지금의 아차동에서 끊어졌음을 자탄하였으나, 결국 아차동 골짜기에서 모시게 되었다. 이후 주왕의 행자(行子)가 그곳에 묘막을 짓고 있었다 한다. 그 골짜기를 '행자막골' 이라 하였는데, 점차 '함지막골' 로 불리지고 있다고 전한다.

12) 생골

산고리는 본래 생연동에 속해 있던 자연촌이었는데, 시승격과 동시에 내행동에 속하게 되었다. 옛날부터 이 마을 돌 틈 또는 지표 밑에서 산골[生骨]이 나오고 있어 붙여진 지명인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연철되어 '산고리'로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전한다.



생연동 생골마을

13) 사당골



사당골마을

어유소 장군이 출생하고 성장한 마을로 그가 죽은 후에 후손들이 장군의 사당을 짓고 추모하며, 뿌리를 내려 오던 중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 전화가 여기까지 미치자 사당을 장군의 묘소가 있는 좌기골(座起谷)로 옮겼다. 그로 말미암아 사당이 있던 마을이라하여 '사당골'이라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전한다.

한편 일제강점기의 문화말살정책에 따라 행정 구역 개편시에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마을 이름을 향단(香丹)이라 폄하하여 부르기도 하였다고 전한다.

3. 고개

1) 솟고개

이 고개 정상에 솟가루와 흙으로 덮혀 있어 솟고개라고 불리워지고 있다고 한다. 일명 솟고개라고도 하는데, 내행동 행단마을에서 남쪽의 송내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2) 뺨골고개

기와집이 백여 채가 있던 동네라하여 백골고개라 하였는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연철되어 뺨골고개로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전한다. 현 동두천시교육청 뒷편 아파트촌에서 산고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3) 서낭당고개

300년 이상된 느티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성황당이 있었다하여 성황당고개라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전한다.

내행동의 생골마을에서 기상아파트를 잇는 4차선 도로를 따라 동북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나즈막한 언덕을 말한다. 현재 이 언덕 바로 옆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으며, 정상이 생연 1동 연동마을과 내행동 생골마을과 경계지점이다.

4) 능안고개

능안마을에서 지동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에이스아파트 단지에서 3통지역(지행동 조골)으로 넘어가는 지름길로 사용되고 있다.

5) 가라니고개

이 고갯길은 흙이 차지고, 비가 오면 매우 질어서 발갈이가 쉽지 않은 곳이었다. 사람들은 '발 갈았나?'가 인사였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면서 연철되 '갈았나'가

‘가라니’로 연결되어 가라니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지금의 평안운수 차고 뒷편 성내동 주택단지를 말한다.

6) 부처고개

몹시 더운 어느 날 인근 마을의 한 노인이 장을 보러 가다 고개를 넘게 되었다. 중간에 바위에 걸터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던 노인은 우연히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건이 바위 밑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노인이 아래로 내려가 살펴보니 그것은 금빛으로 찬란히 빛나는 황금부처였다. 그는 “이게 웬 횡재냐!” 하며



부처고개

부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나 부처는 마치 땅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아 별수 없이 그대로 장을 보기 위해 발길을 돌렸다.

불일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온 노인은 신기한 일도 다 있다며 사람들에게 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 놓았다.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 한 욕심쟁이가 슬그머니 빠져나와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갔다. “그걸 팔면 큰 돈이 생기겠지. 거린 걸 남한테 빼앗길 수야 없지. 암 그렇구 말구!” 하며 그 욕심쟁이는 지계를 지고 고개로 올라갔다. 황금부처를 본 그의 눈은 탐욕으로 더욱 빛났다. 그러나 부처는 그의 힘을 비웃기라도 하듯 미소를 머금은 채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그는 지계 작대기로 이리저리 온갖 힘을 다했다. 그 순간 갑자기 눈에 통증을 느꼈다. 그만 작대기 끝에 눈을 찔리고 만 것이었다. 그 후로 그는 결국 실명을 하였는데 이 사실이 온 마을에 퍼지자 황금부처에 대해 욕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 느끼게 되었다.

“분명 이것은 보통 부처가 아니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게 틀림없어.” 하면서 그들은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

이 일이 있는 후 마을에 한 스님이 시주를 오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에게 고개에 있는 황금부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 주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스님은 사람들과 함께 고개로 올라갔다. 정성스럽게 염불을 하고 절을 마친 스님은 부처 앞으로 다가가 마치 가벼운 물건을 집듯 한 손으로 사뿐히 부처를 들어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무리 해도 꿈쩍도 않더니.”

“글쎄말이야.” 하면서 여기저기서 웅성거렸다.

마을 사람들의 놀람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스님은, “이 부처님은 소승이 영묘한 절을 찾아 모실 터이니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길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떠나는 길을 향해 절을 하며 덕이 높으신 분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그 후로 이 고개를 부처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내행동에서 광암동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7) 검으냄이고개

옛부터 이곳에 검은 바위들이 무수히 널려 있어 ‘검으냄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전한다.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숲이 우지지고 고목이 많아 희귀 야생조류들의 군락지로 유명해져 조류학자들의 발길이 잦았던 곳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60년대 말부터 산림이 훼손되면서 유원지로 탈바꿈되어 그 옛날의 정취는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벌판으로 변했다.

지행동의 자연촌인 안골에서 광암동 텃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하며, 근래에 대진재단(大眞財團)이 이곳에 종합병원을 짓고 있다.

8) 청풍동고개

옛부터 경치가 수려하고, 바람이 맑고 시원하다 하여 청풍동 고개라고 부르고 있다고 전해진다. 송내동에서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9) 꽃밭모루

지행동 종이골과 사당골 사이에 방씨네 묘소가 있다. 그 묘소 북쪽으로 진달래 꽃이 많이

자생하여 옛부터 꽃밭모루라고 전해지고 있다.

10) 마장터

예전에 한양에서 원산까지 가는 길목으로, 사당골 뒷산인 이곳에서 쉬며 말을 바꿔 타고 갔기 때문에 항상 말이 많았다하여 마장터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재생병원 밑을 말한다.

11) 활터마루

어유소 장군이 이곳에서 활을 쏘다하여 활터마루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행동에서 송내동으로 넘어가는 동쪽 봉우리에 있다.

제 3 절 산악전설

1. 천보산

조선시대 어느 임금이 난을 당하여 이 산에 피신하였다. 난이 끝나자 목숨을 건진 이 산을 '금은보화로 치장하라'고 신하에게 명하였다. 신하가 난리 후라 금은보화를 구하기는 어렵고 이름을 하느님에 보배로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간청하여 천보산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전한다.



천보산

2. 어등산

어유소 장군이 성종대왕을 모시고 이 산에서 사냥을 했다고 하는데, 임금이 오른 산이라 하여 어등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어등산

3. 주봉

오랑캐가 있는 북쪽을 막아 준다해서 주봉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안골 평안운수 정류장 뒷 산봉우리를 말한다.

4. 도인봉

안골저수지 터를 바라보며 동쪽으로 있는 산봉우리로, 악산으로 불리우나 경사가 심하여 사람을 인도하는 봉우리라 하여 도인봉이라고 부른다고 전한다.

5. 노구봉

늪은 개 모양의 산세를 이루고 있어 '노구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안골 쪽에서는 대도사(大道寺) 뒷산이며, 도독골에서는 일련사 뒷산을 말한다.

제 4 절 바위전설

1. 벽장바위

바위의 한 면에 사람 4~5명이 들어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굴이 파져 있는 것이 벽장같이 생겼다해서 벽장바위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안골 대도사 옆에 있다. 주거문화를 중시한 선조들이 자연물을 주거 환경에 비유한 데서 비롯되었다.



벽장바위

2. 뽕바위

회암사(檜巖寺)를 창건할 때 주춧돌을 구하기 위해 마고할머니 전국 각지를 다니다가 함경도에서 구해 치마에 싸고, 머리에 이고 왔으나 회암사 불사가 끝난 후였다. 마고할머니는 구해온 돌을 여기에다 쌓아 놓았다하여 뽕바위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일설에는 7형제 모두 장수가 되었는데, 형제들끼리 힘겨루기를 하면서 하나씩 쌓아 놓았다하여 뽕바위로 부르게 되었다. 또한 쌓여 있는 바위의 모양이 연꽃같이 생겼다하여 '연화바위'라고도 한다. 안골 대도사 뒷 산봉우리 중턱에 있다. 불사 건립에 민중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국가적인 대규모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마당바위

땀바위 윗쪽으로 명석 2~3개를 깔 수 있는 크기의 바위가 있는데, 마당같이 생겼다하여 마당바위라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전한다. 농경문화에서 가장 중시된 부분은 바로 추수인데, 추수는 반드시 마당에서 이루어졌다. 일찍부터 이곳에 농경문화가 정착된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4. 냉정바위

바위 밑에서 찬물이 나온다하여 냉정바위라고 전한다. 계절의 변화에도 수온은 항상 일정하였고, 이에 약수로 널리 이용되기에 이르렀다. 안골에서 대도사(大道寺) 쪽으로 오르는 목장 옆에 있다.

5. 장군바위

안골 대도사에 마주 보이는 산봉우리에 있는 바위를 말하는데, 장군같이 생겼다하여 장군바위라고 한다. 큰바위에 대한 선조들의 외경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특히 남아선호사상이 강하던 전근대 사회에서는 모든 형상물을 장군에 비유하였는데, 이러한 유풍의 잔재는 장군바위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또한 보는 이의 느낌에 따라 상투바위·호룡바위·등잔바위라고도 한다.

6. 달바위

정월 대보름날에 달맞이 하던 바위라 해서 달바위라고 부른다고 전한다. 보름달은 풍요를 상징하며, 특히 정월 대보름은 일년 중 처음이라는 점에서 중시되었다. 농경사회에서 대보름은 일년의 풍흉을 가름한다고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대보름 행사는 중요한 세시풍속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이날은 이웃에게 널리 자선을 베푸는 한편 이웃끼리과 더불어 민속놀이를

즐겼다. 내행동 6통 3반 안골 윗마을에 있다.

7. 오형제 바위

크고 작은 바위 다섯 개가 있는데, 마치 5형제가 나란히 서 있는 것 같다해서 5형제 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안골저수지터를 마주하며 동쪽 산봉우리 중턱에 있었으나, 해방 이후부터 주민들이 구들장으로 써버려 지금은 없어졌다.

제 5 절 기타 전설

1. 뱀우물

우물가에 뱀이 많다하여 뱀우물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뱀은 일상사에서 기피하는 대상이자,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인식하였다. 내행동 6통(안골)에서 지행동 5통으로 넘어가는 고개 밑에 우물을 말한다.



뱀우물

2. 옷우물

옷오른 사람이 이 물에 씻으면 낫는다하여 옷우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인근 동

민 수백여 명이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 약수물은 마을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식수로서 중시되었다. 특히 마을제(일명 洞祭 또는 洞神祭)나 산신제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주위에 황토를 뿌리고 금출을 쳐서 주민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광암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옆에 있는 재생병원 밑에 있다.



조정구 우물

3. 조정구 우물

옛날 양주목사 조정구가 이곳을 지나다 이 물을 떠먹었다하여 '조정구 우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종이골 중간마을에 있다.

4. 장군목

내행동 행단마을에 수령 천 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깊은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장군목(將軍木)이다. 이 나무는 동두천 인근 지역에서는 가장 역사가 깊은 나무로서 그 옆에는 오랜 세월을 같이한 연못과 어유소 장군의 생가가 있어 한층 그 의미가 깊다. 마을에서는 이 나무를 수호신(守護神)으로 여겨 나무 근처에서는 불경스런 행동을 금했으며, 상여가 지나갈 때에도 나무를 피하여 돌아갔다고 한다.

어유소 장군은 어릴 때부터 이 나무 밑에 단



장군목

을 쌓고 학문과 무예를 연마하여 급기야 장원급제 하였다고 전해진다. 장군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한 달 동안이나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후로도 나라에 큰 변란이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무가 우는 소리를 마을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 즉 고종 인산일(因山日)과 한국전쟁 발발 시에도 큰 가지가 꺾이었다고 전해지며, 이곳 주민들은 지금도 나무에 치성을 드려 마을의 평안과 발전을 기원하는 제수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1995년도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행단제(杏壇祭)'로 출전하여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장군목은 마을을 수호하는 동시에 국가의 장래는 걱정하는 등 인간생활사와 깊은 연관성을 지닌 전설이다.

〈백운화〉